2010 라니의 여행앨범(인도,네팔)

ⓡanee(라니)

소개글

목차

1 공항에서 만난 네팔의 첫모습, 만년설의 히말라야 5

2 (네팔) 카트만두 여행의 출발점, 더르바르 광장 10

3 (카트만두) 상인들로 넘쳐나는 거리 21

4 (네팔 카트만두) 스와얌부나트 30

5 네팔 민속춤 공연인 반차가르 민속쇼 37

6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42

7 (네팔 포카라) 히말라야 설산과 어우러진 페와호수의 아름다움 58

8 (네팔 포카라) 데비폭포와 굽테스와르 마하데브 동굴 73

9 (네팔 포카라) 난민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한 티벳 난민촌 82

10 (네팔 포카라) 사랑코트에서 일출을...(안나푸르나가 전해준 감동) 88

11 (네팔 포카라) 105

12 (네팔) 포카라에서 룸비니 가는 길에 만난 풍경들 112

13 부다(석가모니)의 탄생지 네팔 룸비니 124

14 국경을 넘다(네팔에서 인도로...) 145

15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강의 아침 173

16 인도 사르나트 불교 유적군 205

17 (인도 사르나트)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 (스리랑카 불교사원) 216

18 릭샤 타고 바라나시를 달리다. 225

19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 강의 뿌자의식 232

20 바라나시에서 카주라호로 이동하며 담은 풍경들 249

21 (인도) 에로틱 조각상으로 유명한 카주라호 서부 사원군 256

22 카주라호의 동부 사원군 298

23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311

24 잔시역 도착. 아그라까지 가기가 왜이리 힘들어. 320

25 (인도 아그라) 영혼의 얼굴에 핀 눈물, 타지마할 330

26 아그라 성(Agra Fort) *362*

27 자이푸르로 *383*

28 카츠츠와하 왕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암베르 성 *403*

29 (인도 자이푸르) 물의 성 *465*

30 인도 여행기... 언제쯤 완성할 수 있으려나. *485*

31 (인도 암베르) 쥬얼리 샵 구경과 산책 길에 만난 아이들 *486*

32 핑크시티 자이푸르 (사진 먼저...) *509*

33 (인도 자이푸르) 바람의 궁전 (사진 먼저...) *525*

34 바람의 궁전 *535*

35 [인도 자이푸르] 잔타르만타르 (사진 먼저...) *546*

36 핑크 시티의 힌두교 사원 (사진만...) *563*

37 [인도 델리]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바하이 사원 (사진 먼저....) *567*

38 델리에서 부사월까지몇 시간이 걸렸을까?(사진만) *572*

39 [인도] 엘로라 가는 길 (사진만 먼저 올려요. 여행기는 나중에...) *583*

40 [인도] 엘로라 석굴 중 힌두 사원인 카일라쉬 사원 (사진만 있어요) *591*

41 [인도] 엘로라 석굴 중 불교사원과 자이나교 사원(사진만 있어요) *604*

42 [인도] 아우랑가바드에서 뭄바이 가는 길 (사진만 있어요) *616*

43 [인도] 밤늦게 도착한 뭄바이...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635*

공항에서 만난 네팔의 첫모습, 만년설의 히말라야

2010.01.27 10:42

2010년 1월11일 (월)

2년전엔 서유럽 여행기를 끝내지 못하더니 이번엔 결국 북유럽 여행기를 끝내지 못하고 인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누가 꼭 하라고 시킨 일도 아니건만 꼭 해야할 일을 끝내지 못한 것 같은 이 찜찜함은 뭔지.
더 바쁘고 힘들어질 올 한 해,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예년보다 여유가 더 없을 것 같은데...
끝내지 못한 여행기로 이렇게 찜찜해 하느니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니 몇년째 해오던 이 일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어쩔 수 없지. 이번 여행기록부터는 과감하게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간단히 쓰도록 해봐야겠어.'

그럼 이제부터 네팔 인도 여행기 시작~

네팔 카투만두까지 편하고 안락하게 나를 데려다 준 대한항공 비행기

이번여행에서 나를 네팔 땅까지 실어 날라준 비행기는 대한항공 비행기이다. 여러 항공사를 이용해봤지만 나에겐 역시 대한 항공이 최고.(싱가폴 항공도 마음에 들긴 했지만...)
대한 항공의 가장 큰 매력은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온다는 거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한동안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없단 생각을 하니 숟가락에 붙은 한톨의 밥알까지도 어찌나 소중하던지...

7시간 30분만에 카투만두 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비행기

비행기 타는 것도 이력이 나서인지 그다지 지루한 줄 모르고 7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카투만두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주위를 감싸는 후끈한 공기. 햇살도 꽤나 강하다. 지난 겨울 홍콩 여행 때 더위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며 얇은 옷들로 챙겨오길 잘했지라고 내심 흐뭇해 했는데 이 생각은 이 날 하루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이날이후로 하루 이틀정도만 빼고는 겨울 외투를 짐가방 속에 넣지 못하고 늘 끼고 다녀야 했다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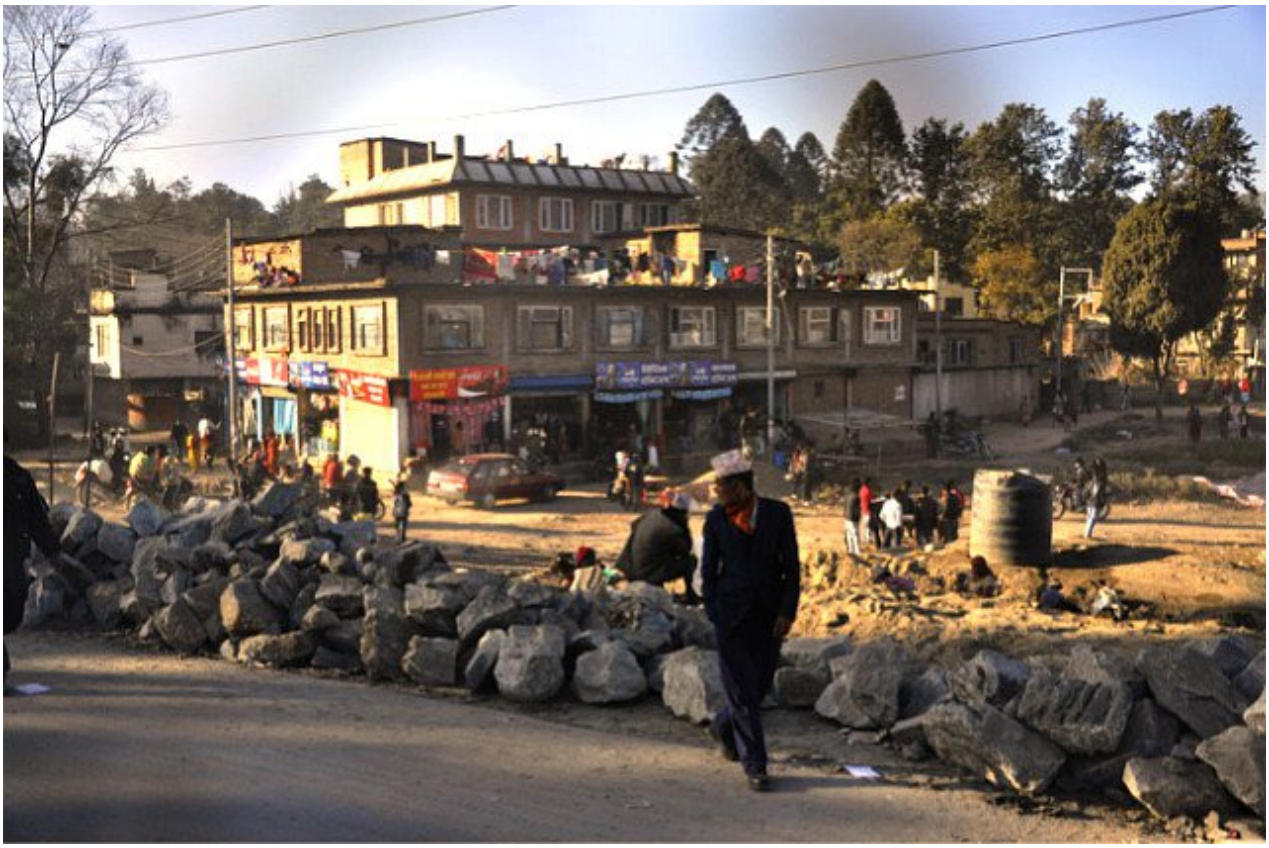
이상 기온 때문인지 인도의 겨울 날씨가 원래 그런 것인지 인도의 겨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다.

덕분에 사진 속의 옷차림은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버렸고...

예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작아 보이는 공항 건물, 내부 장식이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연상시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리는동안 나도 모르게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다녀왔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 나오자 만년설로 덮힌 히말라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여행이 거듭되다보니 처음 다른 나라 땅을 밟았을 때와 같은 벅찬 감동은 느낄 수 없게 되었지만 눈부신 히말라야를 보니 비로소 내가 네팔 땅에 와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면서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맹이 하나를 던져 넣었을 때 생기는 작은 물결과도 같은 잔잔한 감동이 내 마음 속에도 퍼지고 있음을 살며시 느낄 수 있었다.

카투만두 공항



카투만두 시가지의 모습들

버스를 타고 가며 본 카투만두의 모습들. 도심지는 아닌 듯 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인데 도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는다. 나의 어린 시절, 서울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을까. 이 곳에 도착한 이후로 자주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듯

하다.

네팔다운 모습

(네팔) 카트만두 여행의 출발점, 더르바르 광장

2010.01.27 23:54

2010년 1월11일 (월)

Ranee in Kathman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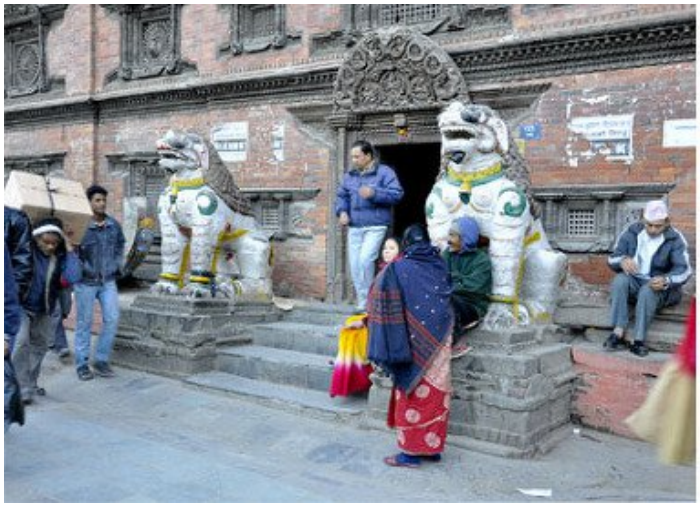
-더르바르 광장-

버스에서 내려 더르바르 광장을 향해 가는 길,
사진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람들로 꽉찬 거리의 모습도 놀랍고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경적 소리에 혼이 빠져 나갈 지경이다.
여행지니까 좋지, 살라고 하면 도무지 이 소음과 복잡함을 며칠이나 견디며 살 수 있을지.....

광장 근처에서 본 돌조각.
언뜻 보면 우리 나라의 해태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도 신상일까???
사원 안에 모셔져 있지 않으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산타뿌르 광장

더르바르 광장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고 있는 이 곳은 바산타뿌르 광장이다. 꾸마리(쿠마리)사원 옆의 넓은 공터로 중세 시절에는 왕실 전용 코끼리 훈련소가 있었던 곳이었다지만 현재는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광장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다. 이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은 티벳의 불교용품이나 각종 토속품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물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구경해 본 적이 있어서인지 그다지 내 눈길을 잡아 끌진 못했다.



꾸마리(쿠마리)사원

바산타뿌르 광장을 지나 더르바르 광장으로 들어서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원은 꾸마리(쿠마리) 사원이다. 수많은 사원들 가운데 살아있는 여신의 집이라는 쿠마리 사원은 옛 네팔왕국의 수호신인 떨레주 여신의 화신으로 여기는,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쿠마리)가 살고 있는 사원이란다. 쿠마리는 네와르 불교도의 승려이자 금세공사 카스트 일가 중 5살~8살 사이의 여자 어린이 가운데서 선발되는데 쿠마리로 선발되면 이 쿠마리 사원에서 살며 신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을 탄 걸로 간주돼 그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어 초경이 시작되면 쿠마리의 지위를 잃게 되고 다시 새로운 쿠마리를 선발하게 된다.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점은 쿠마리 후보의 자격에 관한 것. 힌두교의 여신을 선발하는데 그 여신을 불교도 중에서 선발하는 이유는 뭔지.

꾸마리(쿠마리)사원 내부

표를 구입하여 사원의 내부로 들어섰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섰다고 해서 사원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관광객들에게 허용되는 공간은 여기까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쿠마리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산토스(현지 가이드)가 알아본 결과 현재 수면 중이라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단다. 얼마나 어린 아이이기에 이렇게 이른 초저녁부터 잠을 자는 것인지.... 어쩌면 생활이 너무도 무료하여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며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쿠마리가 되면 초경을 하여 여신으로서의 자격을 잃기 전까지 사원 밖으로 못나오고 이 곳에서만 생활한다니 어찌 무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린 시절을 외부와 차단 당한채 이 곳에서만 살았으니, 여신의 자격을 잃고 외부로 나왔을 때 과연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쿠마리였던 여인은 결혼도 하기 힘들다니 그 인생이 너무도 가엽단 생각이 든다. (쿠마리의 남편은 일찍 죽는다는 속설이 때문에 남자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결혼을 기피한다고 함)

(사진 출처:걸어서 세계 속으로)

꾸마리 사원 구경을 마치고 사원을 나서면 입구에서 꾸마리의 사진을 판매하려고 몇몇 여인들이 경쟁을 한다. 1달라였었던가???

신도들이야 사진으로라고 보고 싶을지 모르지만 나야 뭐...ㅎㅎ (사진도 안사주면서 차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캡쳐한 사진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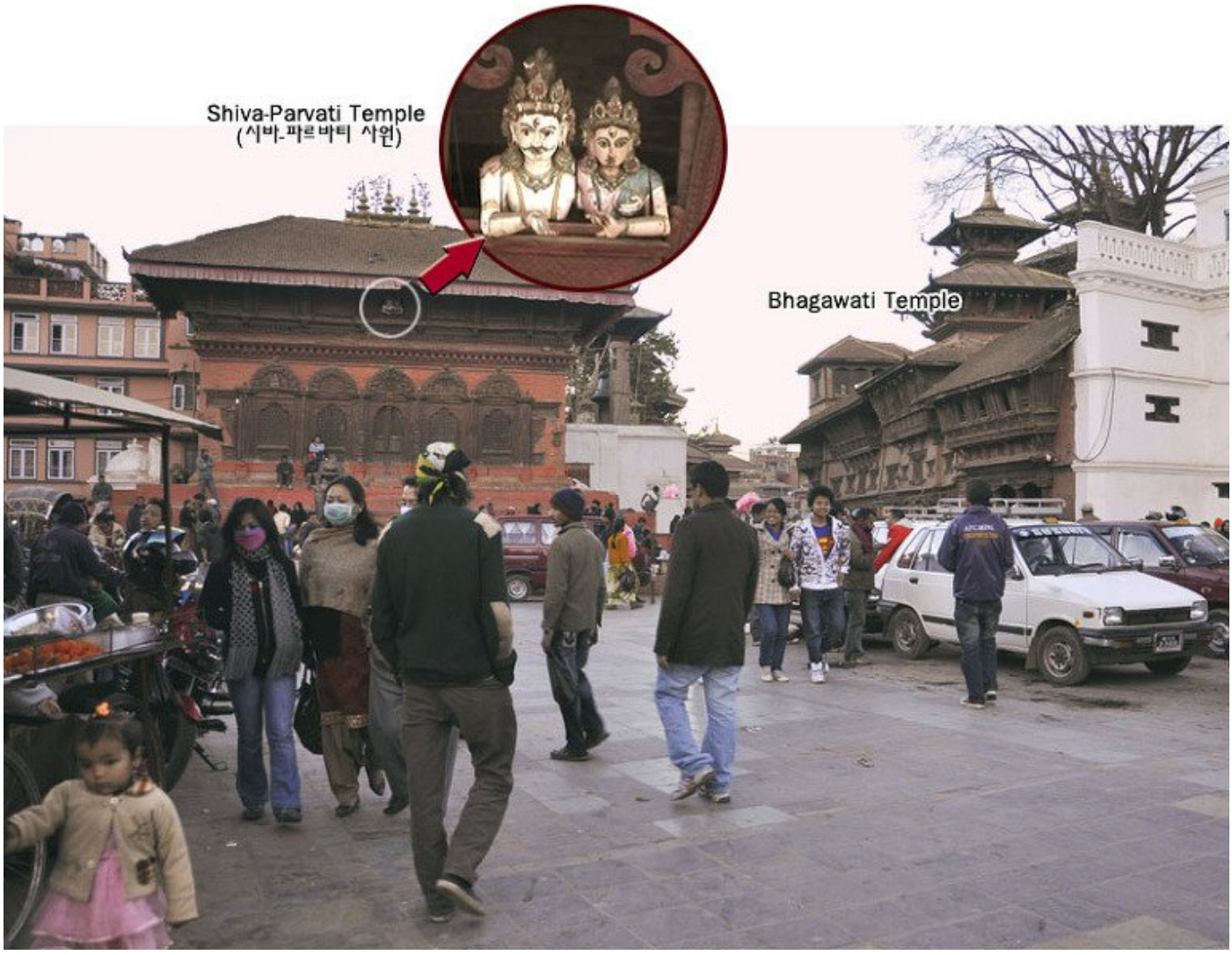
꾸마리 사원 앞 더르바르 광장이다. 사원 박물관처럼 보일 정도로 좁은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사원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로 가득 찬 카트만두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듯 하다.

더르바르란 이름은 '왕궁'이라는 뜻을 지닌 네팔어로, 16~19세기까지 실제로 카트만두 일대를 통치하는 왕궁이 이 곳에 있었다고 한다. 건물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들인데 기둥과 창살마다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으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둥 하나 창살 하나까지 세세히 살펴보는 즐거움을 누려도 좋으리라.

마주 데발

더르바르 광장의 사원 중 가장 높이 솟아 있는 까닭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사원이 있으니 그것은 마주 데발이다. 마주 데발은 17세기말 박타푸르의 왕 부파틴드라말라에 의해 세워진 사원으로 외형적으로는 불교 사원에 가깝지만 실제는 힌두교 사원으로 내부에는 시바 링감(시바의 상징이자 남성의 상징)이 모셔져 있다.

높이 솟아 있는 사원에 앉아 있는 젊은 남녀의 모습을 보니 현재는 사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나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바 파르바티 사원

더르바르 광장의 사원 중 높아서 눈에 띄는 마주 데빌 외에 독특한 모습으로 눈길을 머물게 하는 사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시바 파르바티 사원**. 시바 파르바티 사원은 18세기 고르카 왕조의 **바하두르 왕**에 의해 세워진 **힌두 사원**으로 대부분의 힌두 사원이 한 명의 주신만을 모신데 비해 이 사원은 **시바와 파르바티 부부를 동시에 모셔놓은 것이 특징이다**. 사원 창문에 서 있는 **시바신**과 **파르바티**의 모습이 마치 인간 세계를 내려다 보고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주변의 건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오 클래식 양식의 유럽풍 건물인 Gaddi Baithak

(19세기 라나가의 전제시대에 증축된 건물이라고 함)

더르바르 광장에서 본 수행자

더르바르 광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다가 독특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한 이가 지나가길래 순식간에 셔터를 눌렀다. 보통 이런 모습을 한 이들을 수행자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모습의 수행자들 중 과연 몇 %가 진짜 수행자인지 모르겠다는 거다. 특이한 모습을 하고 관광지에 상주하며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거나 무심코 사진을 찍는 관광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니 말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사원의 모습만 찍은 것처럼 셔터를 누른 후 수행자에게는 눈길 한 번 안주고 사원만 쳐다보는 연기를 해야 했다.

'이 사람은 진짜 수행자였을까?'

광장 한쪽의 길거리 음식

더르바르 광장에서

광장 주변의 재래 시장

(카트만두) 상인들로 넘쳐나는 거리

2010.01.28 00:17

2010년 1월11일 (월)

광장 주변도....

골목길도.....

하천 주변도....

어디에 눈길을 주어도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노점상인들의 모습.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인지 이 곳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듯 했다.

해는 점점 기울고 곧 어두워질텐데 팔려나가지 못한 채소들이 바구니에 가득하다.

이 아저씨는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앉아 몇 마리의 닭이나 팔았을까.

이 아저씨는 또 얼마나 많은 짐을 저렇게 이어 날랐을지....
고되 보이지만 이런 일거리라고 있음에 감사할지도 모를 일이다.

(네팔 카트만두) 스와얌부나트

2010.01.31 02:21

2010년 1월11일 (월)

Ranee in Kathmandu

-스와얌부나트-

스와얌부나트를 향해 오르는 길에 본 카트만두의 모습

높다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는, 카트만두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인 스와얌부나트를 향해 버스가 언덕 길을 오르고 있다. 스와얌부나트는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라마교의 성지로 부다가 태어난 룸비니 동산 다음으로 가장 신성시 되고 있는 곳이다. (스와얌부나트는 물위의 연꽃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함)

버스로 올라온 덕에 385개나 된다는 계단을 모두 오르는 수고 뿐 아니라 걷는 시간까지도 '확' 줄였건만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안타깝게도 해는 이미 저물기 직전, 언덕 쪽을 보니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내려오는 사람들 뿐이다.
'부지런히 올라야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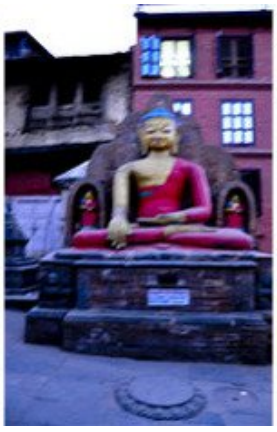
사원 아래쪽의 작은 스투파

네팔의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스투파들은 크고 작음의 차이와 생김새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방으로 눈이 그려져 있고 물음표처럼 생긴 코가 그려져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사방으로 그려진 눈은 사방을 응시하는 부다의 눈이라 하며 코는 네팔 숫자 1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늘에는 나부끼고 있는 5색의 깃발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의 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과 불, 흙과 공기, 그리고 영혼이 그것이라고 한다.

순식간에 어두워질 것 같은 조짐에 부지런히 올라야겠다 생각하는데 시작부터 발걸음을 못 떼게 붙드니 이들이 있으니 바로 이 원숭이들이다. 스와얌부나트가 몽키템플, 즉 원숭이 사원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하더니 과연 그런 애칭이 붙을만하다 싶게 상당히 많은 원숭이들이 혹시 먹이라도 주지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듯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주변을 어슬렁 거리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지 가까이 다가가도 서둘러 피할 생각을 안하는 녀석들. 원래는 원숭이의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현재 많이 줄어들어 이 정도라고 한다.

녀석들 모습 좀 사진에 담아볼랬더니 저무는 해라 빛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녀석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사진이 모두 흔들려 버렸다. 아기 원숭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사진에 꼭 담아오고 싶었는데 말이다.



불상과 조각들

오르면서 보니 곳곳에 이런 불상과 조각들이 있는데 원색적이어서인지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기대감을 안고 헉헉대며 나름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게 왠일, 보수공사 중인 스투파가 흉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앞에 서있지 않은가.
스투파 금색 상단의 4면에 그려진 부다의 눈도 상단 이마에 그려져 있다는 제 3의 눈인 삼지안도 보이질 않는다.
대실망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5가지 원소를 관장하는 각각의 부처 형상이 보존되어 있는 스투파의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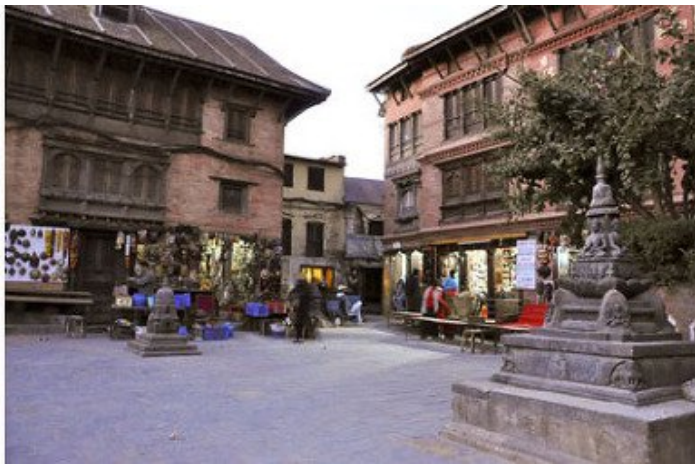
눈이 그려진 탑신 위로 13개의 둥근 원이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데 이는 티벳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하기 위한 13단계의 과정을 뜻하며 스투파의 하단엔 일정한 간격으로 5가지 원소를 관장하는 각각의 부처 형상이 보존되어 있다.

조금 전까지만해도 한 두명의 신도들이 마니차(회전 예배기)를 돌리며 스투파(불탑)를 돌고 있는게 보였는데 날이 어두워져서인지 신도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마니차는 내부에 경문을 인쇄한 종이를 넣은 둥근원형통으로 ,한번 돌릴때마다 그 경을 읽은것과 마찬가지로 공덕이 쌓인다고 함)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 좋기로 유명한 스와얌부나트. 카트만두 시내 전경은 물론 날이 맑을 때에는 히말라야 연봉들의 자태도 볼 수 있다지만 지금은 날이 어두워진 까닭에 뭐하나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다. 전기사정이 좋지않은 네팔이라 화려한 야경도 기대할 수 없고.

오른쪽 끝의 사진은 난간에 앉아 있던 원숭이를 찍으려 했던 건데 카메라를 들이대자 순식간에 도망가 버린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ㅜㅜ'



불교 미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내의 각양 각색 탑들과 기념품점

네팔 민속춤 공연인 반차가르 민속쇼

2010.01.31 2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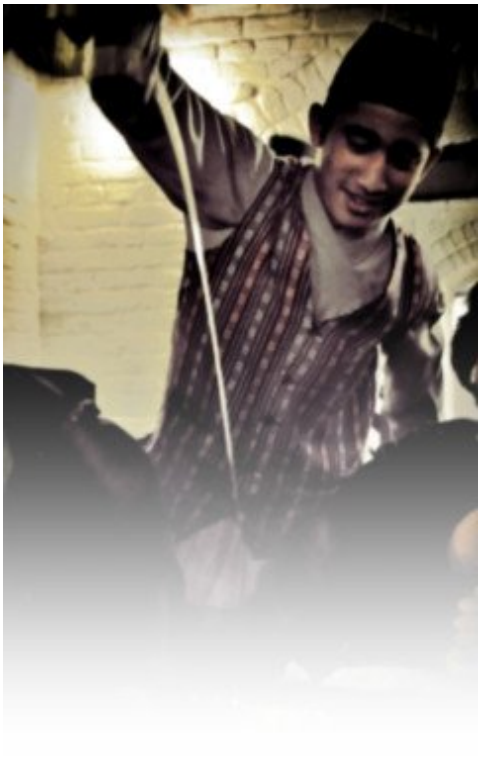
2010년 1월11일 (월)

Ranee in Kathmandu

-네팔 민속춤-

네팔 전통식

이번 여행에서의 첫 식사는 네팔 전통식, 음식이 나오면 쟁반처럼 생긴 그릇에 조금씩 덜어 준다.
제일 처음 나온 음식은 감자 튀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건 무리없이 먹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우리네 만두 비슷한 음식, 약간 느끼하긴 했지만 이것 또한 2개 모두를 먹어 치웠다.
하지만 다음으로 나온 음식들이 문제.
빵보다도 잘 넘어가지 않는 끈기 하나 없는 밥(여행 때마다 이 밥을 먹으려면 참말로 괴롭다)에 뭉그러지도록 삶은 시금치, 돼지고기는 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듯 했고, 닭고기 또한 내가 즐겨 먹는 식재료가 아니었다. 그리고 커리가 나왔던가...???
아무튼 나의 위장이 벌써부터 음식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니 이번 여행에서도 살 좀 빠지겠단 예감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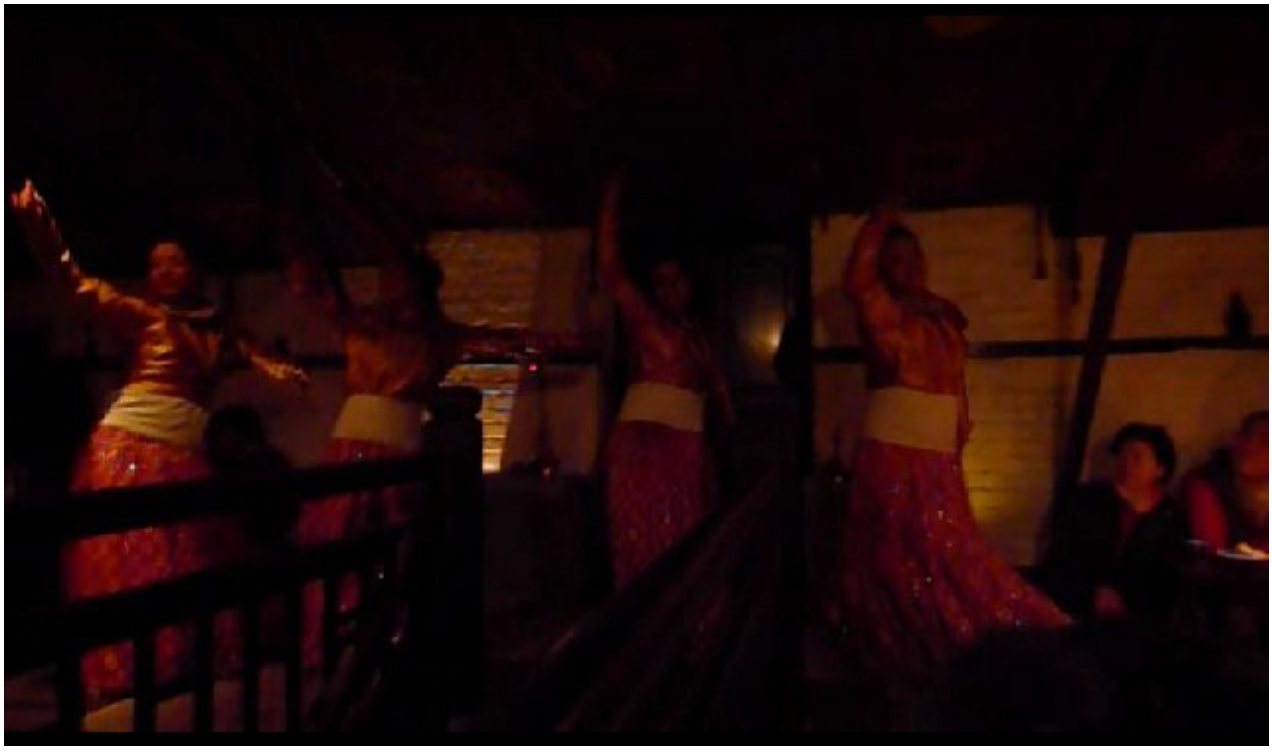


묘기 수준에 가까운 물 따르기

네팔 민속춤 공연인 반차가르 민속쇼

식사를 마친 후 음식점 윗층에서 네팔 민속춤 공연인 반차가르 민속쇼를 보았다. 6명정도의 무희들이 민속 의상을 입고 네팔 민속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소규모 공연이었는데 원색과 보색이 적절히 사용되어 산뜻하고 예뻐 보이는 네팔의 민속의상을 보는 것은 즐거웠지만 음악과 춤은 단순한 리듬에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듯해서 민속춤 공연을 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민속의상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게 했던 것 같다. 이러한 까닭으로 스페인에서 플라멩코 공연을 볼 때처럼 미칠듯이 뛰는 심장 박동을 다시 느낄 수도, 터키에서 민속춤 공연을 볼 때처럼 뛰어들어 함께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태국의 알카자쇼나 중국 심천의 민속 예술쇼 용봉무중화는 규모로라도 압도했는데...'



선물(?)처럼 찍어준 이마의 빈디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2010.01.31 21:41

2010년 1월12일 (화)

호텔 창문에서 바라본 카트만두의 모습

네팔이나 인도나 난방 시설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 밤 생각보다 추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다. 이럴 줄은 상상도 못하고 온통 봄, 여름 옷들로만 챙겨왔으니 어쩌면 좋을런지....

오늘은 카트만두에서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로 이동하는 날,
8시간이상 소요되는 긴 이동 시간 때문에 이른 아침인 오전 7시에 버스에 올랐다. 이른 아침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식료품 가게로 보이는 이 곳. 무언가를 사가지고 가는 듯한 아주머니의 순박한 모습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바나나들이 정겨워 보인다.

이 할아버지는 목욕이라도 하시려는 건지...
아침 찬 공기에 찬 물로는 세수도 간신히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산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길엔 이런 낭떠러지를 옆에 낀 산 길이 무척 많다. 곡예하듯 아슬아슬하게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고 있지만 산 아래 펼쳐진 절경에 환호하느라 무섭단 생각은 들지 않는다.

꽤 긴 시간의 이동이라 좀이 쑤실만도 하건만 사람들 사는 모습을 살피느라 지루한 줄도 모르겠다.
이 집은 꽤 많은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일까?? 저리 많은 빨래가 걸려 있으니 말이다.

인도에선 남자들이 일을 하고 네팔에선 여자들이 주로 일을 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지붕에 짐을 실은 버스.
때론 짐대신 사람이 타기도 한다.

중간에 점심 식사를 위해 머물렀던 곳.
오는동안 내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인지 네팔 속의 한 공간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곳.

다시 출발~

스쳐 지나가며 본 모습이긴 하나 이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의 생활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것.
펌프나 부엌이 밖에 있으니 씻는 일과 요리를 하는 등의 일은 밖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불도 밖에서 꿰매고 머리도 밖에 나와 빗는 것 같다.
양지 바른 밖이 더 따뜻해서 그러는 건지 조명 없는 실내가 어두워서 그러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이런 생활 모습이 내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

네팔에서 아주 흔한 바나나 나무,
원두막처럼 생긴 저 것의 정체는???

역시나 또 고된 일을 하는 네팔 여인들의 모습.

천진난만한 아이들.
자연이 그들의 놀이터다.

포카라의 안나푸르나.
이제 서서히 내릴 준비를 해야겠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포카라는 해발 800m 정도의 낮은 구릉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시내에서도 8,000m급의 설산이 잘 보이는 곳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곳이라 한다. 트레킹을 떠나지 않아도 순백의 설산을 즐길 수 있는 네팔의 대표적 휴양 도시 포카라에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네팔 포카라) 히말라야 설산과 어우러진 페와호수의 아름다움

2010.02.09 22:18

2010년 1월12일 (화)

Ranee in Pokhara

-페와 호수-

(Phewa Lake)

네팔 제2의 도시이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위한 중간 기지라는 **포카라**에 도착했다. 이온 음료인 포카리 스웨트와 어감이 비슷해서인지 푸른색이 먼저 떠올랐던 곳인데 이 곳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푸른색과 맞아 떨어지는 **페와 호수**이다. 유명 관광지답게 호수 주변엔 관광객도 많고 노점상도 많다. 조잡하게 인쇄된 책자나 기념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이들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주어 붙들리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으니 100% 사겠단 생각이 있는게 아니라면 눈길도 주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 것. (생각해 보니 인도 잡상인들의 끈질김에 비하면 네팔 잡상인들의 끈질김은 애교 수준이었던 듯 하다. 인도 잡상인들은 끈질김은 진짜 진저리를 칠 정도. 너무 피곤했다.)

호수 가까이 당도해 보니 멀리서 볼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기 위해 대기중이다. 언제 기다렸다 타지 싶었는데 한 배에 여려명씩 타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다.

현장학습(?) 나온 네팔 학생들

호수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단체로 놀러온 학생들을 발견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장학습을 온 학생들인 것 같은데 네팔은 대체 몇월이 방학이길래 1월에 현장학습을 온 것일까?

안나푸르나의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페와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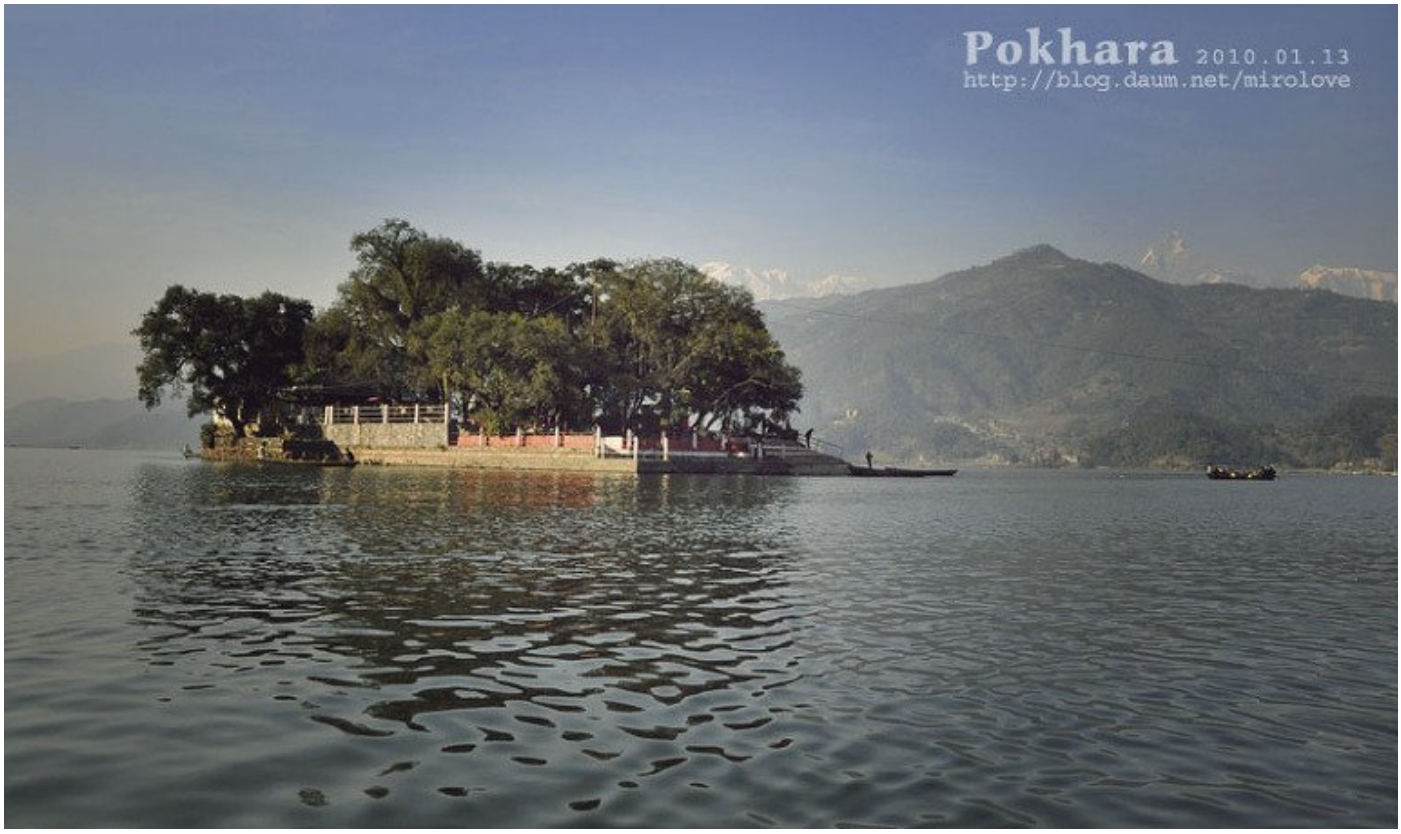
현장학습 나온 학생들도 배를 타려는지 인솔교사와 함께 우리 주변으로 다가 왔다.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이길래 몇마디 주고 받고 사진을 찍었는데 긴장을 했는지 사진을 찍힐 때의 전형적인 자세인 차렷 자세가 나온다.

미소가 예쁜 다른 아이가 더 관심을 보이길래 따로 사진을 찍어 보여 주었더니 좋아라 한다. 사진을 즉석에서 뽑아줄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노 젓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분주해 보이던 할머니...

또 다른 한 쪽엔 출발 준비를 마친 나룻배

힘차게 노를 저어 출발이다.



배를 탄 이들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들처럼 호수를 떠다니며 이 절경을 감상하고 싶어 배를 탄 이들이고 또 하나는 호수에 떠 있는 사원엘 가기 위해 배를 탄 이들이다.

섬 안의 바라히 힌두 사원

작은 사원과 작은숲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보이는 바라히(Varahi) 사원은 비쉬누 신의 화신인 바라히를 모신 힌두 사원이란다.

유유자적 주변을 감상하며 풍경을 카메라에 담다가 내 카메라 앵글에 포착된 이웃 배의 사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는다.

雪山과 페와호수의 어우러짐

패러글라이딩의 천국

1시간동안의 페와호수 유람을 마치고 되돌아 가는 길이다. 눈과 마음에 담은 이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걷고 싶은 사람,
날고 싶은 사람,
찍고 싶은 사람,
.
.
.
다모여라 포카라로.

(네팔 포카라) 데비폭포와 굽테스와르 마하데브 동굴

2010.02.11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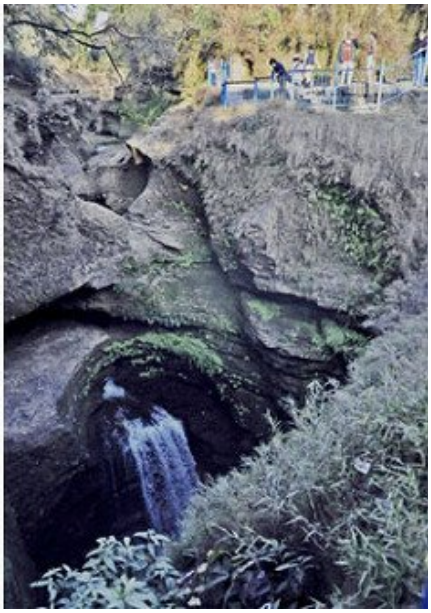
2010년 1월12일 (화)

데비 폭포 & 굽테스와르 마하데브 동굴

데비 폭포 (Devi's Fall) 입구

빼딸레 창고(Patale Chango)

페와 호수에서 남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데비 폭포** 앞이다. 원래 이름은 **빠딸레 창고**(Patale Chango)지만 1961년 이 곳에 놀러왔던 '데비'란 이름의 스위스 여인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데비스 폴(Devi's Fall)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단다.



빠딸레 창고(Patale Chango) , 데비 폭포(Devi's Fall)

페와 호수에서 흘러나온 파르디 강이 좁은 암반 사이로 떨어지는 이 곳이 빠딸레 창고 혹은 데비 폭포라 부르는 곳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포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데비 폭포**는 다른 폭포들과는 달리 땅속으로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라 유명한 곳. 폭포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어도 폭포란 생각이 안들고 마치 깊은 우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굽테스와르 동굴**을 보고나서야 이것이 폭포라는게 이해가 되었다. 물이 좀 더 았많으면 이 곳에서 봐도 폭포란 생각이 들었을텐데 시기적으로 물이 많이 말라 있을 때라 폭포다운 장엄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데비 폭포를 본 후 데비 폭포 건너편 쪽의 굽테스와르 마하데브 동굴로 향하는 중.

버스 지붕 위에 앉은 승객들

지붕 위의 저 곳은 짐을 싣는 곳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수요자에 비해 버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안전벨트만 안해도 큰일이라는 식에 길들여져서인지 이들의 이런 모습이 많이 낯설고 버스나 오토릭샤 등에 매달려 가기도 하는 네팔이나 인도 사람들을 보면 아찔아찔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보기보다 많지 않다는데, 정말일까???

트럭만 알록달록인 줄 알았더니 버스도?

이들은 어찌 이리도 요란히게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것일까.....덕분에 내 눈은 즐겁지만 말이다.

스쿨 버스는 스쿨 버스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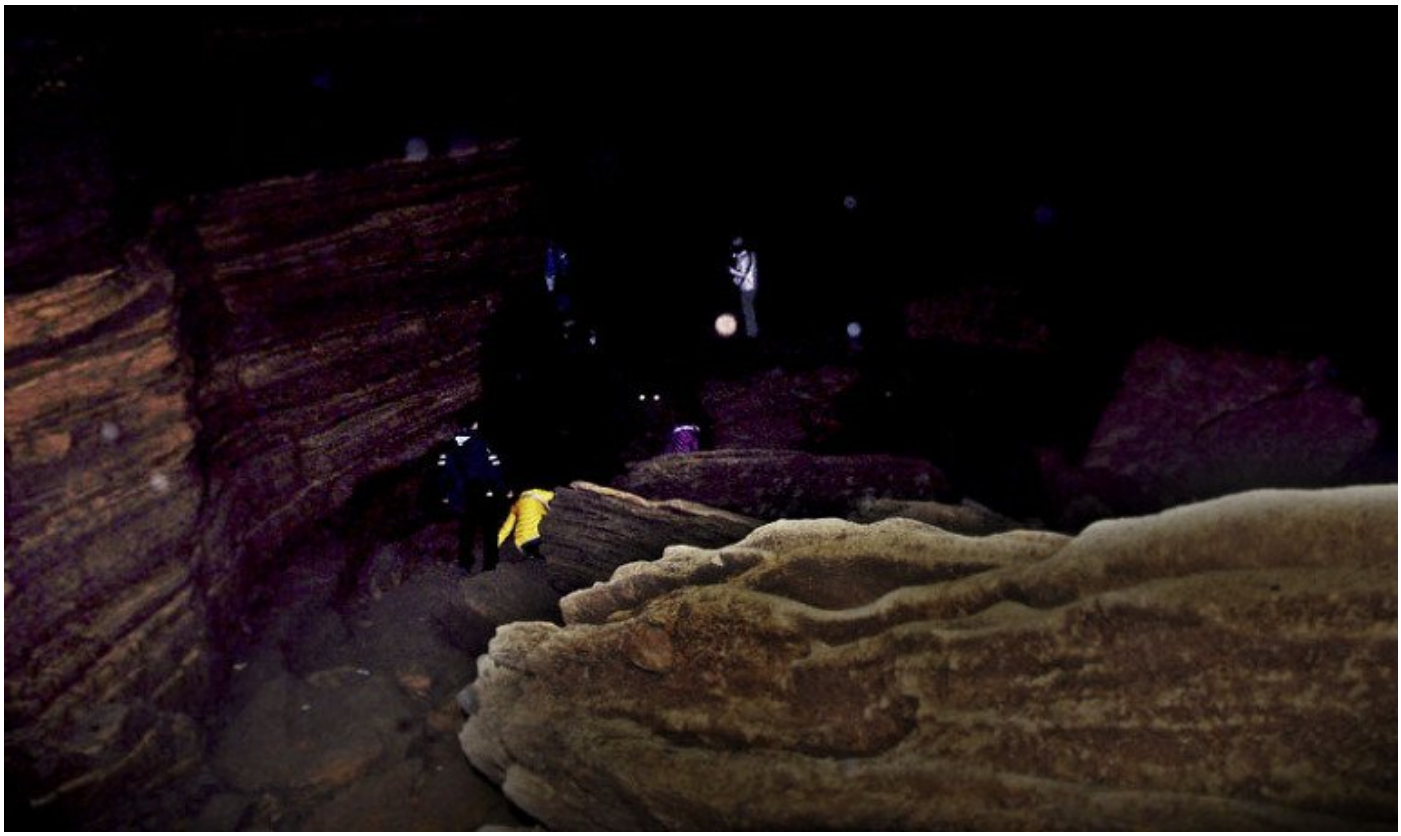
다른게 많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 걸.

굽테스와르 마하데브 동굴(Gupteshwor Mahadev Cave) 매표소

동굴 속에 있는 사원을 뜻한다는 굽테스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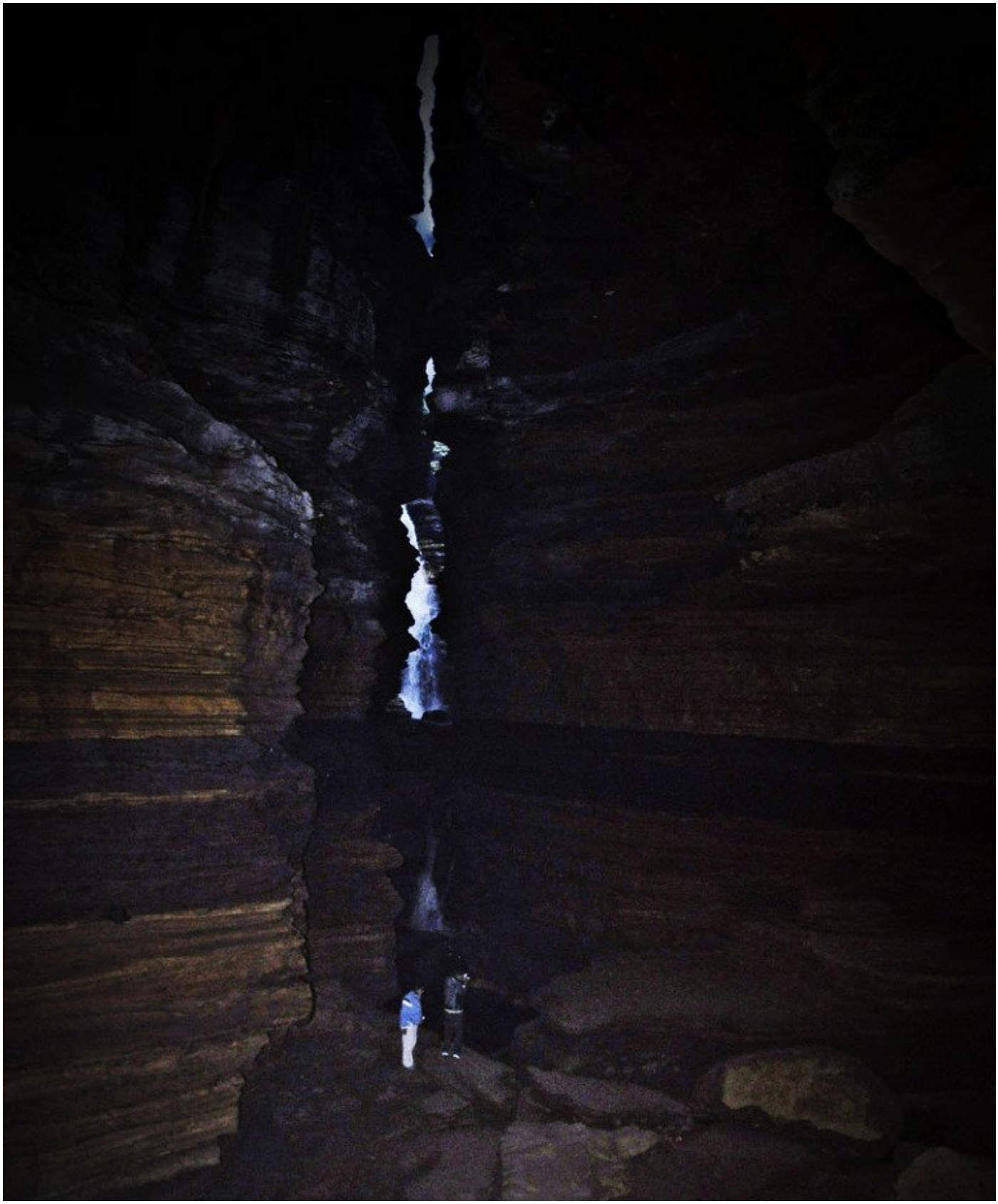
10년전에 한 힌두 수행자가 이 동굴에 시바신이 모셔져 있는 꿈을 꾼 후 실제로 동굴 내부를 조사해보니 시바신의 링감이 발견되어 그 결과로 지하사원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동굴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는데 시바 링감과 가네쉬(Ganesh) 신상이 눈에 띈다. 상업의 신인 가네쉬(Ganesh)신은 시바신의 아들로 인도인들에게 꽤 인기가 높은 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축축하고 눅눅한 기운을 느끼며 몇십미터는 되는 듯한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힌두사원이 있다. 촬영금지라고 해서 한 번 들여다 보고 다시

아래로 아래로...밖에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동굴이 있으랴 싶었는데 생각보다 큰 동굴이다. 조명이 밝지 않아 발을 헛딛는 건 아닐까 약간 불안해 하며 내려가다 보니 희미한 물줄기가 보인다.



그냥 동굴이려니 했다가 동굴 안에 폭포가 있다고 놀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보았던 데비 폭포가 이리로 떨어지는거라 해서 더 놀랐다.

한번도 데비 폭포와 이 동굴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

(너무 어두워서 사진이 찍히질 않아 수동초점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촛점도 맞지 않고 iso를 너무 올려 노이즈도 굉장한 사진이 되어 버렸다.)

내려갈 땐 그래도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올라오는 건 어찌나 힘들던지...
기운이 쏘옥 다 빠져 버린 상태.
몇몇 일행들은 과일을 사겠다고 과일 노점 앞에 모여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나는 구경할 힘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루 빨리 체중을 줄여야겠어.'

(네팔 포카라) 난민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한 티벳 난민촌

2010.02.11 21:00

2010년 1월12일 (화)

Ranee in Pokhara

-티벳 난민촌-

SOS CHILDRENS VILLAGE

1952년 중국에게 점령당한 티벳. 티벳탄들은 박해를 피해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망명했고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티벳 난민촌이다.
네팔에는 11개의 티벳 난민촌이 있고 이 곳은 포카라에 있는 4개의 난민촌 중 한 곳이다. 마을 깊숙히 들어가 보지 않아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깔끔하고 제법 살기 좋아 보여 언뜻 보기에 내가 상상하고 있던 난민의 생활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학교와 기념품점이 보이고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여인들이 열심히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도 보였는데 양모로 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다.

원색적인 장신구들과 토속품들을 팔고 있는 상점

흥정 잘 하세요.

흥정엔 전혀 소질이 없어 정찰제가 아니면 물건을 살 엄두를 못내는 나는
네팔과 인도에선 일찌감치 물건 사기를 포기해야 했다.
여행 때마다 기념으로 인형을 한 개씩 사왔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고...

마을의 모습

중고등학교쯤 되는 학교 운동장에선 축구경기가 한창이다. 운동장 귀퉁이에선 또래로 보이는 젊은 승려가 축구공을 가지고 발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만은 운동장에서 함께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운동장 뒤로 보이는 마차푸차레가 아름답다.

(네팔 포카라) 사랑코트에서 일출을...(안나푸르나가 전해준 감동)

2010.02.11 21:06

2010년 1월13일 (수)

Ranee in Pokhara

-사랑코트에서 일출을-

4시에 일어나 5시에 호텔을 나섰다. 일출을 보기 위함이다. 새벽에 일어난 터라 잠이 부족한 일행들은 다시 잠으로 빠져들기도 했지만 전혀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나는 어둠에 둘러싸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창 밖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본다.
포카라 시내를 몇 십분간 달리고 구불구불 산 길을 또 얼마간 돌아돌아 올라 사랑코트 전망대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버스가 멈추어 섰다.
시계를 보니 5시 45분이다. 불 밝힌 가게가 없었으면 얼마나 어두웠을지...
상점의 불빛을 의지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란코트(Sarankot)' 라고도 부르는 '사랑코트'는 네팔의 북중부에 있는 산악마을로 해발고도 1600m에 위치하고 있어 히말라야 고봉(高峰)들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상점의 불빛을 의지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불빛은 멀어져만 가고 달마저 초승달이어서 달빛에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한 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산길을 오르는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어두운 길을 어떻게 계속 오르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왔댄다. 5분 걸었나 10분 걸었나...ㅋㅋ

그 짧은 시간을 오르고서도 숨이 차오르는 불량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더이상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우선은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힘들어도 조금 더 걸었으면 싶기도 했다. 네팔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흔히들 트레킹을 먼저 떠올릴텐데 이렇게 걷지 않는 여행을 하고서도 네팔엘 다녀왔다고 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

체력이 된다면 사랑코트 1일 트레킹도 추천할만한 코스라고 한다. 빈디야바시니 사원 뒤로 넘어가면 사랑코트로 통하는 길이 있어 2시간이면 넉넉하게 오를 수 있다고.

Pokhara 2010.01.13
http://blog.daum.net/mirolove

사랑코트에 오르고 보니 해가 뜨기엔 많이 이른 시각. 새벽공기라 두터운 옷을 입어도 몸이 으실으실 춥다. 마침 산토스가 짜이(향신료가 첨가된 인도식 밀크티)를 사주어서 따스한 짜이 한 잔으로 몸을 덥힌다.

짜이를 마시고 나도 동이 틀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번엔 전망대 옆 허름한 가게에 들어가 숄을 구경하며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사이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산들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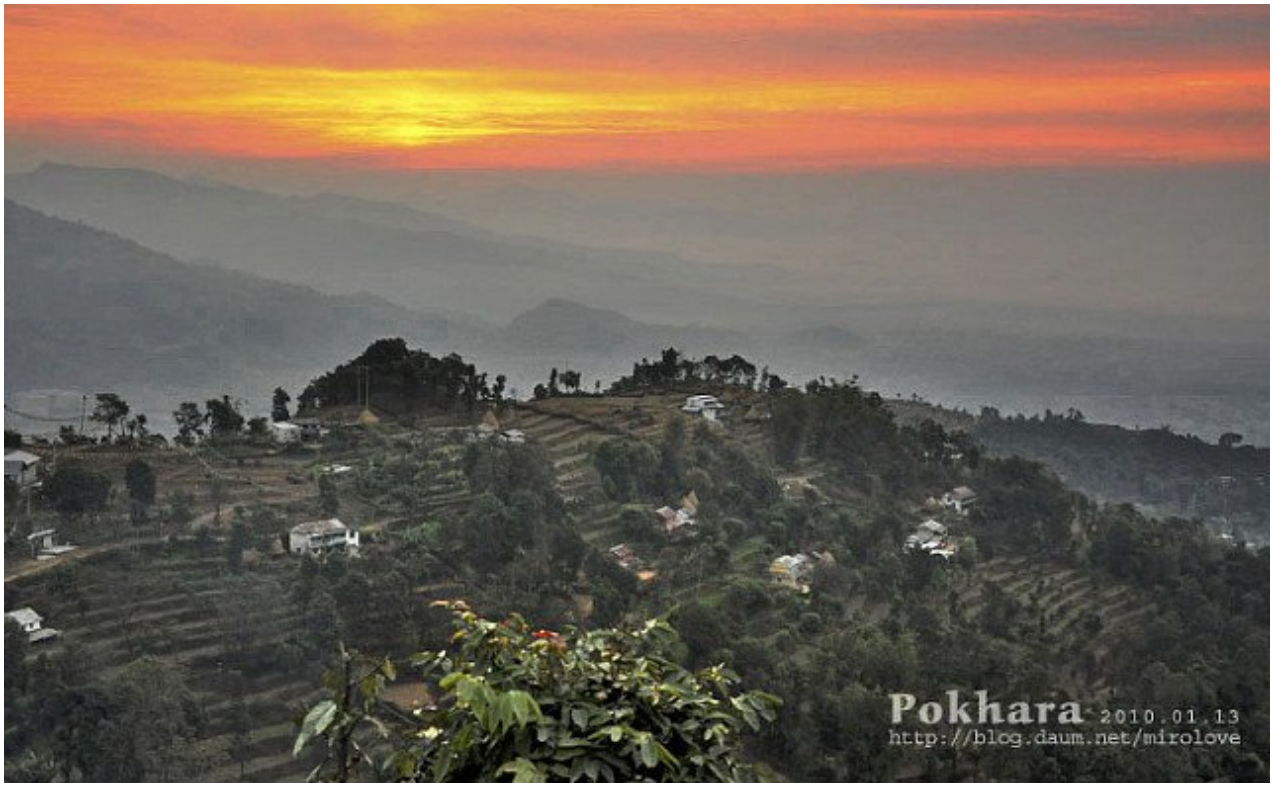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탄성도 들리고 카메라 셔터음도 연신 들리고...

시간이 더 흐르니 모든 것이 좀 더 또렷이 보인다.
해발 800m의 평지에서 8000m급의 고봉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기막힌 풍경이라니...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게 이런 것이로구나.
정말 아름답다.

히말라야 유일의 미등정 산으로 유명한 마차푸차레 (6,993m)와 히말라야 중부의 연봉 안나푸르나를 이렇게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다니....예상치 못했던 감동이 밀려온다.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봉우리의 모습이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네팔어로 '물고기의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차푸차레.

1957년 영국등반대가 정상 50m 앞까지는 등반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마차푸차레의 정상을 밟아 본 이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네팔인들이 이 산을 신성시하여 등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들을 비추고 햇살을 받은 설산의 산봉우리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

황홀함으로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Wonderful!

Vravo!

넋을 잃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너도 나도 기념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 중이라 좀처럼 내 차례는 오지 않을 듯 해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충 찍었더니 내 사진은 건질게 하나도 없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으니 이제 내려가야 할 듯.

올라올 때는 온통 까만 세상이라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날이 밝으니 짜이를 마셨던 가게도 보이고 카페트가 널려 있는 가게들도 보인다.

'오른쪽? 아님 왼쪽? 어느쪽으로 가야하지???'

방향 감각이 없는 나는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할지 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 중.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마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 온다.
'OK. 뒤 쫓아 가면 되겠지.'

주차장을 향해 내려 가는 길

'야호~ 올라올 땐 몰랐는데 내려 가는 길도 멋있잖아.'

위에선 사람이 많아 제대로 못찍었으니

내려 가는 길에 한 컷~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 형성되었다는 페와 호수

내려 가는 길에 만난 또 다른 멋진 풍경. 사진 찍을 게 또 있다며 나는 내심 좋아 죽는다. 사진으론 표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산 아래로 나즈막히 깔린 구름(?)이 너무 멋져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이 곳이 바로 어제 뱃놀이를 즐겼던 페와 호수가 있는 곳이란다.

어느새 주차장이다.

이 멋진 풍경과의 이별이 정말 아쉬운데.....

(네팔 포카라)

2010.02.11 21:11

2010년 1월13일 (수)

Colorful Pokhara

डाबर
आँवला
PEPS

(네팔) 포카라에서 룸비니 가는 길에 만난 풍경들

2010.02.11 21:39

2010년 1월13일 (수)

포카라에서 룸비니 가는 길에 만난 풍경들

포.카.라.를. 떠.나.다.

농.촌.에.서. 만.난. 풍.경.

OKIA

पर्वत
खाजा पसल

사.람.들

होटल
जय शिव

생.선. 파.는. 거. 처.음. 봤.다.

움.막. 한.칸. 없.는...

방.학.은. 언.제...??

부다(석가모니)의 탄생지 네팔 룸비니

2010.02.17 20:07

2010년 1월14일 (목)

석가모니의 탄생지 룸비니에서...

성원구역 정문

원래 일정상으론 어제 와보기로 되어 있던 곳이지만 어제 룸비니에 늦게 도착한 탓에 오늘로 미뤄야 했던 룸비니 성원구역이다. (일몰 후엔 개방하지 않음) 호텔에서 6시에 출발하여 어둠을 가르며 1시간쯤 달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도착했다. 달리는 동안 날은 거의 밝았지

만 안개는 여전하여 앞을 잘 내다 볼 수가 없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사진을 못 찍고 다 둘러보고 나와서 찍은 사진임)

성원구역(Sacred Garden)

석가모니의 탄생지라 유명한 곳이니 만큼 룸비니의 볼거리는 모두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석가모니의 탄생과 관련된 볼거리들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곳 성원구역. (이 곳에 마야데비 사원과 아쇼카 석주, 보리수 나무가 있음)

정문만 통과하면 유적지가 바로 있을 줄 알았는데 유적지는 정문에서 10분쯤 걸어들어가야 한다.
(나올 때 찍은 사진이라 사진에는 정문이 보임. 반대쪽 방향이 유적지)

길가의 꽃나무들

걸어가는 길가엔 이런 꽃나무들이 즐비하다. 겨울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네팔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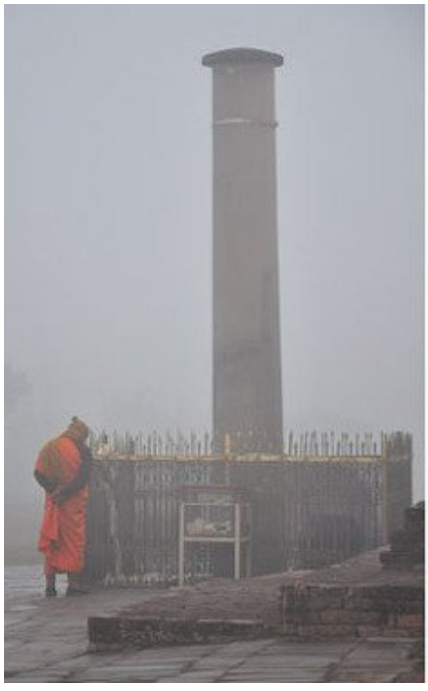
중간쯤에도 허술해 보이는 입구 같은 것이 있고 이 곳을 통과하면 허름한 기념품 가게들이 나온다. 기념품 가게를 지나면 하얀 철문. 이제 다 왔다. (사진을 찍으려면 입장 요금과 함께 카메라 촬영권(1달러)을 사야 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려면 비디오 카메라 촬영권(10달러?)을 사야 함).

마야데비 사원

철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흰색의 건물은 마야데비 사원이다. 여행 안내 책자에서 본 마야데비 사원은 붉은색의 건물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흰색으로 새단장을 한 건지 모르겠다.

마야데비 사원

마야데비(Mayadevi) 사원은 11세기에 지어져서 1943년에 재건된 곳으로 석가모니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부조를 모시고 있는 사원이다.



아소카 석주

마야데비사원 서쪽엔 네팔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념물인 **아소카 석주**가 서 있다.(1896년 발견)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623년 샤카족의 왕비인 **마야부인**이 출산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던 중 룸비니에 있는 사라수(娑羅樹) 아래에서 잠시 쉬다가 산통을 느껴 그곳에서 석가모니를 낳았고 그 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곳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순례자들 중에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도 있었는데 기원전 249년 이곳을 찾게된 아소카왕이 석가모니를 찬미하며 네 개의 불탑과 꼭대기에 말의 형상을 가진 기둥을 세운 것이 **아소카 석주**라고. 현재 부러진 상태로 그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이 석주에 재위 20년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성스러운 마을인 이곳을 찾았으며 룸비니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받고 생산물의 8분의 1만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이 곳이 석가 탄생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구룡못

마야데비 사원의 남쪽에는 연못이 있다. **마야부인**이 **석가모니**를 낳기 전 목욕을 하고 갓 태어난 석가모니를 목욕시켰다는 성스러운 연못이란다.

덧신으로 갈아 신고 사원의 내부로 들어섰다. (사원의 내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덧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불교 신도가 아닌 나는 감정의 변화없이 이 곳을 둘러 보고 있지만 일행 중 몇몇 불교 신도들은 몹시 감격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불교의 4대 성지 중 한 곳이라는 곳에 왔는데 말이다.

사원의 정 가운데에는 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돌조각이 있다. 사라수 나무를 붙잡고 옆구리로 부다(석가모니)를 낳는 마야부인과 어린 부다(석가모니)를 받는 브라흐마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돌 조각이다. 1600년의 세월에 닳고 닳아 지금은 윤곽만 확인할 수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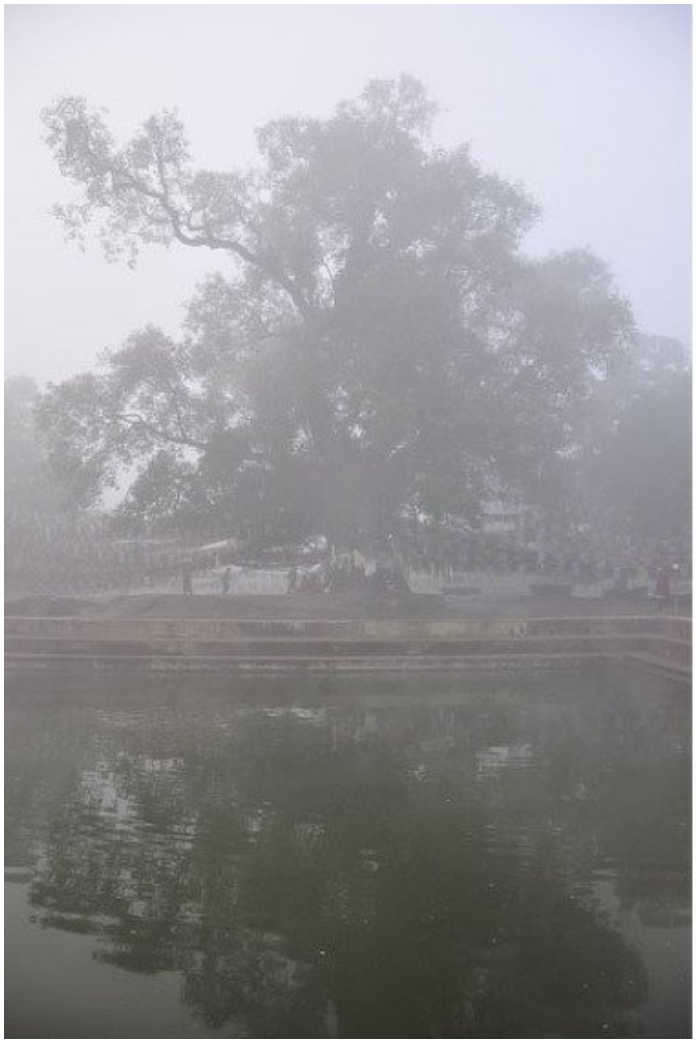
불교 신도가 아닌 나는 사진 찍기에 열중이지만 일행 중의 불교 신도들은 역시나 다른 태도이다. 어느새 두 손을 합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이다.

스님들은 성지 순례를 온 스님들이겠지? 회색 승려복을 입은 스님은 혹시 우리 나라 스님???

돌 조각 아래에 있는 유리관 속에는 발자국이 나 있는 돌이 있는데 누구는 부다의 발자국이라 하고 누구는 부다가 태어난 자리임을 나타내는 표석인 발자국 조각이라 하고..('아소카 석주가 있는 곳에서 일곱 걸음 떨어진 곳에 부다의 탄생지가 있다'는 현장의 기록에 의한 것이라고 함)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나는 사실 어떤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원 내부의 전체적인 모습

1976~78년 재발굴 당시 사원터에서 마우리아 왕조대의 것으로 보이는 황금제 사리 용기의 뚜껑과 탄화된 유골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일로 인해 마야데비 사원이 석가모니의 탄생지가 아닌 아소카 대왕이 세운 스투파 자리라는 설도 있단다.



보리수 나무

연못 옆에 있는 이 보리수 나무는 석가모니 탄생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무인데도 그저 보리수라는 이유만으로 각국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스투파 유적

마야데비 사원과, 아소카 석주, 그리고 구룡못까지 둘러본 후 돌아 나오는 길....
안개는 도대체 언제 걷힐건가.

대기 중인 릭샤들

이제 버스를 타면 인도로 출발이다 싶었는데 데모로 인해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출발을 할 수 없단다. 현지 가이드 산토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 저리 전화 하느라고 바쁘고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버스에서 다시 내려 근처의 기념품 가게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어차피 이리 된 거 마냥 기다리느니 국제사원구역이라도 돌아 보면 좀 좋아.'

건축물에 관심이 많은 나는 사실 이 성원지역보다 각 나라의 절이 있는 국제사원구역을 돌아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어쩌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말해볼 걸 그랬나.'

쓰레기를 뒤지던 배고픈 염소

주로 불교 관련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

방망이로 문지르면 소리가 나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네팔을 떠나 인도로 향할 준비 완료.
가자! 바라나시로...

국경을 넘다(네팔에서 인도로...)

2010.02.26 17:23

2010년 1월14일 (목)

시바의 성지 바라나시로...

시위 때문에 발이 묶일 뻔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2시간 정도를 지체한 끝에 룸비니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바라나시까지 예정된 이동시간은 10시간 남짓이지만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이 곳에서 과연 우리가 10시간만에 바라나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늘만이 알 뿐.....'

아직은 네팔 땅....

소가 눈에 띌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는다. 채식주의자도 아닌 내가 우리나라 누렁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이라는 감정이었는데 네팔이나 인도에서 태어난 소들을 볼 때는 슬픔이나 동정심 따위를 배제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 좋고 게다가 멋있기까지 해서 자꾸 시선이 간다. 낙타처럼 혹이 솟아 있는 흰 소도 멋있고 까만 물소(?)도 멋지다.

이제는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과거형이 되어 버린 초가집이 이 곳에서 현재형이다. 나는 한국에서 이 곳까지 공간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간혹은 시간이동까지 함께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출발한지 30여분만에 국경을 넘었다. 군인이 버스에 올라와 검문을 하고....

입국 절차를 밟는 중.

시간이 생각보다 꽤 소요되는 바람에 나는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카메라에 담아대고 있다.

지금에와 사진으로 보니 네팔이나 인도나 별 차이도 없어 보이 건만 그 때는 네팔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 모습에 많이 놀라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싶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저마다 네팔보다는 인도가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한마디씩 수근거린다.

예를 들면 상점들의 물건 진열 상태가 다르다는 등의 얘기들을 말이다. 물건의 진열 상태보다도 국경을 넘었다는 더 확실한 느낌을 들게 한 거는 상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였다는 사실인데 네팔에서는 주로 여자가 일을 하고 인도에서는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 같다고 또 한마디씩들 하고 있다.

너무나 아무 것도 아니었던 일들을 여행온지 단 며칠만에 대단히 특별한 것을 본 것인양 쳐다보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
네팔에서 처음으로 생선 파는 노점을 보았을 때처럼 썬글라스 낀 여자도 희안하게 보고 있는 중.

좋게 볼려고 작정을 하니 별게 다 좋게 보이는 우리들은 인도에 오니 청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칭찬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치우고 가지는 않더라는....ㅋㅋ

오토 릭샤와 릭샤

입국 절차를 마친 우리는 드디어 인도 땅을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나 보았던 것 같은 네팔 버스에 비해, 지금 타고 있는 인도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에 비해 뒤쳐질 것 없는 최신식의 좋은 버스 건만 운전 기사는 왜 이모양인 건지....
안전턱에서조차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바람에 맨 뒷좌석에 앉은 나는 몇 시간째 놀이 기구를 타고 있는 느낌이다.엉덩이가 30cm씩 붕붕 떠서 버스 천정에 머리가 부딪칠 지경.
'힘들지만 장 운동은 확실히 되겠어.'

룸비니에서의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약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중간의 허술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다. 부페식으로 여러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긴 했지만 내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음식처럼 보인다. 그 카레(커리)가 그 카레 같은.....

김치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배추 김치나 파김치나 깍뚜기나 그 맛이 그 맛인데 같은 음식을 왜 이렇게 늘어놓고 먹지? 라고 말이다.ㅋㅋ

부엌까지 들어가서 난 만드는 걸 동영상으로 촬영했 건만
내 웃음소리가 어찌나 걸쭉하게 삽입되어 있는지 사용불가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가운데 가르마 탄 자리를 빨간색으로 길게 칠한 건 결혼한 여자라는 뜻

햇빛에 널어 놓은 빨래들

(빨래하는 이들은 인도에서 천민 계층에 속함)

저런 옷 입은 여잘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저런 옷도 잘 팔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차도 별로 못 본 것 같고...

대학 건물

네팔과 다를 바 없는 요란한 색깔의 트럭

일하는 여자가 거의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어쩌면 남편이 없는 여자???
인도에선 이혼하는 경우도 드물다던데 그러면 재혼하기도 힘들테고
사별한 여자들은 재혼 못하면 이렇게 돈벌러 나와야 할테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천막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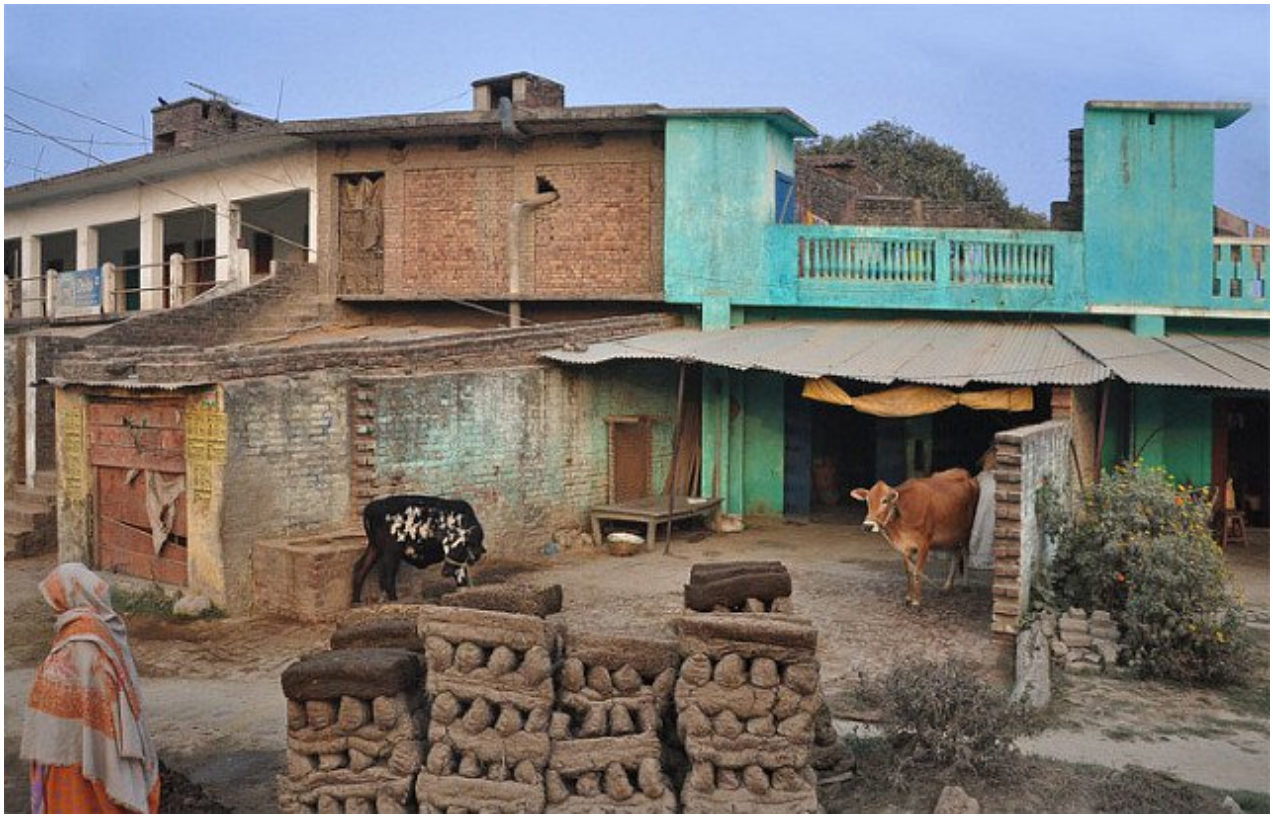
어느 순간 버스가 멈추더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영문을 몰라 답답해 하는 사이 버스 뒤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차들의 줄이 생겨 버렸다. 버스 앞쪽도 상황은 마찬가지. 앞쪽의 어디 쯤에선가 차가 고장 났거나 무슨 탈이 생겼나 본데 길이 좁아서 옆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차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앞차에서 내린 사리를 입은 여인들이 줄줄이 유채밭으로 들어 간다. 자연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아저씨는 버스 옆에서 바로 실례를...ㅋㅋ

줄줄이 들어 가고 줄줄이 나오고를 몇번이나 반복 중인지.... 심심한데 이런 볼거리라고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1시간 이상을 이러고 있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간이 더 더디 가는 것 같았다. 1시간만에 해결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이건 무슨 공립 학교라는 건데 간판이 없으면 정말 학교라고 믿기 어려울 것 같다.
인도의 시골에선 아직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실정이고 보면 뭐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소똥 말린 것

우리나라도 가난하던 시절엔 소똥을 취사용 연료로 썼던 적이 있지만 인도의 시골에선 아직까지도 소똥이 취사용 연료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소는 물론 소똥까지도 신성시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똥은 전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들은 소똥을 연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바르기도 하는데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용도라고 보면 된다.
우기가 지나면 여자들은 연료로 쓰기 위해 소똥을 말리는 일을 하는데 소똥을 모아 반죽한 다음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펼쳐서 말리는 거다. 이렇게 말린 소똥은 직접 쓰기도 하고 장에 내다 필기도 한다고.

이 곳이 바라나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강은 갠지스 강이다. 3개의 불꽃이 보이는 걸로 봐서 3군데에서 화장을 하고 있나 보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짜이 한 잔 마시며 쉬어 가는 중

연주를 들으며 늦은 저녁식사를...

룸비니에서 바라나시까지 10시간 정도 예상했었지만 결국 12시간만에 바라나시 호텔에 도착했다. 중간에 발생한 돌발상황 때문이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날이 아닌 오늘인게 다행이다.

지금은 10시가 넘은 시각, 늦은 점심에 이어 늦은 저녁까지, 오늘은 한 템포씩 늦는 하루였다.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강의 아침

2010.03.06 20:04

2010년 1월15일 (금)

Ranee in Varanasi

-힌두인의 신앙 갠지스-

새벽녘, 갠지스 강의 일출을 보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새벽이라곤 하지만 몇 개의 조명등을 제외하면 빛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한밤중이라 해도 믿을만한 거리다. 어둠 속에서도 분주히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갠지스 강으로 향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갠지스 강으로 향하는 길에서 소를 보았다. 일찌감치 거리로 나선 이 소는 꽤 배가 고팠던 모양. 추위라도 조금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누군가 포대자루를 입혀놓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도 더불어 같이 바쁜 새벽

화장(火葬)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파는 가게 같은데 주인은 아직 아침 잠에 취해 있는 듯 하다. 지난 밤 늦게까지 장사를

했기 때문일까???

쌀쌀한 아침 공기엔 짜이 한 잔이 최고.
이러다 짜이에 중독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손님을 맞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중인 뱃사공들

미로길을 지나 갠지스 강(힌디어로는 강가 Ganga라 불리움)에 이르렀다.

인도 사람들에겐 이미 그 자체가 신앙이라할 수 있는 갠지스 강. 인도 문명의 어머니로 인도인에게 있어선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축복인 곳이다.

서서히 움직이는 배, 가트가 멀어져 간다.

디아를 팔고 있는 소녀

디아

소원을 빌고 갠지스강에 띄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던데...

어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푸른빛 도는 갠지스강은 이방인인 나에게도 신비로움으로 다가 온다.

바라나시의 100여개의 가트 중 중심이 되는 다샤스와메드 가트에 이르렀다.(가트란 성스로운 곳이란 뜻으로 강가와 맞닿아 있는 계단을 말함) 전설에 의하면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10마리의 말을 바쳐 제사를 지낸 곳이란다.

목욕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다샤스와메드 가트

가트 앞으로 좀 더 다가서니 인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던 이미지가 현실이 되어 눈 앞에 펼쳐져 보인다.

와우~ 실로 대단한 종교의 힘!!! 나는 겨울 외투에 숄까지 두르고도 으실으실 추운데 이들에겐 이 추위가 전혀 무관해 보인다.

다샤스와메드 가트

다샤스와메드 가트

중심 가트답게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 곳. 가트 곳곳에서 사람들은 갠지스 강물에 얼굴과 몸을 씻고 기도를 올린다. 이 곳에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원까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보니 힌두교인들의 평생 소원이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라는게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경건한 자세로 얼굴과 몸을 씻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이방인인 우리들의 눈엔 갖은 오염 물질들이 떠다니는 더러운 강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곳을 방문한 힌두교인들에겐 더없이 성스러운 곳이기에 그들은 이 강물에서 더러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씻어내고 싶은 듯 몸을 씻고 또 씻는다.

가트 주변에선 목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갠지스의 물을 직접 마시거나 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집에서 목욕할 때마다 떠간 강물을 조금씩 넣어 갠지스의 영험한 효력을 느끼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떠 가는 게 아닌가 싶다.

강의 가장자리도 생각보단 깊은 모양이다. 강물에 빠지지 말라고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나무를 설치해 놓은 걸 보면.

디아를 파는 아주머니

갠지스의 상징인 시바신과 강가 여신의 그림이 그려진 다샤스와메드 가트 변의 큰 기둥. 전설에 따르면 갠지스는 원래 천상에 흐르던 강이었는데 시바신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 내려오게 됐다고 한다.

다샤스와메드 가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갠지스

원래는 왕들의 별장이었던 곳인 가트 변의 호텔들

화장터가 있는 마니까르니까 가트

다샤스와메드 가트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 말로만 듣던 갠지스 강의 화장터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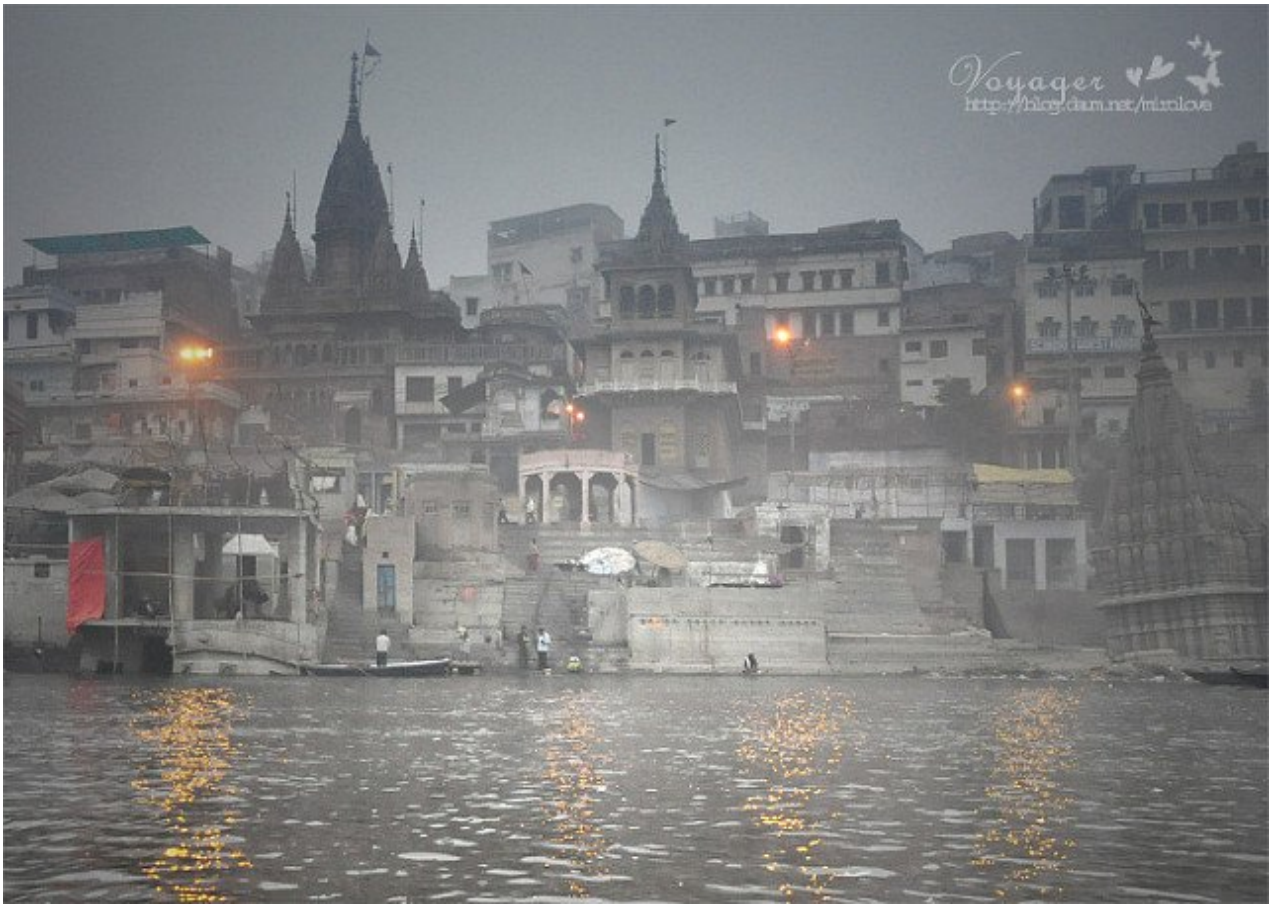
지난 밤부터 시작한 화장(火葬)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채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는 것인지, 작은 불꽃 몇

개가 아침이 밝아 오는데도 아직 빛을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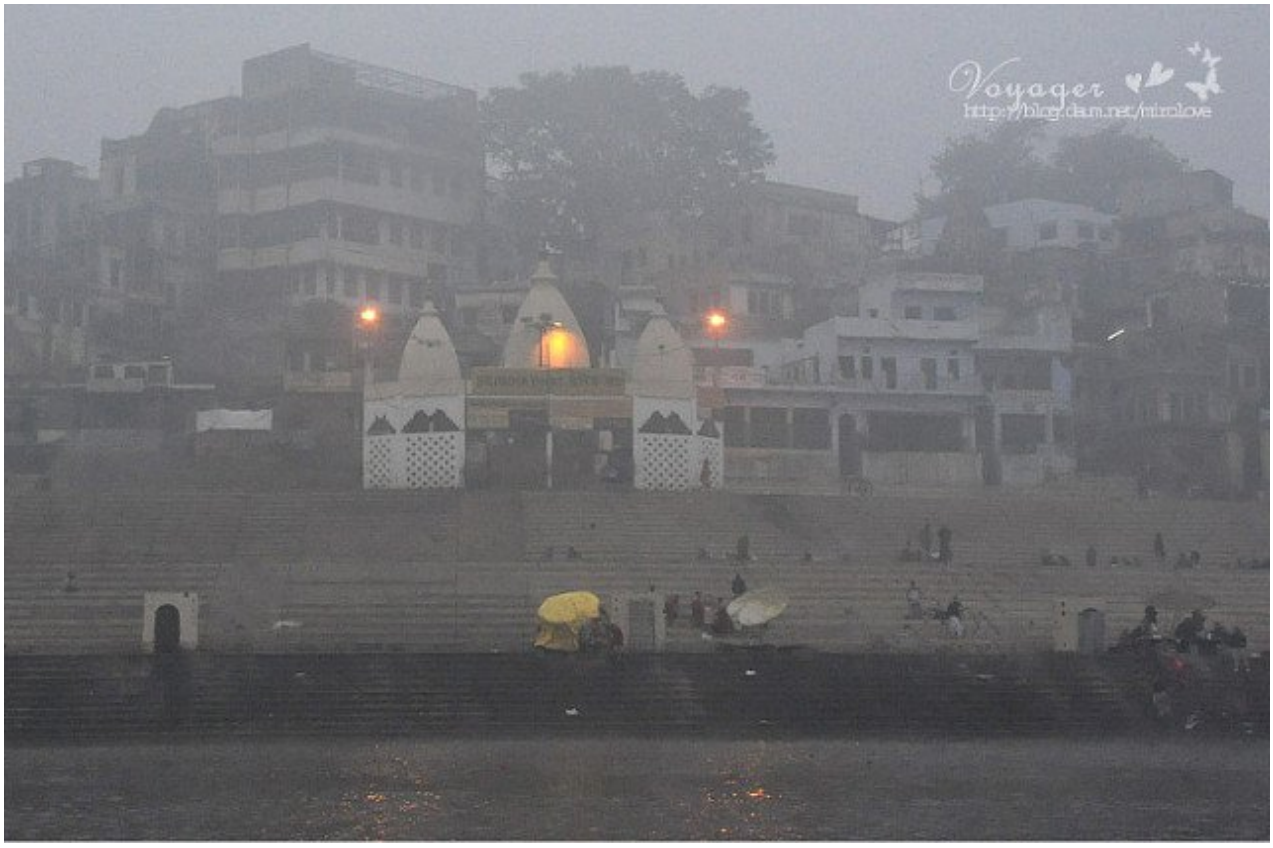
충격적일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그런 느낌은 없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진다.

화장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다 걸리면 카메라를 뺏아간다던데.....지난 번 카메라보다 줌이 잘돼서 겨우 한 장 건졌다.

마니까르니까 가트


Voyager
http://blog.daum.net/mini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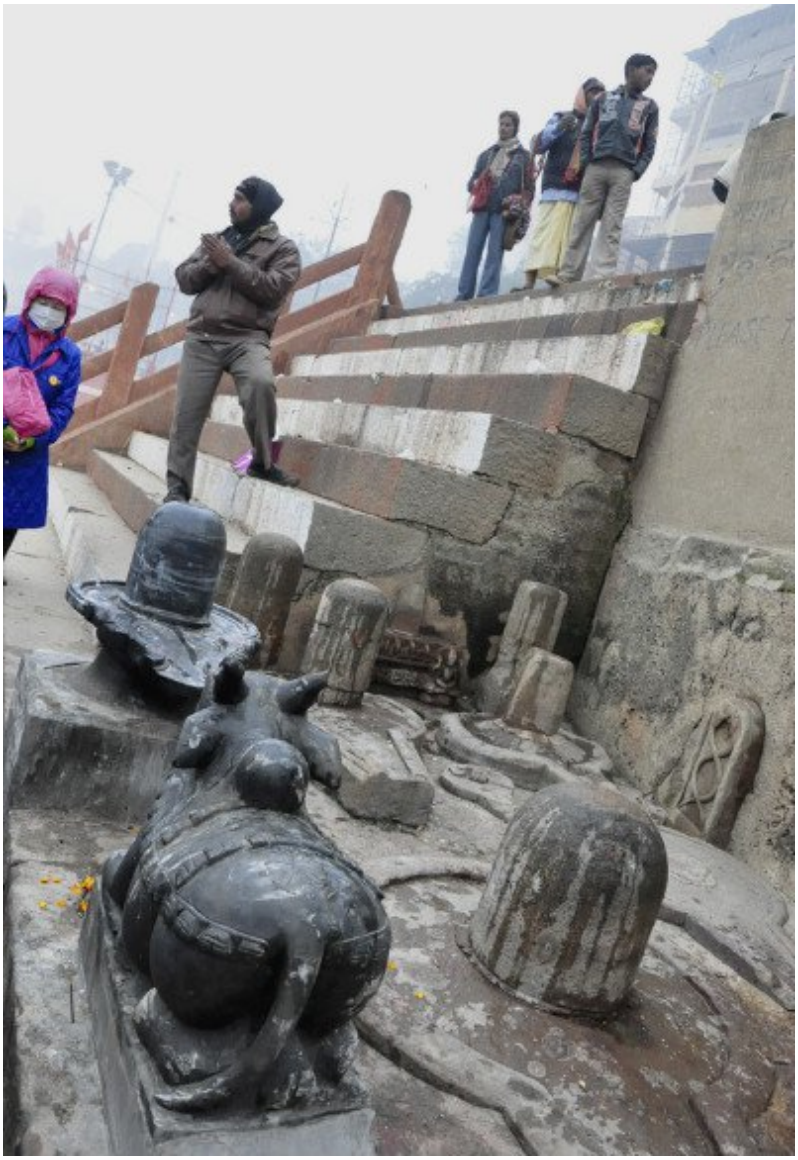
마니까르니까 가트


Voyager
http://blog.daum.net/minilove

짙은 안개 때문에 해가 뜨는 모습은 못보았지만 때마침 날아가는 새떼들 때문인지 안개에 휩싸인 갠지스의 모습도 나름 인상적이란 생각이 든다.

한시간 동안의 갠지스강 보팅을 마치고 배를 탔던 가트로 돌아왔다.
한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빨리 흘렀는지...

배에서 내리고 보니 특이한 외양을 한 사람이 무슨 의식 같은 걸 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브라만 사제인가 보다.



시바신의 링감

인도스러운 느낌이 팍팍 풍기는 건물

아쉬움에 한 번 더 뒤돌아 본다.

'이따 저녁 때 다시 보자.'

바라나시 미로길을 빠져 나가는 중

골목을 걷다 영화 배우처럼 잘 생긴 한 남자에게 시선이 꽂혔다.
흰 천을 두른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 한데...

뿌자에 쓸 꽃을 파는 노점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이 나뭇가지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치약 나무가지라 할 수 있다.

치약 대신 쓸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질겅질겅 씹으면 되는 걸까???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인도 사르나트 불교 유적군

2010.03.21 11:07

2010년 1월15일 (금)

Ranee in Sarnath

-사르나트 불교 유적군-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싯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설법을 편 곳으로 유명한 바라나시 북쪽의 사르나트를 찾았다.(바라나시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불교가 전 인도에 퍼지며 절대 성지 중 하나로 추앙 받았던 곳이지만 10세기 이후 이슬람의 북인도 침입이 본격화 되며 불교와 함께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곳이다.1835년 영국 왕립 고고학회가 사르나트 발굴에 성공했지만 이미 불교도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남은 인도이다 보니 인도에서 사르나트가 차지하는 위치는 모호할 뿐이고 오히려 주변 불교국들이 세워놓은 크고 작은 사원만이 불교 성지 사르나트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멕 스투파 (Dhamekh Stupa)

녹야원의 상징이랄 수 있는 다멕 스투파다. 부다가 다섯 도반에게 처음으로 행한 설법인 초전법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름이 28.5m, 기단을 포함한 높이는 33.53m의 거대한 규모로 11.2m까지는 큰 돌을, 그 위부터는 벽돌을 쌓아 완성했다는 다멕 스투파(불탑).

탑의 하단은 마우리아 양식으로, 탑의 상단은 굽타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 막연하게나마 아쇼카 대왕 시절에 지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연꽃과 기타 문양들이 새겨진 다멕 스투파

단체로 온 듯한 이들은 아마도 티벳의 불교도들인 듯.

붉은색 가사를 입은 티벳 승려들

스투파란 불탑을 가리키는 말이다. 석가모니 입멸 후 진신사리가 나뉘어 보존된 8곳의 하나라고 하여 부처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티벳승려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온 불교도들이 탑 주위를 돌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탑 주변은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과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의 차지.
불교도가 아닌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들의 행위를 신기하게 지켜볼 따름이다.

아쇼카 석주(Ashokan Pillar)

허리가 뚝 끊어져버린 이 기둥은 부다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도 이미 본 적이 있는 아쇼카 석주다. 현재는 대부분이 파괴되어 하단만 남아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석주의 상단을 장식했던 사르나트 **사자 상**이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 전국적으로 세워진 아쇼카 석주 중 약 10여 개에는 왕명을 적은 조서도 새겨져 있어 인도 고대사를 밝히거나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단다.

사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쇼카 석주 북쪽 울타리

사르나트의 한자 이름은 **사슴정원**이라는 뜻의 **녹야원(鹿野園)**으로 사르나트와 관련된 가장 재미있는 설화는 **부다**의 전생과 관련된 전생담이다. 때를 알 수 없는 과거에 사르나트 숲 속에는 각각 500마리로 이루어진 두 패의 사슴 떼가 있었는데 이 중 한 사슴 떼의 왕이 바로 전생의 부다였단다. 당시 바라나시의 **마하라자**는 사냥과 사슴 고기를 즐겼는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사슴의 왕은 마하라자를 찾아가 그렇게 사슴 고기가 먹고 싶다면 사슴들이 순번을 정해서 매일 한 마리씩 죽을 테니 사냥을 중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사슴의 깊은 마음에 감동한 마하라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슴들은 그 날 이후로 순번을 정해 매일 한 마리씩 죽었는데 그러던 어느날 죽을 차례가 된 사슴이 새끼를 밴 사슴임을 알고 자비심이 많던 사슴왕은 이 어미를 위해 자신이 죽기로 결심을 했단다.이 이야기를 들은 마하라자는 자신이 사슴만도 못한 자비심의 소유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사르나트에 있는 사슴을 잡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다.

(인도 사르나트)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 (스리랑카 불교사원)

2010.03.27 12:28

2010년 1월15일 (금)

Ranee in Sarnath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

물라간다 꾸띠 비하라

스리랑카 불교사원 입구. 정식 명칭은 아마도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인가 본데 현대 불교 대중화에 힘쓴 '마하보디 소사이어티'가 국제적인 불교 기관과 전 세계의 독지가에게 도움을 받아 1931년에 세운 불교 사원이란다. 사르나트 일대에 있는 여러 개의 불교 사원 중 가장 번듯한 불교 사원이라고. 불교 사원이라면 우리나라 사찰 밖에 본 적이 없는지라 건물의 외양만 봐선 불교 사원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원에 모셔진 불상을 보고서야 비로소 불교 사원이란 생각이 든 나. ㅋㅋ
불교 신자가 아닌 나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던 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생각만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불상에선 어떤 느낌이 안온다는 말을 한다.
알고보니 이 불상이 진품이 아니라는 거다.
진품은 고고학 박물관에 있고 이 불상은 박물관에 있는 불상을 모사해 좋은 거라는 거.

사원 안의 벽은 부다의 생애를 그린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데 일본 화가 고우세츠 노시(kOUSETSU nOSI)가 그린 벽화란다. 인도에서 볼 수 있는 현대 불교 회화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는 하나 문외한인 나의 눈과 머리는 그것을 알아채기엔 한없이 역부족인 듯 하다.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인도 사르나트)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 (스리랑카 불교사원) · 220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뒤에 보이는 보리수 나무는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종자를 가져다 심은 거란다.부다가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의 증손자뻘 되는 셈이라고.

여담: 부다와 싯타르타, 석가모니를 되는대로 섞어 쓰다보니 잘 못 썼다고 지적 당할 것 같아 두렵다. 어떻게 써야하나 싶어 검색해서 읽어보긴 했었지만 글을 쓸 때마다 머리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냥 여행 안내 책자에 실린 그대로를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이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불교도 분들이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여행자로서 내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올리고 책자에서 본대로의 약간의 설명만을 덧붙일 뿐인데, 불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선 불교와 관련된 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는 경우가 있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교도들에겐 혹시 무지한 글을 올렸다고 지적당할까봐 불안하고....이것이 이번 여행 기록을 남기면서의 애로점이다.

Voyager
http://blog.daum.net/mixolove

기도(?)하는 신도들

사원 다음으로 고고학 박물관을 관람했다.
작은 규모에 비해 뛰어난 소장품이 많았지만 카메라 소지 금지로 박물관 내부의 사진을 찍지 못해 열심히 보았던 소장품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는 거의 다 지워져 가고 있다.
'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그래도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는 소장품이 있다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소장품이랄 수 있는 아쇼카 왕 석주의 윗부분에 안치되었던 네 마리의 사자상이다. 인도 돈 루피의 모델이기도 한.....
BC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오랜 세월에도 보존상태가 양호해서 놀라웠다.

릭샤 타고 바라나시를 달리다.

2010.03.27 13:52

2010년 1월15일 (금)

Ranee in Varanasi

-릭샤 타고 바라나시 시내를 달리다-

뿌자 의식을 보기 위해 다시 찾기로 한 갠지스. 이번엔 인도 서민들의 교통 수단인 싸이클 릭샤를 타고 가기로 했다. 인도 서민들이야 대부분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둘에겐 너무도 비좁았던 릭샤.
한 쪽 엉덩이만 간신히 걸치고 앉아 힘들어 낑낑대면서도 활짝 웃고 있는 꼴이라니....ㅋㅋ

출발 하기 전에 곁에 있던 남자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카메라를 달란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들고 뛰랴 싶어 주춤거리며 카메라를 주었는데 다행히 카메라를 들고 뛰지는 않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사진 찍어준 값을 내라는 것.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어도 기막힐 노릇인데 먼저 찍어준다고 해놓고 사진 찍어 준 값을 내라니....아니 뭐 이런 일이....

'그래 뭔가 있을 줄 았았어.'

내가 완강하게 돈을 줄 수 없다며 사진을 지우겠다는 체스츄어를 취하자 남자는 이내 물러났지만 인도에서 이런 식의 일을 몇 번인가 당하고 나니, 나는 인도인들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늘 의심에 찬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었다. 인도인들이라고 다 그러진 않을진데 아마도 관광지만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일들을 당했던게 아닌가 싶다.

처음엔 힘들어도 처음해 보는 경험에 대한 신기함으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절로 났지만, 우리들의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온 몸으로 페달을 밟다대는 가녀린 릭샤왈라의 실룩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는 점점 눈치가 보여 맘놓고 웃을 수 없게 되었고 차라리 내려서 뒤를 밀어 주고 심정까지 되었다.

'이건 뭐 돈 주고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꼴이잖아.'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흥분되긴 한다. 언제 또 소랑 함께 시내를 달려 보리.

갠지스 강 근처의 시장통까지 왔다.

인도이기에 볼 수 있는 시장통 한 상점 안의 이색적인 모습이다. 시바신(?)의 형상과 상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소 한마리.

SHOP
TEA (KASHMIRI)
SAFFRON
PERFUMES

릭샤에서 내려 미로길을 걷는다.
골목 하나 하나가 다 재미있고 신기하다.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 강의 뿌자의식

2010.04.01 20:43

2010년 1월15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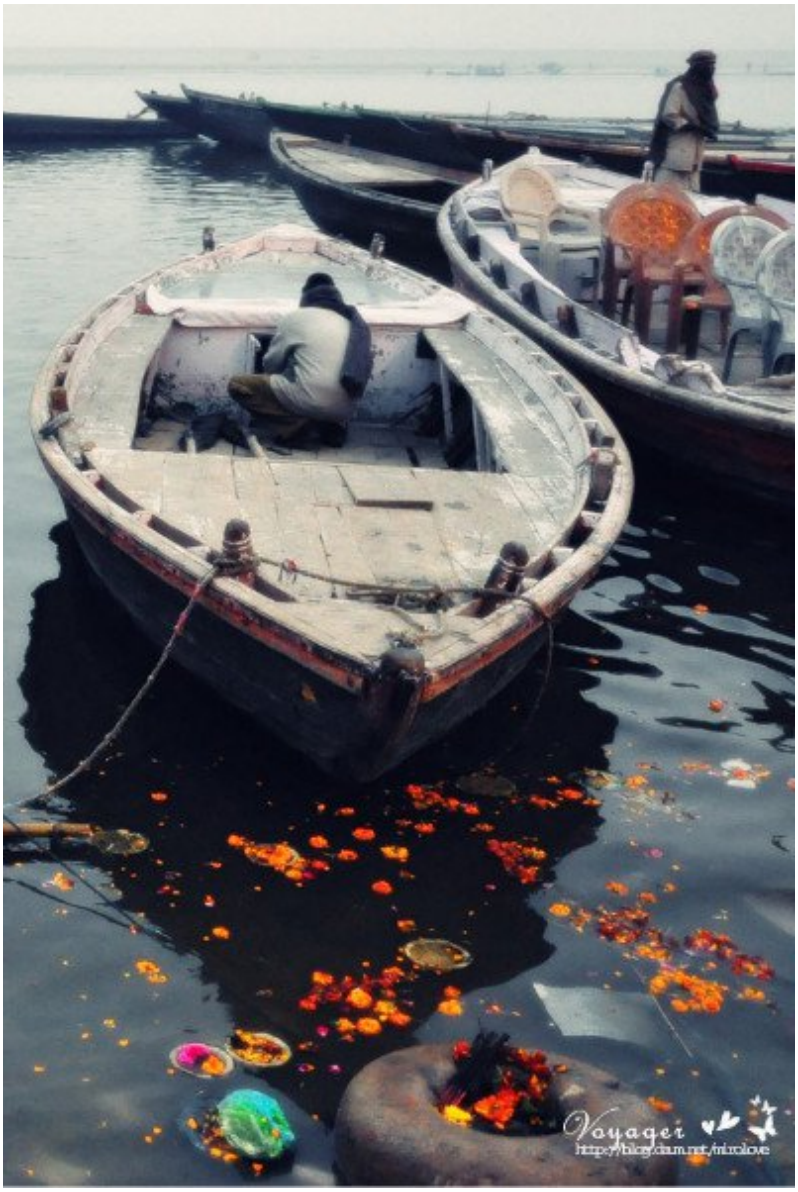
Ranee in Varanasi

-산 자와 죽은 이가 함께 하는 갠지스 강-

다쟈스와메드 가트

바라나시 미로길을 벗어나 갠지스 강의 다쟈스와메드 가트에 이르렀다. 새벽녘에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갠지스 강... 뿌자의식이 거행되려면 아직 30여분쯤 남은 듯 하다.그 사이 우리는 배를 타고 화장터가 있는 마니까르니까 가트에 다녀올 예정이다.

가트에서 내려와 갠지스 강 가까이 다가서니 새벽녘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쓰레기들이 눈으로 한가득 들어온다. 뿌자에 쓴 꽃송이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신성시 되는 강에 유리병은 웬말인지....



'뿌자'란 신에게 갖가지의 현물을 바치며 공양을 드리는 힌두의식을 일컫는 말이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강의 오염 상태만 봐도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뿌자의식이 행해지고 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쟈스와메드 가트

뿌자에 쓰는 디아를 파는 소녀

배를 타고 화장터가 있는 마니까르니까 가트로 향하는 중.
어둠이 내려와 주위를 점점 더 에워싸기 시작했다.

마니까르니까 **가트**

화장터가 있는 마니까르니까 가트의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가까이서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배를 타고 멀리서 바라보는데, 불꽃만 보일 뿐 시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신 타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니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신을 화장 중이란 실감은 그다지 들지 않는다.

사실 사진은 찍으면 안되는데 사공이 얼른 찍으라고 해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순식간에 찍은 사진이다. 물론 줌으로 한참을 당겨서 찍었으니 사진으로 느껴지는 거리감보다 우리는 훨씬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힌두신들 중 가장 너그러운 어머니신이라는 갠지스강. 힌두인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육신의 한 줌 재를 이 곳에 뿌림으로써 인생의 모든 짐을 어머니신에게 맡기고 좀 더 나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소망한다.

마니까르니까 가트의 화장터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 다시 다쟈스와메드 가트로 돌아오니 어느새 뿌자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뿌자 의식을 주관하는 '뿌자리바바'들

산 자들이 모여 죽은 자를 위한 '뿌자의식'을 이렇게 밤이면 밤마다 행해주니 갠지스 강에 뿌려진 영혼들은 아마도 절대 외롭지 않을 듯하다.

매일저녁마다 뿌자가 거행되는 다쟈스와메드 가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인도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피곤해 하는 일행이 있어 1시간동안의 뿌자의식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되돌아 가는 길...

가트 주변의 수많은 걸인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믿지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바라나시의 걸인이란 걸인은 모두 이 곳으로 모인거니 뭐니.'

어디서 다 모였는지 모를 수많은 걸인들이 계단 하나하나마다 쭈구리고 앉아 간절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그냥 지나치는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기분이 들 정도다.

계단을 다 오르자 허름한 기념품 가게가 나타났고, 이제야 드디어 걸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때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이 곳이 바로 산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다시 생각해도 가슴 아픈 장면이다.

이 릭샤왈라의 삶도 가슴 아팠고....

바라나시에서 카주라호로 이동하며 담은 풍경들

2010.04.04 09:31

2010년 1월16일 (토)

바라나시에서 카주라호로...

카주라호를 향해 바라나시를 떠난다.

인도에서의 첫번째 여행지였던 바라나시.
성스런 갠지스강으로 인해 인도인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도시지만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많이 목격한 탓에 성스럽다는 느낌보단 힘들다는 느낌이 강했던 곳.
비록 인도인 자신들을 그리 생각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아마도 사원(?)이려나.'
비슷비슷한 이슬람 건축물이 수없이 솟아있던 터키처럼
인도도 이와 비슷비슷한 건축물들이 넘쳐날 줄았는데
예상과는 다르더라는...

인도의 시골 아이들

학교와는 거리가 먼 듯한....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으로 착각할만도 했던 인도 농촌의 전통가옥

거리의 이발소

Voyager

(인도) 에로틱 조각상으로 유명한 카주라호 서부 사원군

2010.04.27 21:00

2010년 1월17일 (일)

Ranee in Khajuraho

-카주라호 서부 사원군-

카주라호는 지금부터 1000여년 전 이 일대에서 번영을 누렸던 찬델라 왕조에 의해 건설된 도시이다. 찬델라 왕조는 달의 신인 찬드라의 후손이라고 믿는 라지푸트 족에 의해 세워진 왕조로 10세기경만 해도 인도에서 세력이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왕조 가운데 하나였지만 결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다. 전성기엔 시바 신과 비슈누 신 그리고 자이나교의 대사제들에게 봉헌된 사원들이 85개에 이르렀다고 하나 전성기 시절에 지어진 대부분의 힌두 사원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모두 파괴되고 현재는 22개의 사원만 남아있다고 한다. 대부분 사암으로 지어진 이 사원들의 건축 연대는 950~105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사원들의 내부와 외부를 장식한 조각들이 성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어 더욱 유명하다.

이른 아침 호텔을 나선 우리는 버스로 10분 정도를 달린 후 카주라호 서쪽 사원군 앞에서 내렸다. 인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원들 가운데 하나면서 사원 벽에 장식된, 성애를 표현한 미투나 상(남녀 교합상)으로 더 유명해진 카주라호의 사원들 때문에 카주라호는 인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주라호는 여전히 번화하고 복잡한 것과는 거리가 먼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 든다.

입구로 들어서니 흔히들 에로틱 사원이라 부르기도 하는 카주라호 사원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눈에 익지 않아서인지 탑처럼 생긴 사원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어느게 어떤 사원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편으로 보이는 것이 **락쉬마나 사원**과 **비라하 사원**이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빠르바티 사원**과 **비쉬와나트 사원**이라는 걸 여행 책자를 보고 또 본 연후에야 알아낼 수 있었으니 말이다.

바라하 사원과 락쉬마나 사원

빠르바티 사원과 비슈와나트 사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사원들을 돌아보기 위해 왼쪽으로 보이는 **바라하 사원**과 **락쉬마나 사원**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비슈와나트 사원**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비슈와나트 사원** 앞에 있는 조그만 사원인 **빠르바티 사원**은 원래 **비슈누 신**을 모셨던 장소로 사원 안에는 강가의 여신이 검은 악어를 타고 있는 조각이 모셔져 있단다. 이 곳에 있는 다른 사원들과 가장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원이다.

빠르바티 사원을 지나면서 바라본 비슈와나트 사원의 모습

비슈와나트(비슈아나타,비쉬와나트)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편의 코끼리

짐을 나르기도 하고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해서 인도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인 코끼리가 사원을 지키고 있다.

비슈와나트 사원 측면

이 사원은 진입로가 건물의 주축과 교차되어 있어 정면이 아닌 남쪽 측면부터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쪽 측면이 이 건물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남쪽 측면부터 감상하면서 진입하도록 한 건축가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단다.

여러 개의 산 모습을 표방한 4개의 지붕군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비슈와나트 사원 정면

비슈와나트 사원과 마주하고 있는 난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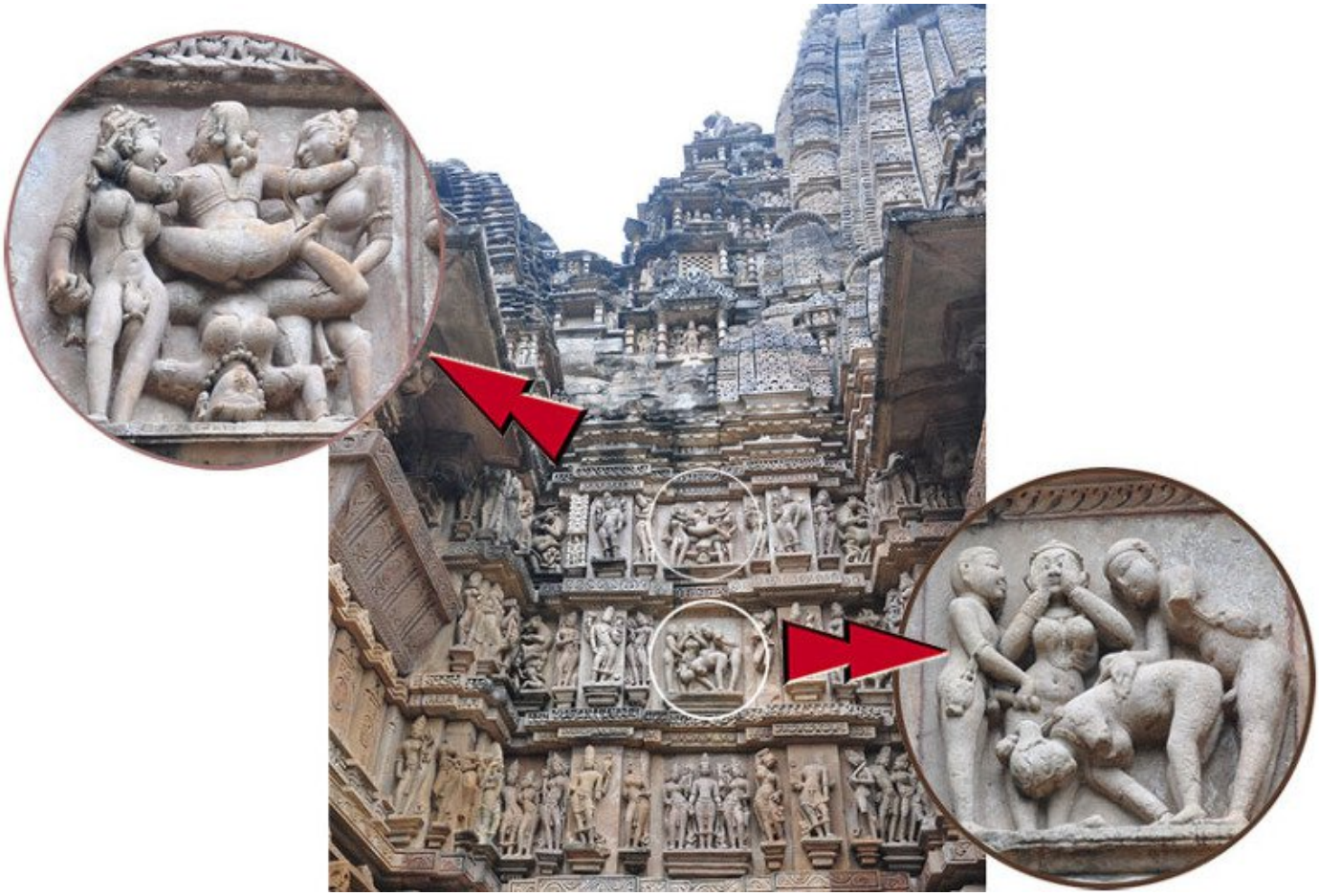
링가 (Linga)

사원의 내부로 들어섰다. 큰 공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큰 공간도 없고 어두워서 생각보다 더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사원 가운데에 모셔져 있는 링가....링가는 시바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남근(男根) 모양의 돌로 생식력을 나타내는 시바신의 상징이다.

비슈와나트 사원의 내부의 조각들

비슈와나트 사원 입구에서 바라본 난디당과 난디상

비좁고 어두운 비슈와나트 사원의 내부를 돌아보고 나오는데 사원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건축물이 보인다. '난디당'이란다. '난디당' 안에는 성스러운 소라는 '난디(Nandi)상'이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다지 소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난디는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소라고.



비슈와나트 사원에서 나온 우리는 사원 주변을 돌며 사원 벽면의 조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낯 뜨거워서 이걸 어떻게 보나'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니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다. 요가로 단련된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체위를 한 미투나 상들을 볼 땐 낯 뜨거움보다는 신기한 마음이 앞섰고, 세심한데까지 신경 써서 조각한 흔적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재미 또한 상당했다. 예를 들어 위 사진 중 위쪽 동그라미 안의 미투나 상을 보면 여인의 목걸이가 뒤쪽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행위시 목걸이가 앞쪽에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낸 것이거나 아니면 결렬한 행위로 인해 목걸이가 자연스럽게 뒤로 보내진 모습을 조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래 쪽 동그라미 안의 미투나 상에선 왼쪽 남성의 성기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것과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감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힌두교에서 부와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는 비슈누의 아내로 남편이 화현(化顯)할 때마다 그것에 맞추어 여러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힌두교도들은 지금도 락슈미를 숭배해 가정에서는 목요일마다, 그리고 연중 정규 축제일에 그녀에게 예배를 드린다. (특히 자이나교 신도들이 락슈미를 숭배한다고 함)

눈에 화장하는 여인

이 때에도 이런 화장법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

지혜와 행운의 신(神) 가네샤

인도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신(神)인 가네샤다.가네샤는 시바와 빠르바티(파르바티)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주고 지혜를 성취시키는 신으로 숭배되는 신으로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머리는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다.가네샤가 이런 형상을 하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날 가네샤의 어머니인 파르바티가 목욕을 하는동안 그 누구도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 것을 아들인 가네샤에게 부탁하게 되고 아들인 가네샤는 어머니의 부탁대로 목욕탕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때 시바가 나타나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가네샤는 시바를 못들어가게 막게 되고 시바는 자기가 남편인데 왜 못들어가냐고 하며 옥신각신 하다 결국 화가난 시바가 아들인 가네샤의 목을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것을 안 파르바티가 시바에게 화를 내면서 가네샤를 살려내라고 닥달하니 시바는 북쪽으로 가서 만나는 첫번째 생명체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첫번째 만난 동물이 코끼리여서 그렇게해서 탄생한것이 오늘날의 가네샤라는 거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신화란게 뭐 다 그런 거니까....^^

수직성과 수평성이 균형있게 잘 조화를 이룬 모습

비슈와나트 사원에서 바라본 빠르바티(파르바티) 사원과 락쉬마나 사원

비슈와나트 사원을 다 둘러보았으니 이제 다른 사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겠다.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 마하데바 사원, 데비 자가담바 사원

비슈와나트 사원 뒤편의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과 마하데바 사원, 데비 자가담바 사원으로 향하는 중.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 쪽에서 바라본 비슈와나트 사원과 빠르바티 사원

마하데바 사원과 칸다리아마하데브 사원

마하데바 사원(앞)과 데비 자가담바 사원(뒤)

데비 자가담바 사원

보수 중인 건지 청소 중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철재 구조물들이 세워져 있어 사진을 제대로 수 없음이 아쉬웠다.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을 입었음을 구슬장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조각상들

데비 자가담바 사원 벽의 조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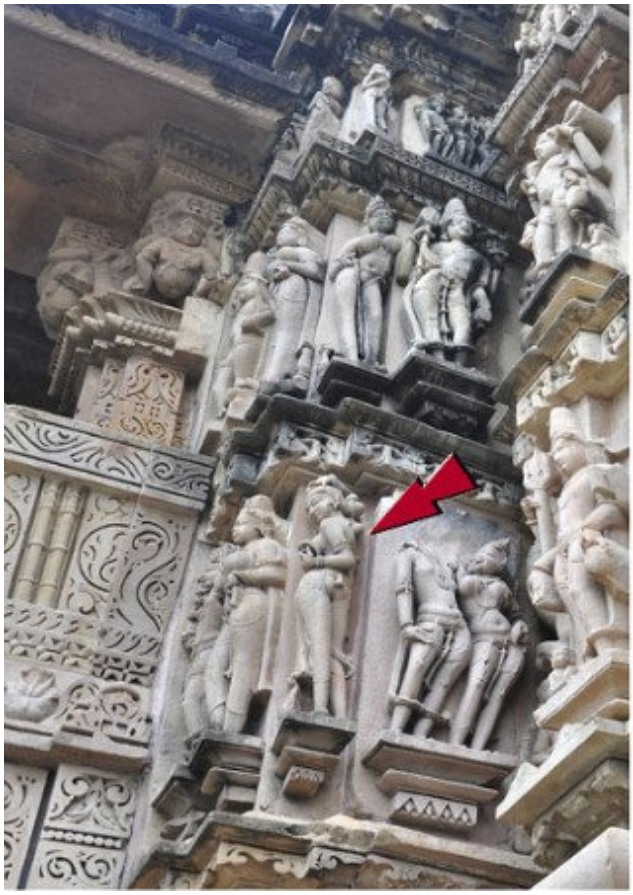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볼록한 가슴은 이 여인의 나이를 가늠키 어렵게 하지만
배의 모양은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을 표현한 듯...
인물 하나하나의 일부분까지 세심하게 표현한 것이 놀랍다.

데비 자가담바 사원 벽의 조각들

조각상들 중에는 브래지어와 너무나도 흡사한 옷을 걸친 여인들도 보이는데.....

이 조각상의 경우엔 그 끈이 풀어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암시를 주 듯 남자를 건드리는 여인,
그러지 말라고, 지금은 생각 없다고 여인의 손목을 제지 하는 남자.ㅋㅋㅋ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각상 하나 하나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참 재미있다.



데비 자가담바 사원

이 사원에서 가장 뒷태가 예쁜 여인,

하지만 앞에서 보면 추녀.

이 조각상에 담겨 있는 뜻은...ㅎㅎ

오른쪽 조각상들은 아마도 동성간....???
사실이라면 참으로 다양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싶다.

마하데바 사원과 데비 자가담바 사원

마하데바 사원(左)과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右)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

돌출 현관과 작은 탑들이 모여 35m 높이의 뾰족탑을 이루고 있는 이 사원은 카주라호 사원들 중 가장 거대하고, 예술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칸다리아 마하데바 사원**이다.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은 **락슈마나(락쉬마나) 사원**과 **비슈와나트 사원**의 뒤를 이어 카주라호에서 사원 건축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어진 사원으로 부조 또한 다른 사원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련되어 돋보이는 사원이다.이 첨답 사원의 안쪽에는 226개의 조각상이, 밖에는 646개의 조각상이 있어 새겨져 있어 모두 872개의 조각이 있다고 하며 각 조각상의 크기도 최소 1m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단다.3층으로 사원 외벽을 두른 조각들에는 남신과 여신, 미녀와 악기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에로틱한 것으로 유명한 미투나 상들이 있는데 이 미투나 상들이 카주라호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한다.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 측면

데비 자가담바 사원과 마하데바 사원, 그리고 칸다리아 마하데브 사원을 차례로 둘로 본 뒤 다시 입구 쪽에 있는 락쉬마나 사원으로 향한다.

Vayager
http://blog.daum.net/minilove

Vayager
http://blog.daum.net/minilove

락쉬마나 사원의 후면

락쉬마나 사원의 측면

락쉬마나 사원의 정면

비슈누(비쉬누) 신에게 봉헌된 사원인 락쉬마나 사원은 칸다리야마하데브 사원이나 비쉬와나트 사원과 비슷한 건축 양식

으로 지어진 사원으로 주 건물을 중심으로 네 개의 작은 사당이 배치된 5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원이다.

락쉬마나 사원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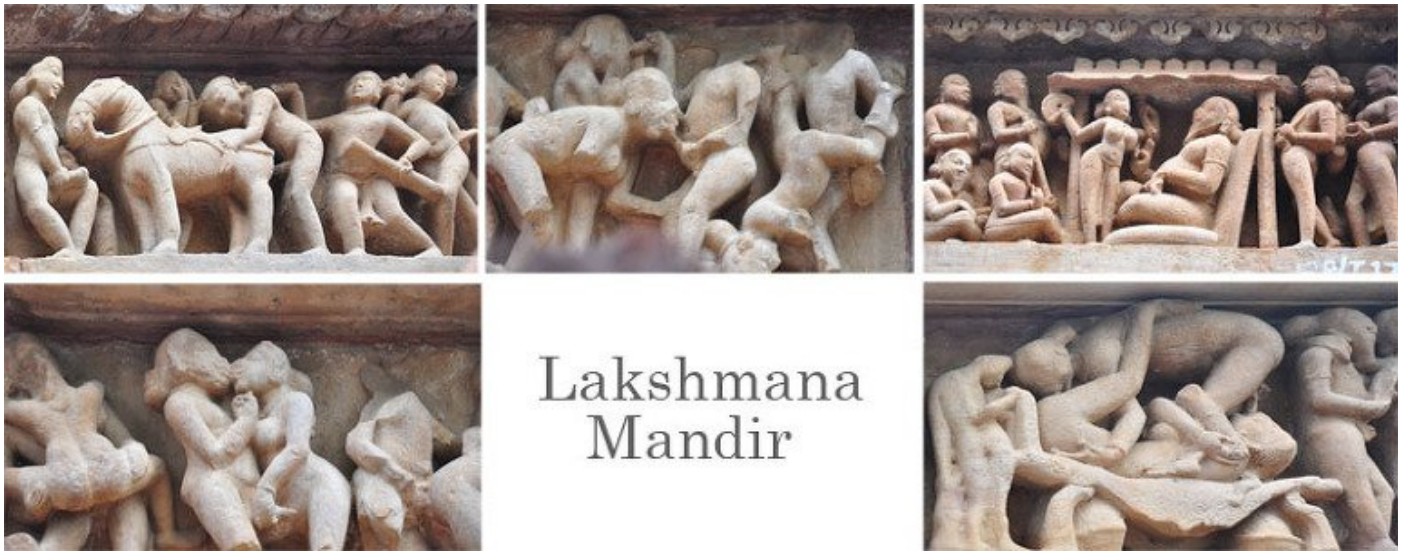
락쉬마나 사원(Lakshmana Temple)

이 사원은 서부 사원군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사원으로 930~940년 경에 지어진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락쉬마나 사원

이 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우유의 바다를 휘어저 불사의 영약 '암리타' 를 만들때 태어났다는 춤추는 요정 압살라(Apsara)가 사원의 곳곳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는 것으로 섬세한 형상이 일품인 조각들이다.

비슷 비슷해 보이는 조각들 중 달라서 눈에 띄는 조각상을 카메라에 담아 봤다. 사진의 가운데 있는 조각으로 **핸드백**을 메고 있는 여인의 조각이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핸드백을 메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고 저 핸드백 속에 무엇을 담아 가지고 다녔을지가 궁금했다.다른 여인의 외모 치장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볼 때 혹시 **헤나 문신**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저 핸드백 같은 가방 속엔 **헤나 가루** 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았을까???



사원 기단부의 작은 조각들

입구 왼쪽 기단부에 조각되어있는 '말과 성행위를 하는 남자와 그를 바라보는 여자' 등은 '여행 안내 책자 등에도 소개되어 있는 조각상이다.

담 밖으로 보이는 마탕게스바라(Matnagesvara) 사원

바라하 사원(Varaha Temple)

락쉬마나 사원과 마주하고 있는 사원은 서부 사원군 중 가장 이른 시기인 900년경 에 지어진 바라하 사원으로 비쉬누의 화신(化身)인 커다란 멧돼지상(像)이 있는 작은 사원이다. 사원 자체는 작고 초라하지만 멧돼지의 몸체에는 수많은 조각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다.

비쉬누 신의 세 번째 화신인 바라하

바라하 사원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아주머니들.
나도 사리 한 번 걸쳐 봤음 좋겠다.

락쉬마나 사원에서 바라본 파르바티 사원과 비슈와나트 사원

서쪽 사원군을 둘러 보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 익숙한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한식당이다.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니 맛이 얼마나 한국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먹고 싶었다. 간절하게...

자, 이제는 동쪽 사원군으로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카주라호의 동부 사원군

2010.05.10 00:05

2010년 1월17일 (일)

Ranee in Khajuraho

-카주라호 동부 사원군-

자인교 사원 입구

카주라호 서부 사원군을 돌아본 뒤 동부 사원군으로 이동했다. 동부 사원군에는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힌두교 사원이 드문 드문 퍼져 있고 사용 중인 3개의 큰 자인교 사원이 있다.

산티나트 사원

사원의 입구를 들어서서 왼편으로 첫번때 보이는 사원이 산티나트 사원이고 왼쪽으로 더 가면 빠르스바나트 사원과 아디나트 사원이 나온다. 산티나트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과 양말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사원에 들어갈때 신발을 벗는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양말까지 벗고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무소유를 실천하는 자인교의 수도 방식 때문에 옷마저도 벗어 버리고 나체로 사는게 이 종교의 특성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자인교라고 해서 모두 나체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함다. 무소유를 완전히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공의(空衣)파는 완전 나체로 다니지만 최소한의 옷은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의(白衣)파는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신상도 나체, 수도승도 나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만 빼면 불교의 부처와도 흡사한 신상들

산티나트 사원의 내부

산티나트 사원 내부에 있는 높이 4.5m의 터탕기르상

엄격한 불살생과 고행의 실천을 중요시 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무소유의 교리에 따라 수도승들은 나체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인교는 영혼이 물질로부터 해방되어야 열반에 드는 길이 열린다는 이념으로 생명을 살해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인교를 믿는 이들은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뛰어난 상인이 되었는데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이 되어 있다고 한다.

나체로 수행하는 건 일반 신도들에겐 해당되지 않는가 보다.

빠르스바나트 사원은(Parsvanath Temple) 자인교 사원군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자인교 사원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원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둘러싸인 외벽과 뛰어난 건축 기술로도 유명하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은 **〈발에서 가시를 빼는 여인〉**과 **〈눈화장을 하는 여인상〉**으로 특히 **〈눈 화장을 하는 여인상〉**은 약 1000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매우 요염한 모습을 하고 있다.

빠르스바나트 사원 바로 옆에 있는 사원은 **아디나트**(Adinath) **사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표정의 여인상이 눈길을 끄는 사원이다.

빠르스바나트 사원의 〈눈화장을 하는여인상〉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흰색으로 칠해버린 사원

사원들의 지붕이 산모양인 것은 에베레스트산, 즉 불교의 수미산을 상징한다고 한다.

동부 사원군에 속해 있는 자인 아트 뮤지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2010.05.22 09:04

2010년 1월17일 (일)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

아그라행 기차를 타기 위해 카주라호에서 잔시로 향하는 중

그런데 기차가 연착이란다.

일찍 도착해봤자 기차역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차를 기다리는 일 밖에 없으므로
버스에서 내려 쉬어 가기로 했다.

순식간에 몰려든 아이들.
우리는 어느새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고
우리들 또한 호기심어린 눈으로 인도의 시골 마을을 들여다 보는 중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카메라를 쳐다보길래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더니 좋아라 한다.
하지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어김없이 증명사진모드로의 돌입하는 녀석들.

NIKE

얼굴에 장난기가 하나 가득이다 싶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몇번이고 다시 사진을 찍어달라던 녀석들이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표정만은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녀석들.
오늘 나는 또 여행이 주는 선물을 소중하게 챙겼다.

잔시역 도착. 아그라까지 가기가 왜이리 힘들어.

2010.05.22 13:13

2010년 1월17일 (일)

아그라행 기차를 타기 위해 온 곳은 잔시역이다.
원래는 6시 출발 예정 기차였지만 기차가 연착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간에 쉬엄쉬엄 놀아가며 오니 9시가 되었다. 아직 저녁도 못 먹은 우리들에게 산토스가 구해다 준 저녁거리는 삶은 달걀과 오렌지...
삶은 달걀은 방금 찐거라 따끈함이 남아 있어 먹을만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대고 있는 오렌지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
버스에서 슬슬 내려 기차역으로 들어선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다.

잔시역

잔시역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도 바글바글한데 사람이야 많던 말던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소 한마리가 양심도 없이 마구 큰 일을 보고 있다. 평소의 인식대로라면 더럽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맞겠지만 이 또한 인도이기에 볼 수 있는 광경이라 생각하니 더럽단 생각보단 재미있단 생각이 먼저 든다.

잔시역 플랫폼으로...

예정 출발 시각보다 4시간이나 더 지났으니 그래도 몇 시간 안에 도착하겠지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건만 도무지 기차는 올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 때 생각난 PMP.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인도 여행에서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던 PMP를 꺼내 인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산토스가 신기해 하며 다가선다. PMP도 신기한데 인도 영화를 보고 있으니 많이 반가웠던 모양이다.
아직까지 신분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이니 영화 배우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지도 궁금하고 인도 배우들보다 산토스가 더 잘 생겼는데 영화배우가 되어볼 생각은 안해봤는지도 궁금해서 이런 저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인도에서 영화 배우가 된다는 건 우리 나라에서 영화 배우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 모양이다. 일단 돈이 많아야 하는데 인도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고 보니 해당 사항이 없는 듯.
전에 본 인도영화에서 산토스와 닮은 영화 배우를 찾아 보여주었더니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듯 산토스도 수긍한다.

영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잘 흘러서 좋은데 문제는 몸 속으로 점점 파고드는 한기다.
더이상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어질 무렵 우리 일행들은 이심전심으로 놀이를 만들어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들이 한 놀이는 참으로 별 것도 아닌 놀이였다. 쓰레기 속에서 주운 빈 페트병을 구겨 차는 놀이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별 것도 아닌 이 놀이도 함께 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재미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깔깔대며 웃는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만은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 놀이를 더욱 재미있게 했던 건 나의 헛발질...나의 헛발질에 사람들이 배를 움켜 잡고 웃는다. 나 홀로 여행이었다면 맛보지 못했었을 이 즐거움.....늘 나홀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지만 이 때만큼은 나 홀로 여행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인도의 겨울 기차여행에서 필수품은 담요 또는 두꺼운 숄

각종 오물이 난무하는 선로와 먹을 걸 찾아 선로를 헤매는 소 한마리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간절히 이 기차였음 했는데 매번 아니라니...

휴=3

그 때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나.

이건 완전 사진용 표정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벽 2시가 넘어서 기차에 올랐다. 6시부터 기다렸더라면 기차역에서 꼼짝없이 8시간을 버텨야 했을텐데 4~5시간만에 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기차에 오르고 잠시후 식사가 제공되었다. **특급열차**라서 식사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새벽 2시반에 이걸 어떻게 먹느냐구.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대서 간신히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 있었다. 아이구~ 아까워라 내 돈.

잔시를 출발한지 3시간만에 **아그라 역**에 도착했다. 잠시라도 눈을 붙였어야 하는 건데 잠 잘 시각을 넘기고 보니 잠도 오지 않아 꼬박 뜬 눈으로 지샌 밤. 오늘이 인도 여행의 하일라이트랄 수 있는 **타지마할**을 보러 가는 날인데 컨디션이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아그라역

아그라 호텔

호텔에 도착한 시각 5시 40분. 방 배정 받고 객실로 들어서면 6시...

잠시 쉬었다 세수하고 옷 갈아 입으면 다시 나와야 한다는 얘기.

'컨디션도 문제지만 호텔비 아까워서 어쩌니. 엉엉'

'인도 기차 밉다 미워.'

아그라 호텔

잠도 못자고 다시 호텔을 나선다.

(인도 아그라) 영혼의 얼굴에 핀 눈물, 타지마할

2010.09.22 03:41

2010년 1월17일 (일)

Ranee in Agra

-타지마할-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는 델리와 더불어 화려하게 번성한 무굴제국의 수도였다. 「천국의 정원」이라는 뜻의 아그라바나에서 지금의 아그라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이슬람 세력이 이곳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약 500년 전 부터로 바부르 이후 후마윤의 아들 악바르황제가 아그라의 주인이 되면서 이 도시는 문학과 건축 및 예술에 있어 엄청나게 발전되었고 악바르 황제의 손자 샤자한이 왕이 되면서 아그라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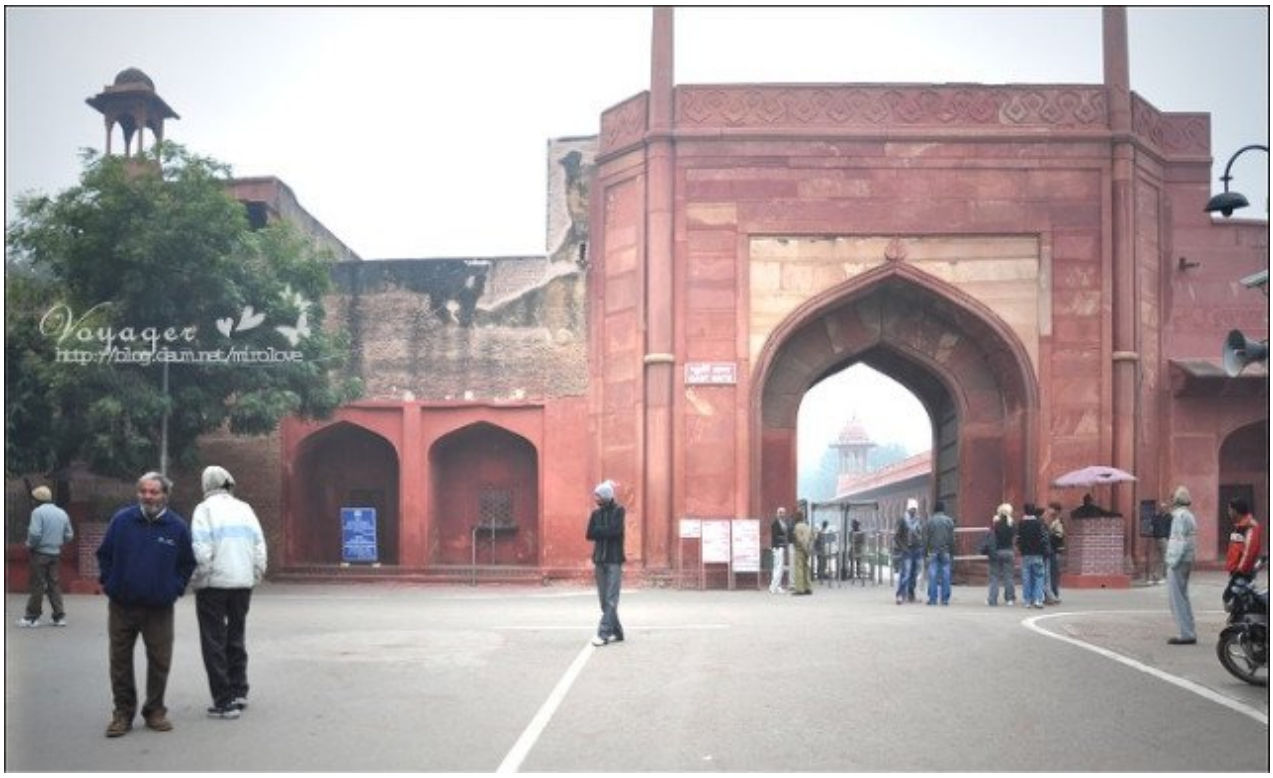
티켓 파는 곳

아그라 호텔에 새벽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잠도 자지 못하고 샤워와 아침식사를 한 후 다시 호텔을 나섰다. 피곤하기도 하고 두어시간 머물다 나온 호텔 비용이 아깝긴 했지만 이 여행의 하일라이트라 할 수 있는 타지미할을 곧 볼 수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버스에서 내린 이 곳은 타지마할 입장 티켓을 파는 곳. 이 곳부터는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티켓을 구입 후 6~7명 탑승할 수 있는 전동차로 갈아 타고 타지마할을 향하여 달린다. 이렇게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타지마할이 공해로 인해 부식되는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함이며, 타지마할 주변으로 반경 4km 이내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공장들도 들어설 수 없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곳의 공해가 극심해서 50년 후쯤엔 타지마할이 무너지고 말거라고 예언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하니 어떤 조치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티켓 매표소에서 타지마할까지 4km는 더 가야 하기 때문에 티켓을 구입한 후 전동차를 타고 타지마할을 향해 달리는 중이다. 상쾌한 아침 바람 탓인지 마음이 들 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현지인들에게 손이라도 흔들고 싶은 충동이 인다. 마차랑 낙타도 통행이 가능하다던데 이 아침엔 자전거랑 전동차 밖에 보이지 않아 좀 아쉽다. 낙타랑 나란히 달리는(?) 것도 꽤 재미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타지마할 입구

전동차에서 내려 기념품점들이 들어서 있는 거리를 지나 타지마할의 입구로 향하는 중.



드디어 타지마할 입구.
타지마할의 입구엔 검색대가 있어 이 곳을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국제적인 명소이고 특별히 보호되어야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니만큼 이 정도의 수고로움쯤은 감수해도 될 듯 하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는데 타지마할은 보이지 않고 너른 마당이 나온다.
이 곳은 앞마당이고 오른쪽으로 다시 타지마할의 정문이 있는 걸 몰랐던거다.

땅덩어리가 큰 나라이고 보니 뭐든지 넓직넓직하고 큼직큼직한 듯.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타지마할 정문

'사진 속에서, 영상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타지마할의 정문은 이거였구나.'
영상 속에서 볼 때는 늘 사람들이 바글대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거의 없어서인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려 한다.

하얀 테두리와 도안으로 장식된 전형적인 이슬람 양식의 타지마할 정문의 꼭대기에는 앞뒤로 11개의 작은 돔 지붕이 늘어서 있는데 이는 타지마할의 건축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란다. (지붕 하나가 1년을 상징)

정문에서 바라본 타지마할

정문을 통과하는데 멀리 안개에 휩싸여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형체를 하고 있는 타지마할이 눈에 들어온다. 안개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타지마할을 보며 처음엔 원망스런 맘이 앞섰지만 계속 바라보다보니 오히려 신비스런 느낌이 들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안개 때문에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간의 끝에는 분명 큰 4각형 기단 위에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영묘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서 있는게 보인다.

17세기초 무굴제국의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사랑하는 왕비 뭄타즈 마할이 죽자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22년에 걸쳐 만든 무덤이라는 타지마할.... 무굴 제국의 부와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이다. 정문을 통과하여 넓은 뜰에 수로가 있는 무굴 양식의 정원을 따라 걷는다. 가로수 길과 물길 등으로 채워져 있는 이 곳은 페르시아 인들이 생각한 낙원을 구현한 공간이라 하는데 겨울이라 꽃도 없고 분수도 쉬고 있어서인지 낙원 같은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 하다.

중앙 연못

이 곳은 이 정원의 중심인 중앙 연못이다. 정원은 십자형으로 교차되는 수로에 의해 사등분 되는데 네 개의 수로는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고 수로가 교차되는 지점, 즉 중앙 연못은 인간과 신이 만나는 장소라고.

중앙 연못

가로수길

수로

정원의 중간 지점에서 바라본 정문

정원의 중간 지점에서 바라본 또 서쪽 문

정원의 중간 지점인 이 곳은 촬영 장소로 인기 있는 곳.
모두들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타지마할의 동서 양쪽으로는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것은 이슬람 사원이고 동쪽의 것은 미학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운 건물이라 한다.

서쪽의 이슬람 사원

서쪽의 이슬람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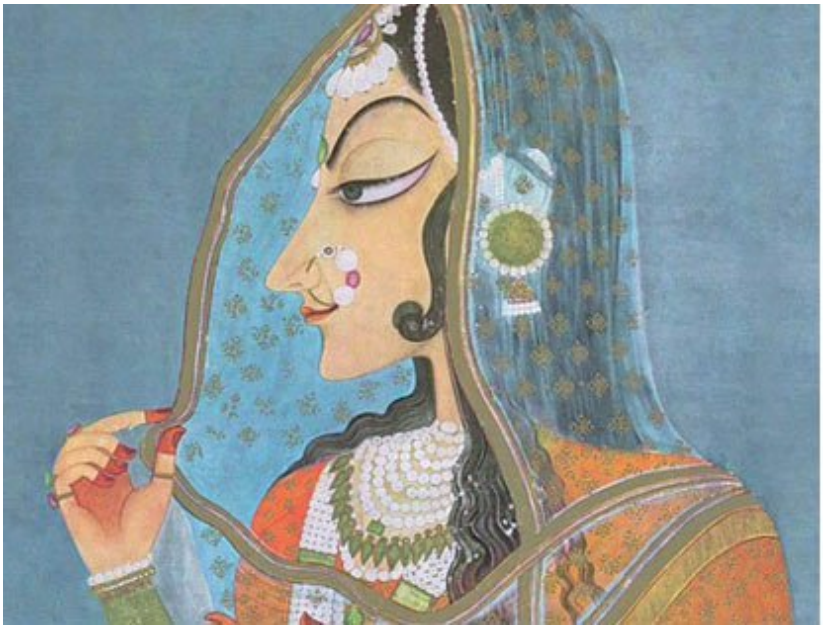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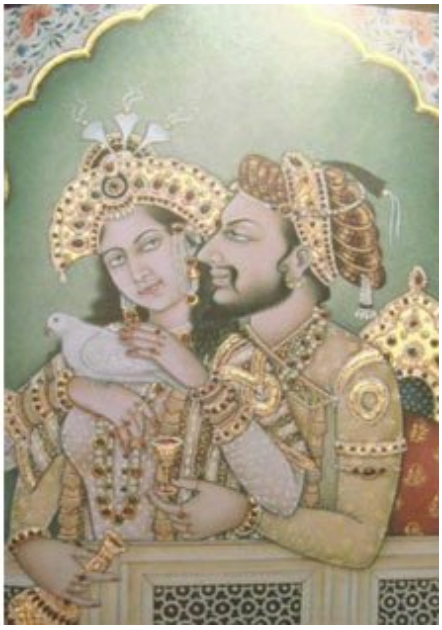
주실

세계 건축사의 불가사의로 일컬어지는 타지마할은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건축가와 2만여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탄생된 건축물이다. 인도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건축 양식을 융합한 것으로 아시아와 인도 각지의 천연 재료를 써서 지어졌는데 백색의 대리석과 벽옥, 수정, 터키석, 유리, 사파이어 등 재료를 옮기는데만 해도 천여 마리의 코끼리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백색의 대리석에 28종 이상의 보석들을 박아 만들었다는 꽃무늬와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무척이나 화려하다.

타지마할의 주실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조합된 8각형으로 되어 있다. 중앙에는 커다란 돔 지붕이 있고 그 주변은 4개의 작은 돔 지붕으로 장식되어 있다. 주실 정면의 문짝에는 코란의 경문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이 경문은 윗부분 글자가 아랫부분 글자보다 커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봤을 때 매우 균형적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다.

대리석에 정교하게 새겨넣은 조각





샤자한은 두번째 아내를 황궁의 보석이라는 뭄타즈 마할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19년의 결혼생활동안 변치 않고 아끼고 사랑했다 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결국 뭄타즈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마지막을 맞게 되었는데 홀로 남은 샤자한은 아마도 뭄타즈 마할과 함께 했던 19년보다 더 긴 세월인 22년을 그녀의 무덤을 만들며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그 무덤에 새겨넣었을 것이다.

뭄타즈 마할의 묘 (사진출처:EBS 세계테마기행)

묘당 내부중앙에는 왕비의 묘석, 그 옆에 왕의 것을 안치하였으며,

주위에는 투각된 대리석 병풍이 둘러져 있는데

진짜 묘석은 지하묘실에 안치되어 있다.

묘당의 기단 벽면 무늬

첨탑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42m나 되는 첨탑이 있는데
첨탑의 상부가 약간 밖으로 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안으로 휘어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묘당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타지마할의 동쪽 건축물

타지마할 뒤편의 야무나 강

야무나 강

타지마할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 국가 재정은 부실하게 만든 샤 자한은 결국 그의 셋째 아들인 아우랑제브에 의해 폐위되어 타지마할이 바라다 보이는 아그라성에 갇혀 8년을 보낸 뒤 파란 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고 뭄타즈 마할의 옆에 묻혔다. 타지마할을 건설한 후 야무나 강 반대쪽에 검은 대리석으로 자신의 묘를 지어 양쪽을 다리로 연결하려던 계획은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아우랑제브의 호의로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의 옆에 나란히 눕게 되었으니 그의 말년이 불행하기만 했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하다.

영묘에서 바라본 정원과 정문

타지마할의 측면

타지마할을 맘에 담고 되돌아 가는 길

타지마할 입구의 기념품 상점들

대리석으로 만든 기념품들이 많은게 특징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아그라 성(Agra Fort)

2010.09.25 18:15

2010년 1월17일 (일)

Ranee in Agra

-아그라 성-

아그라 성의 남문인 아마르싱 게이트

타지마할을 지은 샤 자한이 아들에게 폐위되고 8년동안 갇혀 지내다 생을 마감했던 아그라 성으로 이동했다. 인도와 중앙 아시아 스타일을 융합하여 거칠고 투박하게 지은 성문과 성벽은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인 악바르 대제가 지은 것으로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져 일명 붉은 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성이다. 성을 빙 둘러 해자가 있고 높이 20m, 길이 2.5km나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성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천상 요새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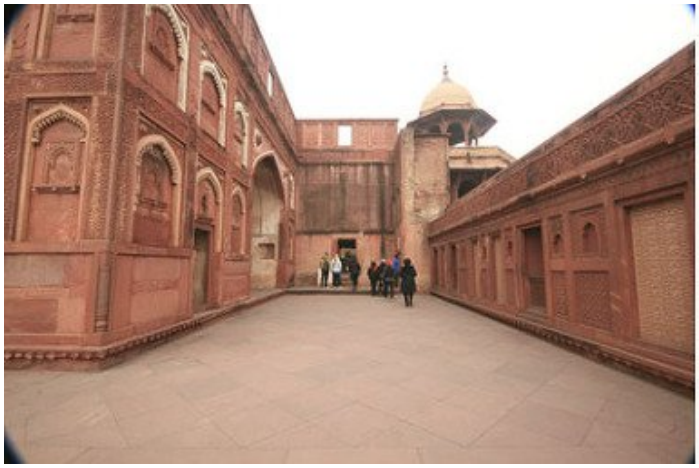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델리 게이트와 아마르싱 게이트 2개가 있다. 관람객인 우리들은 아마르싱 문을 거쳐 아크바리 문으로 들어 갈 거지만 원래의 출입문은 델리 게이트로 델리 게이트를 지나 코끼리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

자한기르(제항기르) 궁전

자한기르(제항기르) 궁전

자한기르(제항기르) 궁전은 악바르 대제가 어렵게 얻은 자신의 아들 자한기르(제항기르)를 위해 지은 성으로 조형적으로 특히 주목되는 건물이다. 원래는 인도와 페르시아 건축 양식을 융합한 모습이었지만 후에 샤 자한 왕에 의해 무굴 양식으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아그라 요새에서 가장 큰 개인 처소로,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으며 성벽에는 하얀 대리석 문양이 꾸며져 있다.

자한기르(제항기르) 궁전 내부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의 자한기르 궁전

자한기르(제항기르) 궁전 앞의 목욕통

자한기르 왕비의 목욕통

자한기르 궁전 앞에는 거대한 석조 목욕통이 있는데 자한기르의 왕비가 이곳에서 장미 목욕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성벽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외성벽

평상시엔 감시용으로 전시에는 방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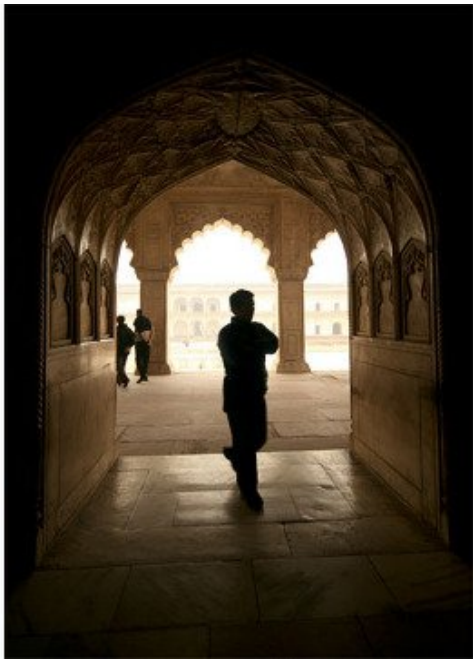
야무나 강이랑 타지마할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안개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타지마할은 도대체 어디에...??

샤 자한의 개인 궁전인 카스마할(하스마할)

카스마할(하스마할)과 사분 정원

대리석으로 지은 단아한 느낌의 카스마할과 화단과 수로 그리고 연못과 분수 등으로 꾸며져 있는 사분 정원

침전에서 바라본 연못과 사분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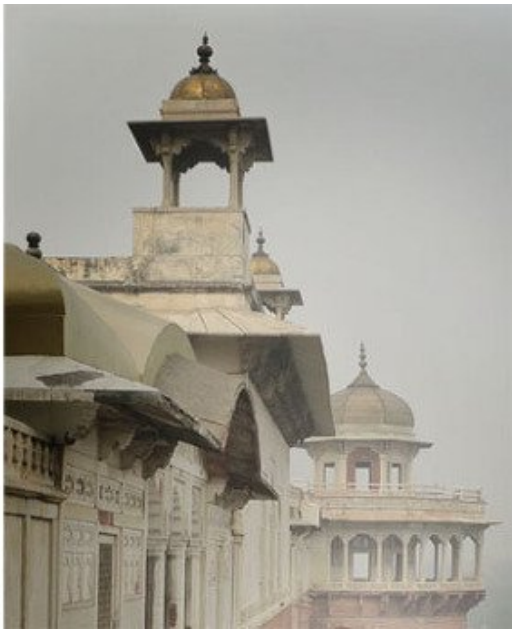
침전의 문

침전

샤 자한 때 지어진 대부분의 궁전들처럼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세밀한 조각과 장식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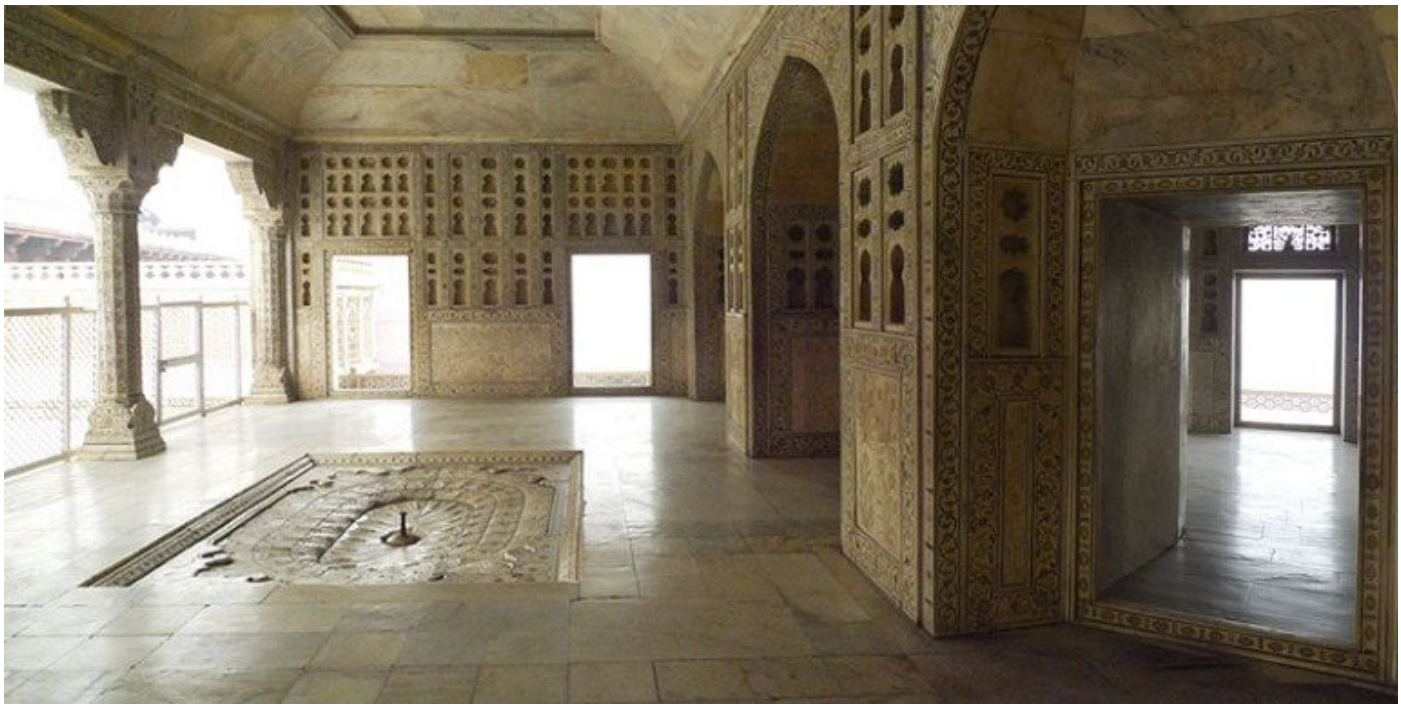
라니
http://blog.daum.net/mirolove

샤 자한이 갇혀 지냈던 무삼만 버즈(Musamman Bur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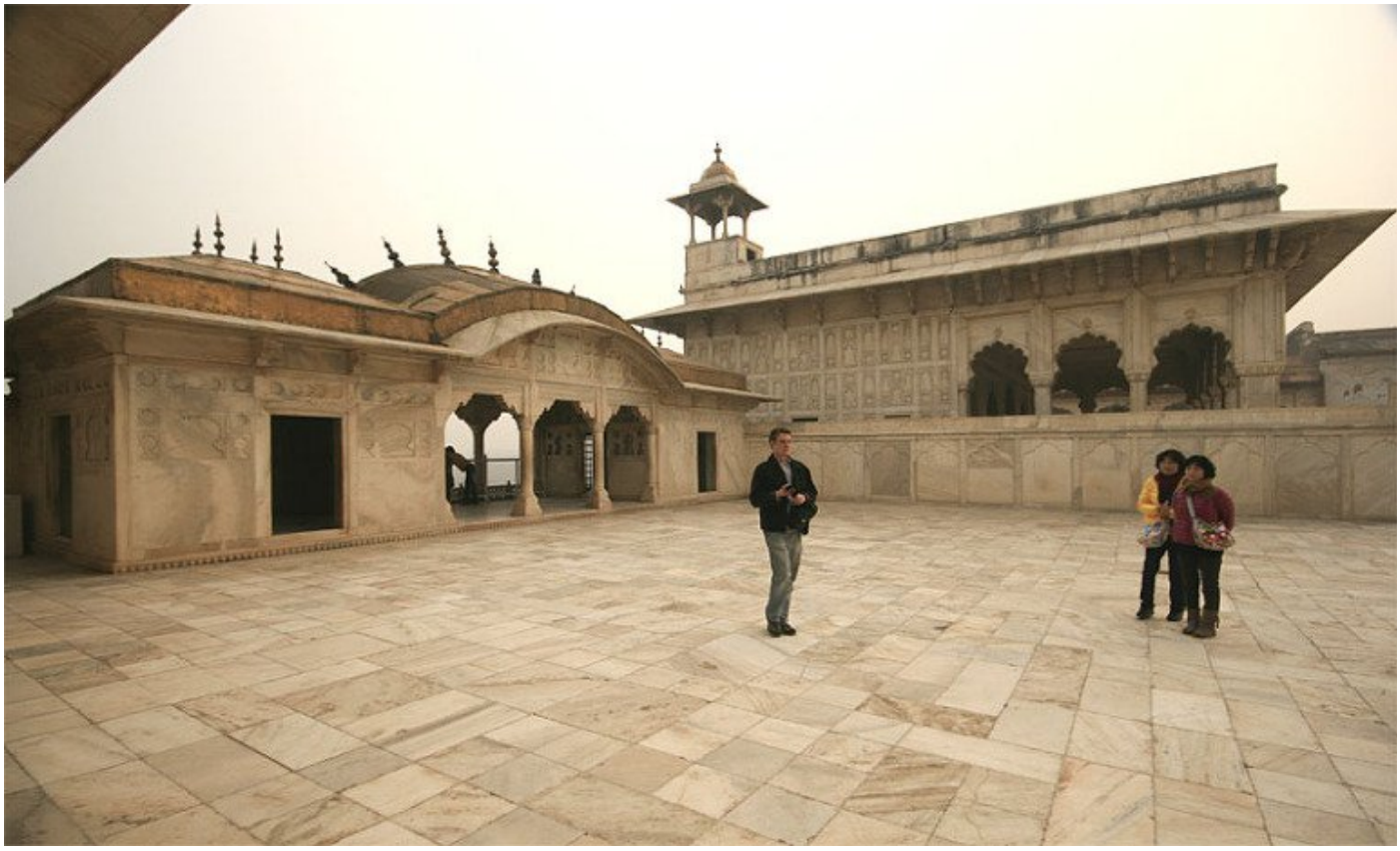


"포로의 탑"이라는 뜻의 무삼만 버즈

무삼만 버즈는 8각형의 커다란 탑으로 샤 자한이 말년에 아들 아우랑제브에 의해 유폐되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의 테라스에 서면 샤 자한의 아내인 뭄타즈 마할의 무덤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이 보이는데 샤 자한은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곳에서 타지마할을 보며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안개로 인해 이곳에서 타지마할을 보지 못함이 못내 아쉽다.



복원 중이기 때문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곳은 모두 철망으로 막아 놓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바라봐야 했다.



패빌리온과 중정

중정

하스마할(카스마할) 앞 사분정원

꽃무늬 패턴의 사분정원

공식접견실인 디완이암 (Diwan-i-Am)

나뭇잎 모양 아치가 이색적인 디완이암(디와니암)

아그라 요새 서쪽에 위치한 디완이암(Diwan-i-Am)은 샤 자한 지은 왕의 공식 접견실로 왕이 신하들의 간언을 듣던 곳이다. 화려한 아치와 수십개의 기둥 사이로 보이는 외관이 아름답다. 디완이암 뒤쪽의 디완이카스(Diwani Khas)는 귀빈들을 맞는 왕의 사적 접견실로 1637년에 건설되었으며, 자한기르 왕이 만든 검은색 왕좌가 놓여 있단다.

다와니암 앞마당의 무덤

디완이암 앞마당에 사람들로 둘러 싸여 있는 것은 무덤이다. 영국 인도 북서지역의 부총독을 지내다가 1857년 세포이 항쟁 때 다른 영국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옥쇄해 죽은 존 러셀 콜빈의 무덤이라고.

아그라 성 관람을 마치고 아그라 성을 나서는 중.
아마르싱 문을 나서자 말을 탄 누군가의 동상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볼 수가 없어서 누구의 동상인지는 모르겠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책에서 찾아본 정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글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ㅜㅜ

자이푸르로

2010.12.12 15:11

DRIVE-THRU
Pacific

PEPSI
PANKAJ
TEA STALL
AGRA PETHA
A PETHA

INTERNATIONAL
PHONE CALL
STD, ISD

SANJAY TRAVELS

CENTRAL METHODIST CHURCH
IN INDIA
ESTD.
1888

Central Methodist Chu

HOSPITAL
डा. सुधा बंसल
डा. राजेन्द्र बंसल
CHEMIST
PEPSI

024103
824

4024103
0824
भगवान वाल्मीकि आश्रम एवं मन्दिर
वाल्मीकि पार्क, एम. जी. रोड, आगरा.
व्यवस्थापक : राम जी लाल विद्यार्थी

www.aircel.com

RED & WHITE
SANTOSH PAN BHANDAR
Rajnigandha
Coca-Cola
संतोष
पान भण्डार
Coca-Cola
RAYMOND
SIDHAARTHA

SANTOSH PAN BHANDAR
तम्बाकू से कैंसर होता है
FLAKE
Rs. 20

XIMU

카츠츠와하 왕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암베르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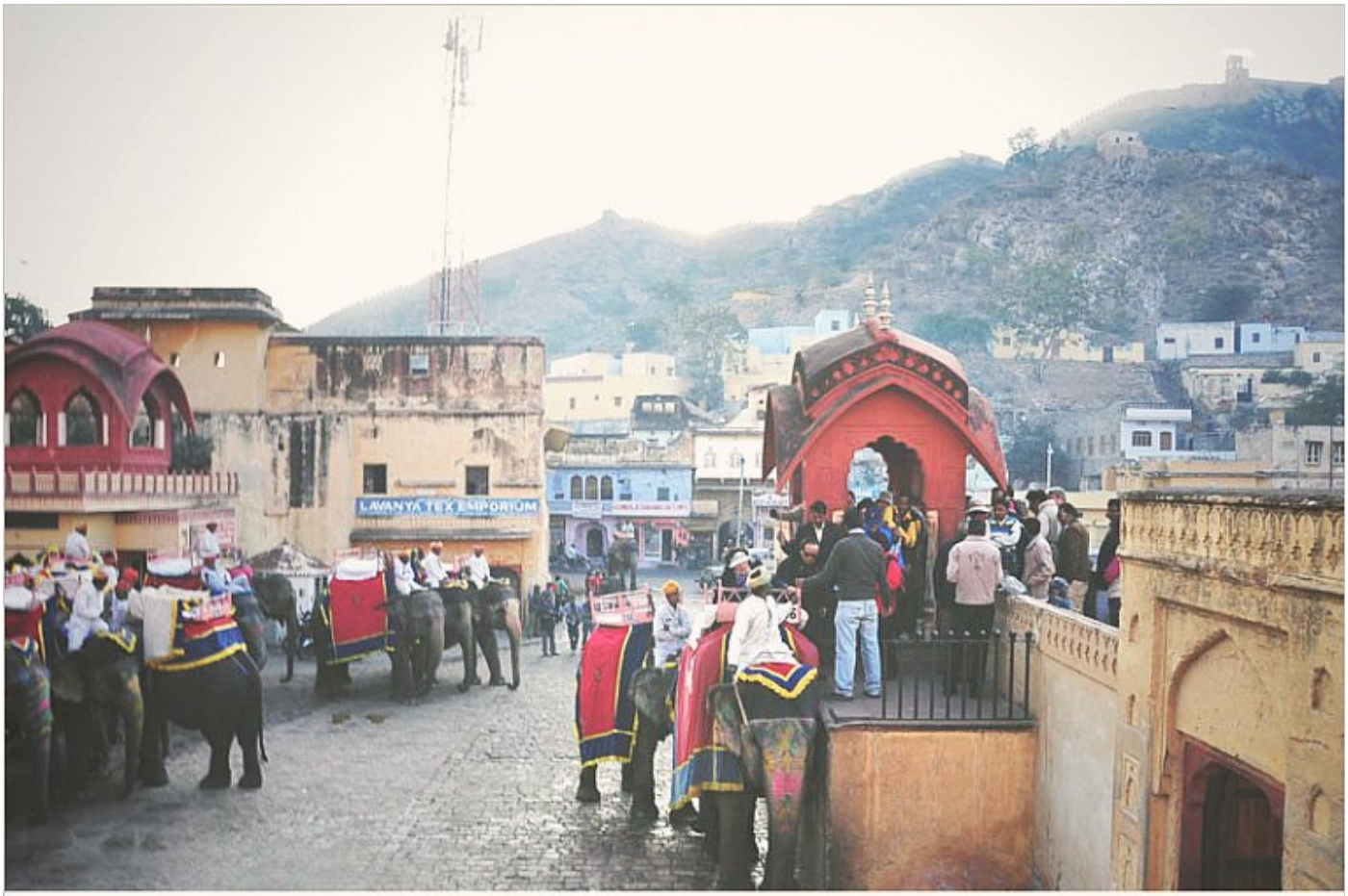
2010.12.19 22:00

2010년 1월18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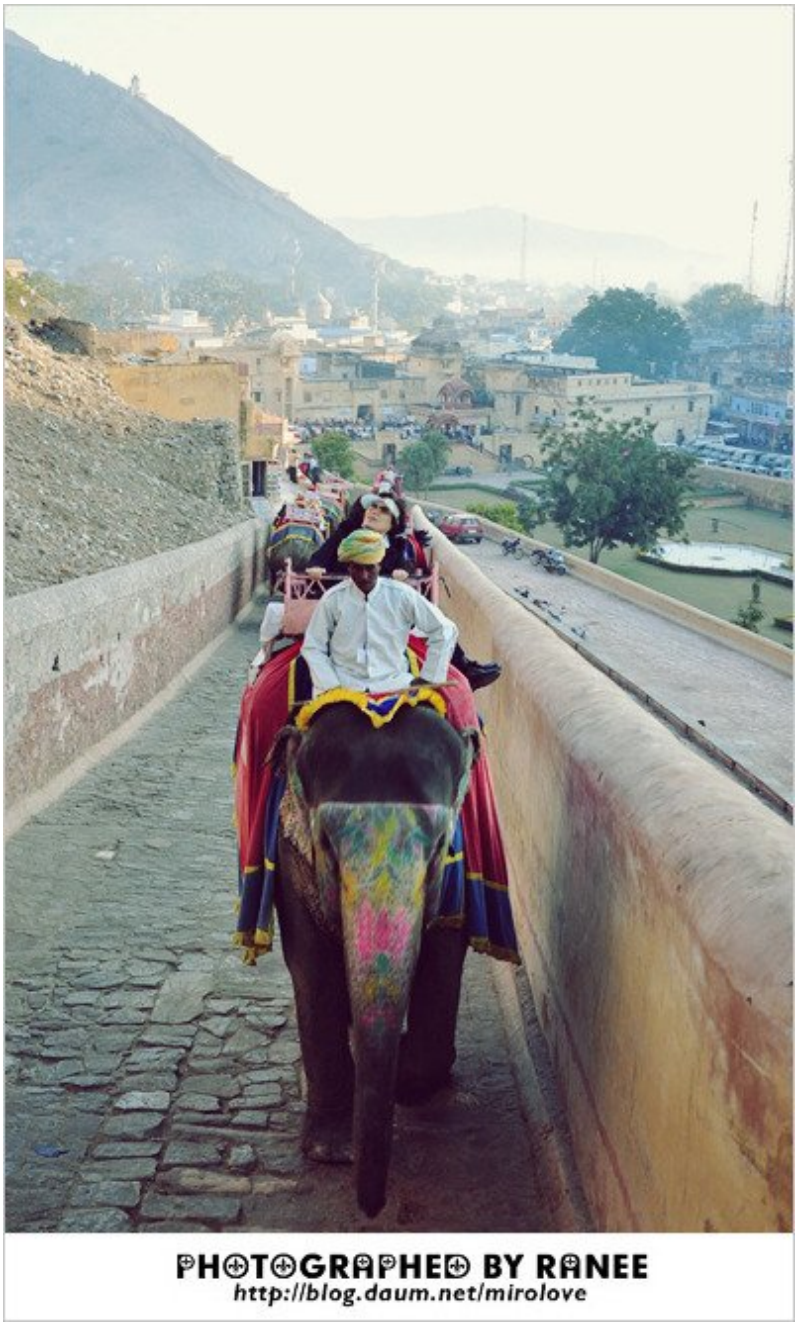
Ranee in Amber

-암베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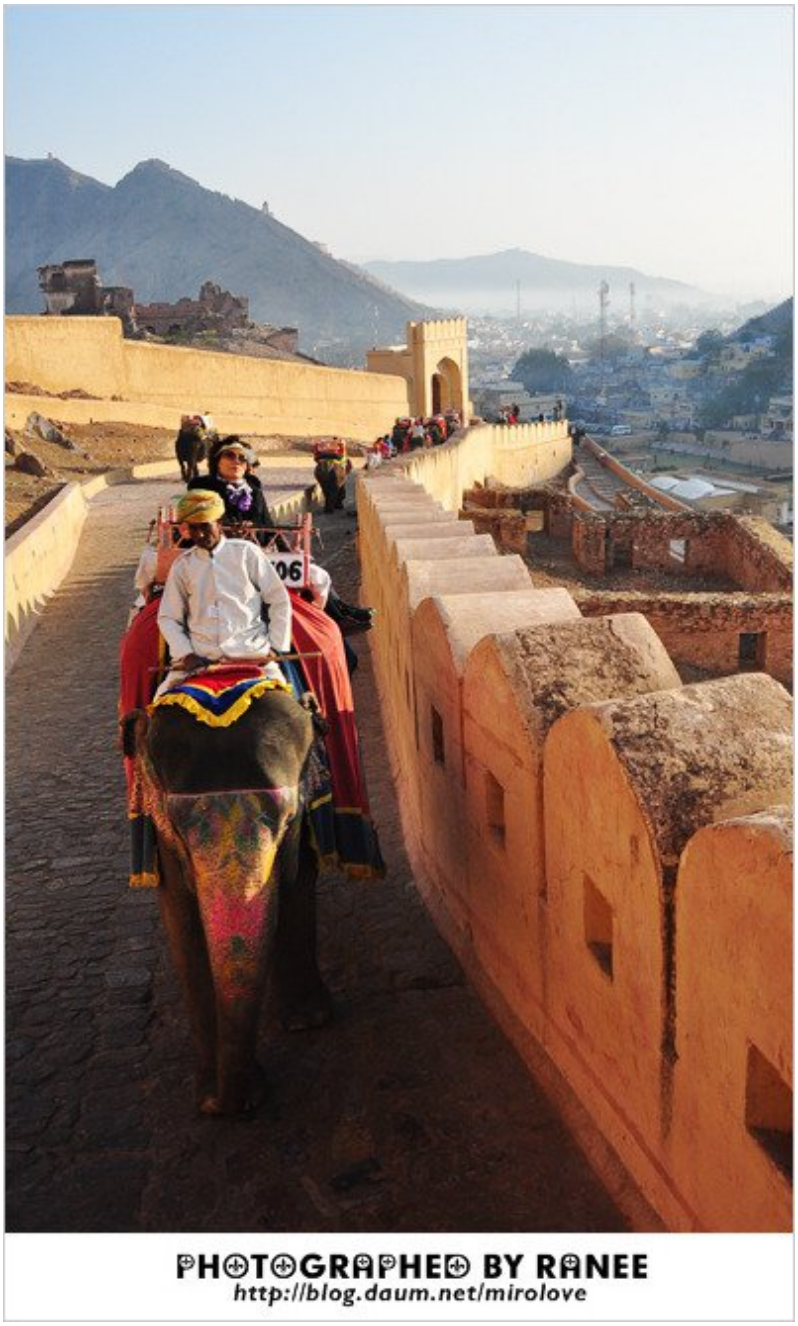
자이푸르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암베르는 1037~1726년까지 카츠츠와하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 이 곳의 최고 볼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암베르성이라 할 수 있다. 암베르 성은 무굴 제국의 최고 황제 악바르와의 혼인 동맹으로 왕국을 반석 위에 올려 놓았던 마하라자 만 싱에 의해 1592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125년이나 걸려 완공된 성으로 라지푸트 최고의 재력을 자랑하던 카츠츠와하 왕조의 작품답게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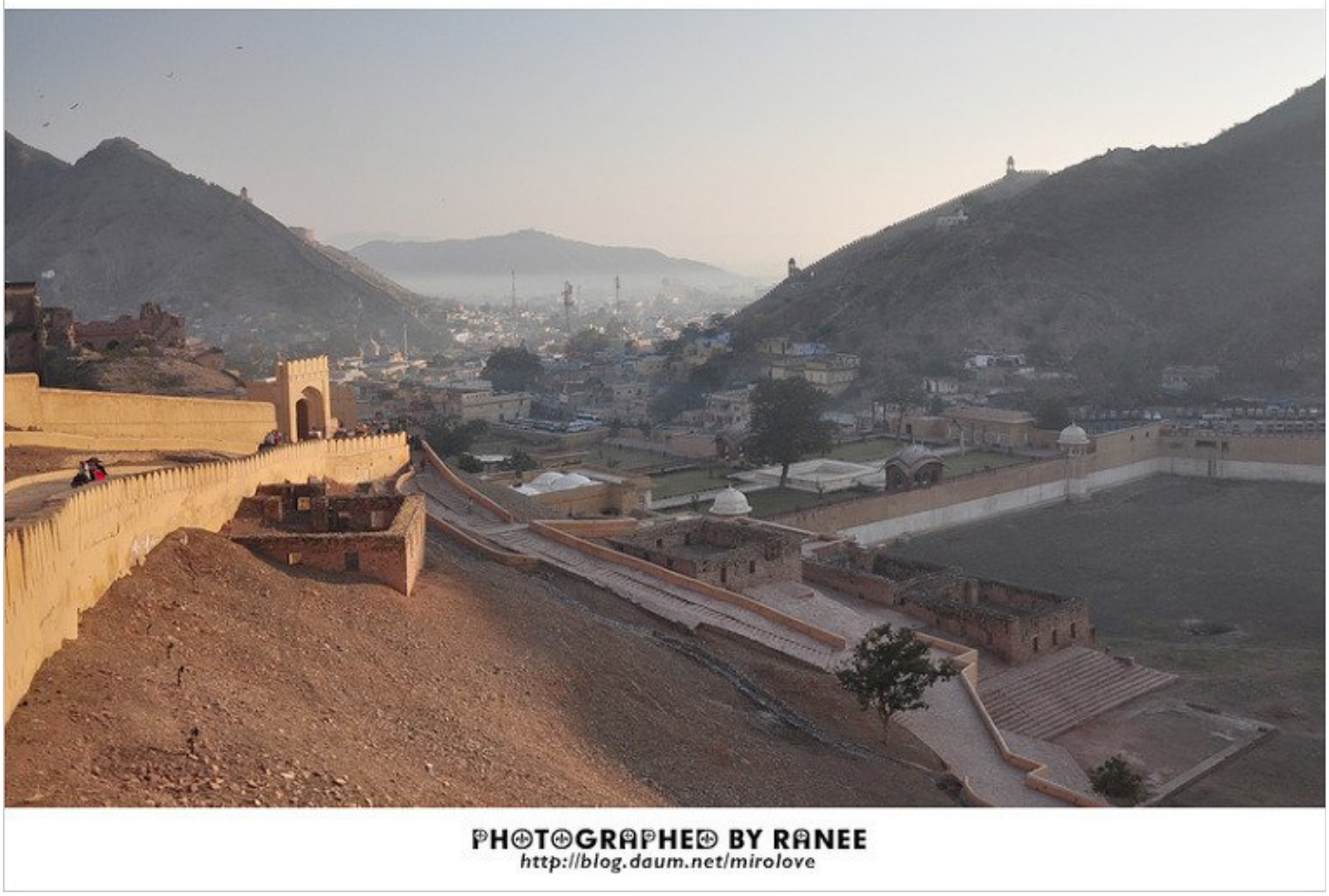
암베르성에 오르는 방법 중 코끼리를 타고 오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대기자 열에 합류했다.
(일에 지친 코끼리가 난동을 부려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 있어 지금은 하루에 3번만 코끼리를 이용해 오를 수 있다고 함)



기다림 끝에 드디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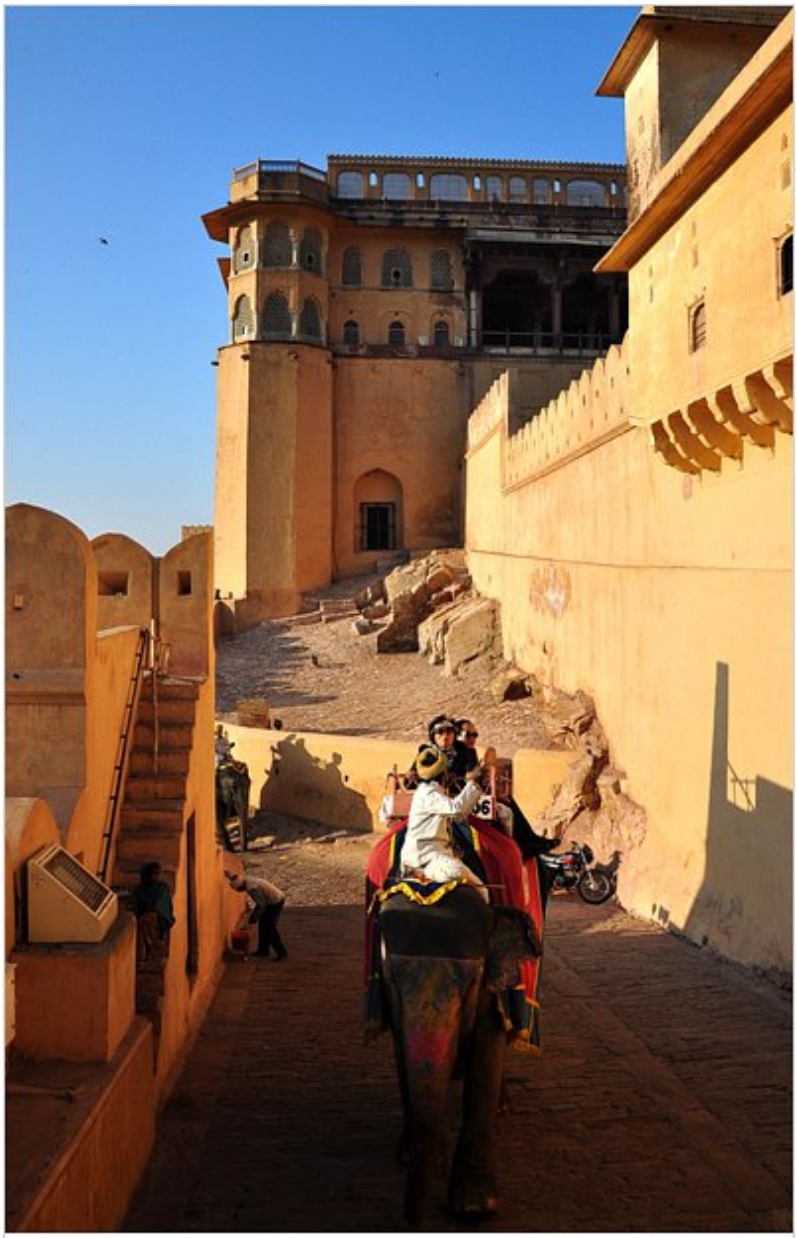


코끼리가 한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몸 전체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다.
몸이 이리저리 쓰러질 때마다 여행 짝꿍과 난 허리가 끊어져라 웃어 제끼고...
그 즐거웠던 순간을 사진에 담아 남기고 싶었는데 심한 흔들림에 쎌카 찍기는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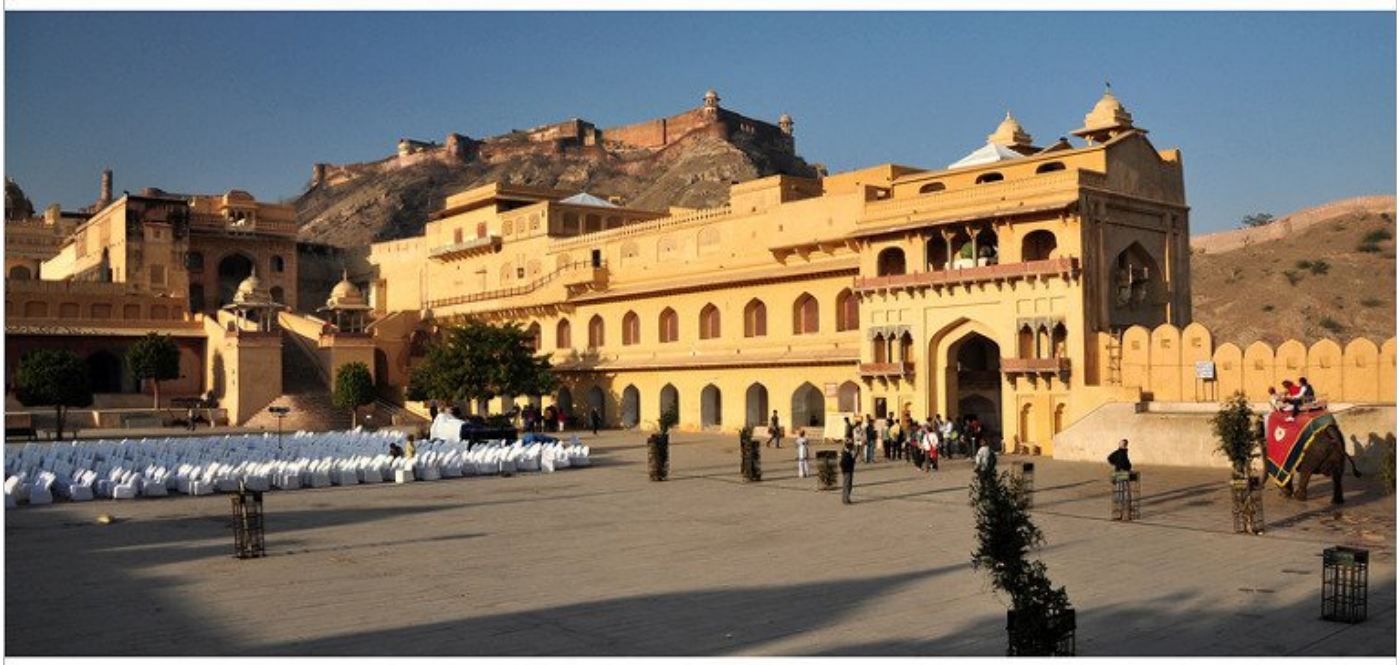


▲

암베르 성을 오르며 바라본 암베르 성 주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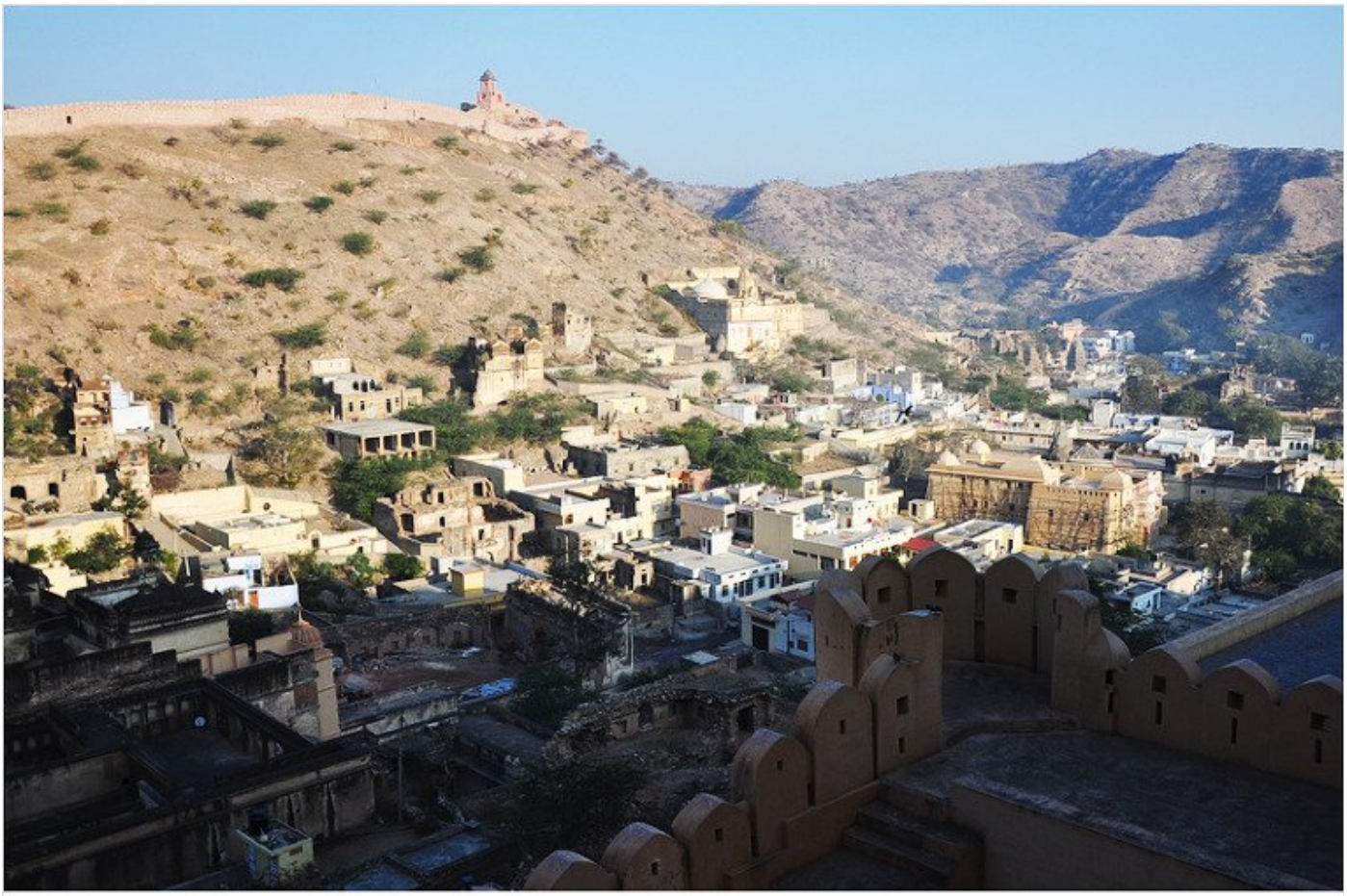
코끼리를 타고 10여분을 올라...



암베르 성 입구를 통과했다. 꽤 넓은 마당은 공연장으로도 쓰이는지 하얀 커버를 씌운 의자들이 가득하다.
암베르 성 뒤로 보이는 또 하나의 작은 성은 자이가르 성이다. 1036년에 건설돼 한 때는 마하라자의 왕궁으로도 사용됐던 곳인데 1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입구를 통과하여 여전히 코끼리를 탄 채로 마당을 빙 돌고 있는데
육중한 코끼리들의 움직임에 의한 진동 때문인지 갑자기 비둘기떼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다.

'어디서 저렇게 많은 비둘기들이...'
아~ 이 모습 또한 장관이다.



코끼리에서 내려 암베르 성 주변의 모습의 모습을 살펴본다.
성 아래로 많은 집들이 보이고 또 다른 성벽으로 둘러싸인 언덕도 보인다.

왼쪽 위로 마하라자의 공식 접견실이었던 디와니암이 보인다.
가운데 보이는 계단을 이용하여 디와니암으로...

디와니암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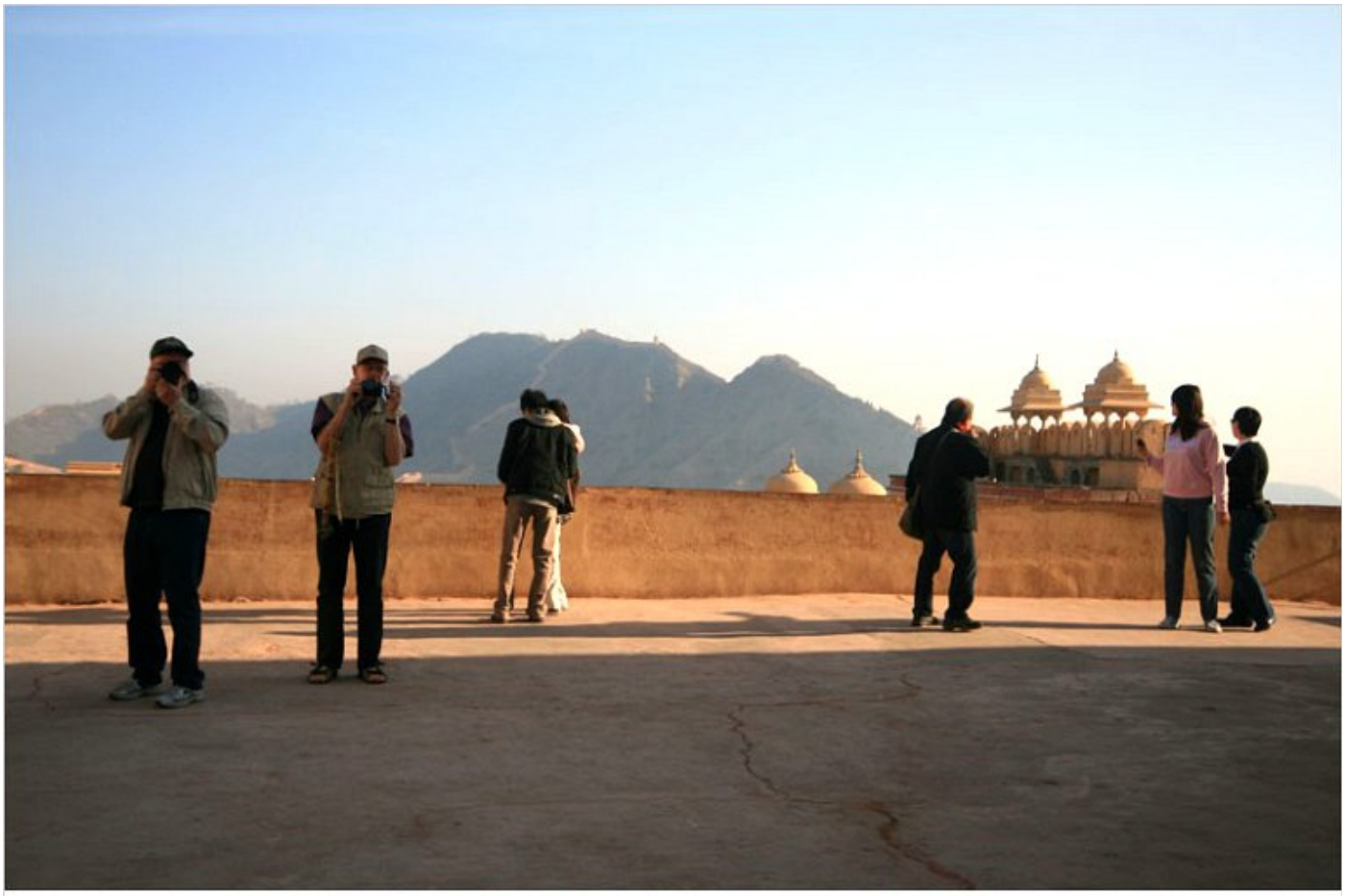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

디와니암(왼쪽)과 가네쉬 폴(오른쪽)

▲

디와니암과 가네쉬 폴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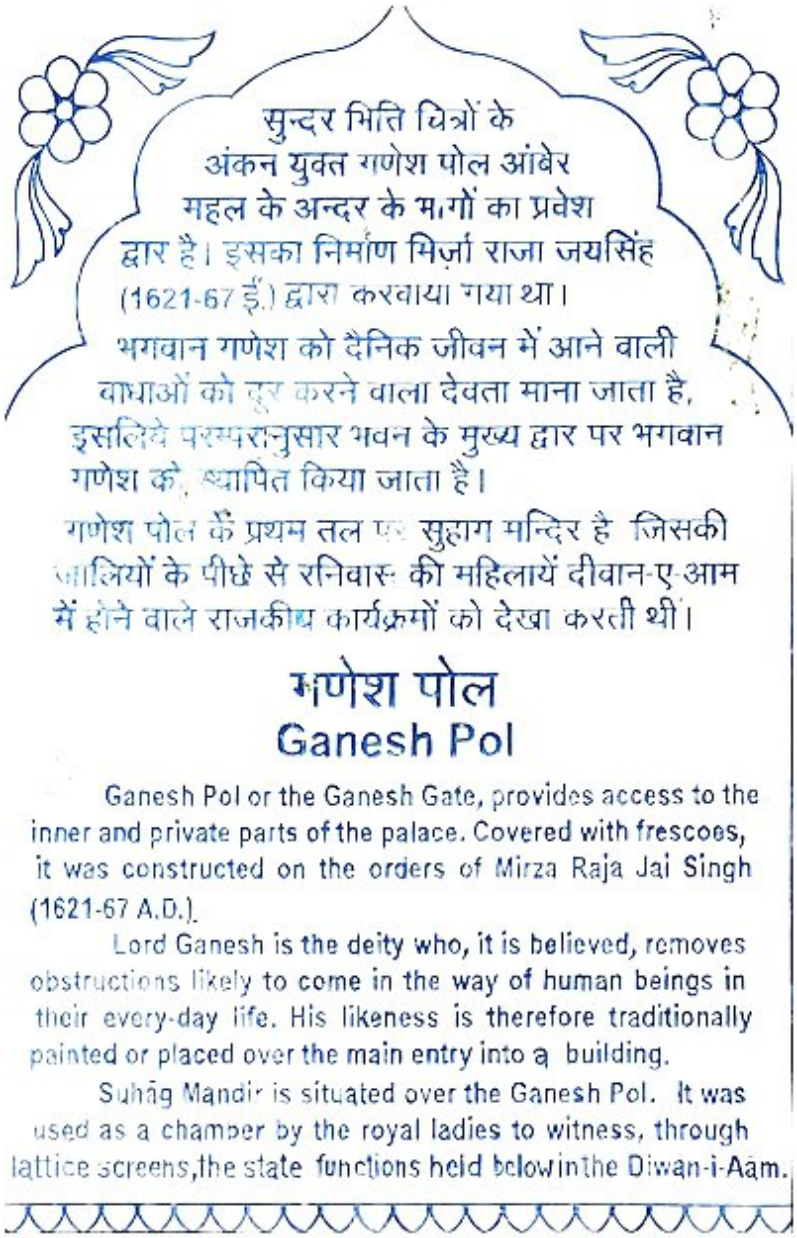
▲

마하라자가 신하들의 간언을 듣던 장소인 디와니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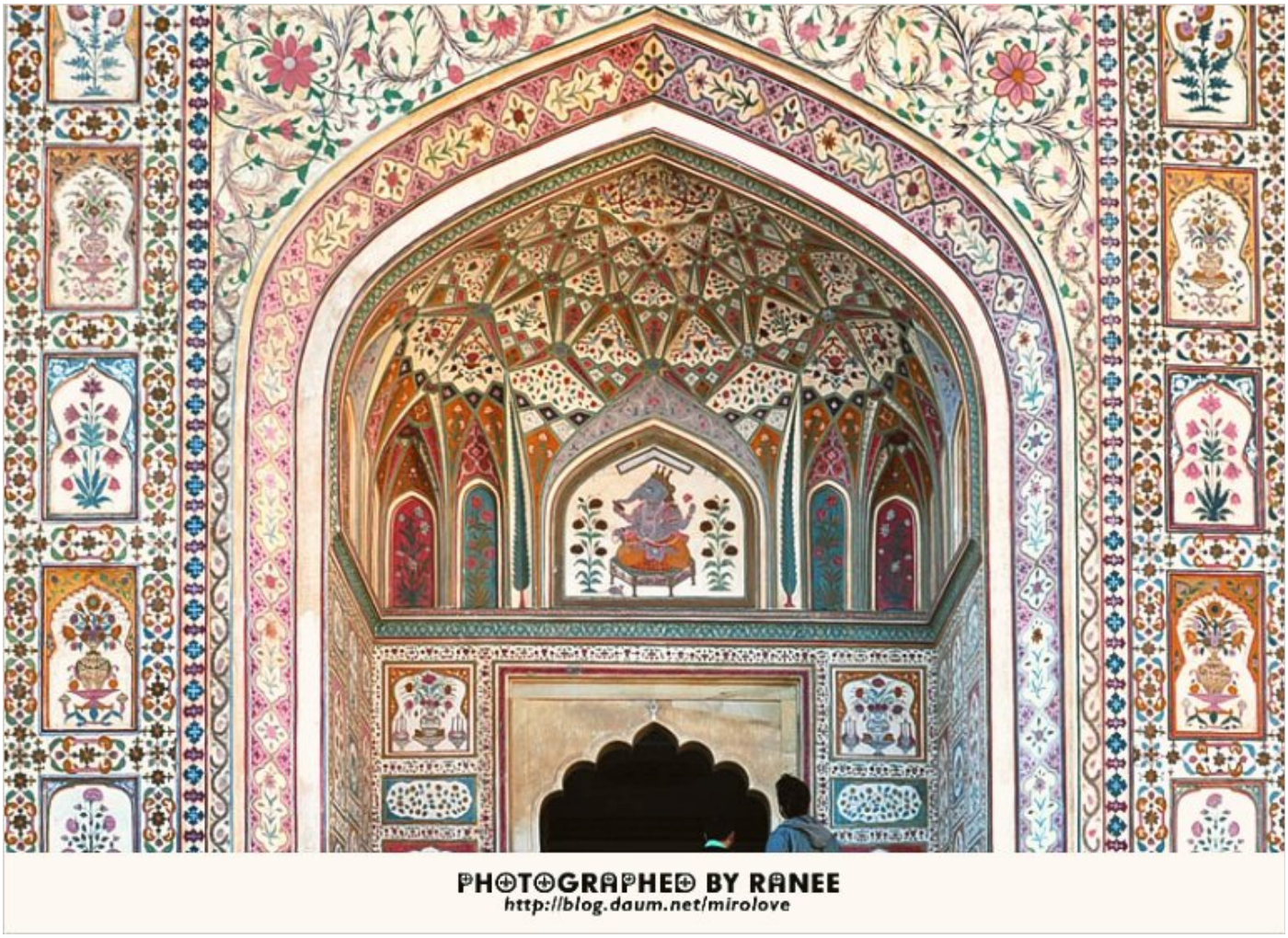
마하라자의 개인 거처로 연결되는 문인 가네쉬 폴(Ganesh Pol)

가네쉬 폴이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은 1640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그 아름다움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왕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왕비가 꽃과 물을 가지고 이 곳에서 맞이했다고 하며 2층에는세밀한 격자 창문이 있어 비빈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네쉬 폴 또는 가네쉬 게이트에 대한 설명이 실린 안내판



▲

가네쉬 폴(Ganesh Pol)의 아름다운 문양

입구 상단에는 팔이 네개인 가네쉬가 그려져 있고 주변의 문양은 상감기법으로 꾸며져 있다.

▲

가네쉬 폴(Ganesh Pol)

문밖으로 방금 지나온 디와니암의 일부가 보인다.

▲

가네쉬 폴(Ganesh Pole)의 아름다운 문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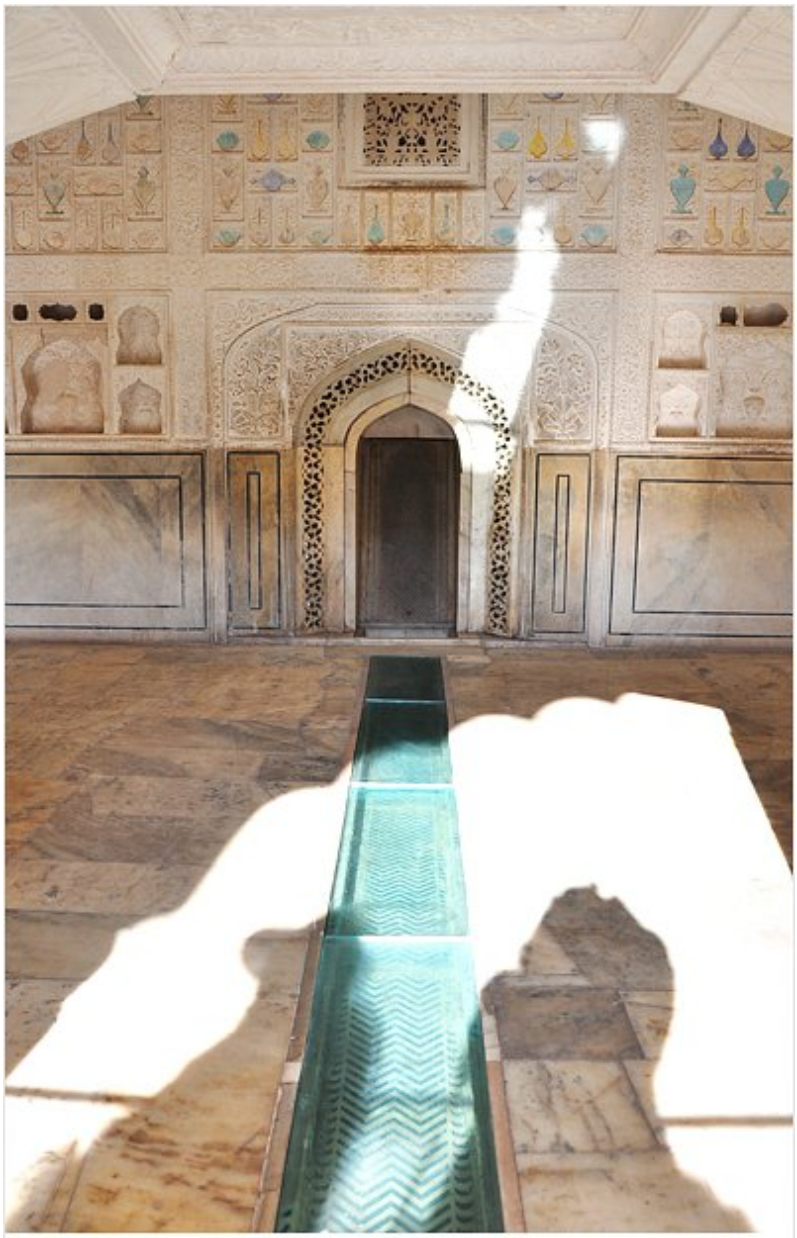
마하라자의 개인 정원인 아람 박(Aram Bagh)과 정원 왼쪽 끝의 쉬시 마할

아람 박(Aram Bagh)은 가네쉬 폴을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작은 정원으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듯한 기하학적 문양의 수로가 특징이다.

▲

환락의 궁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수크 니와스

환락의 궁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매우 화려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화려해 보이진 않는다.
지금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모두 보석으로 채워져 있다면 달리 보일지도 모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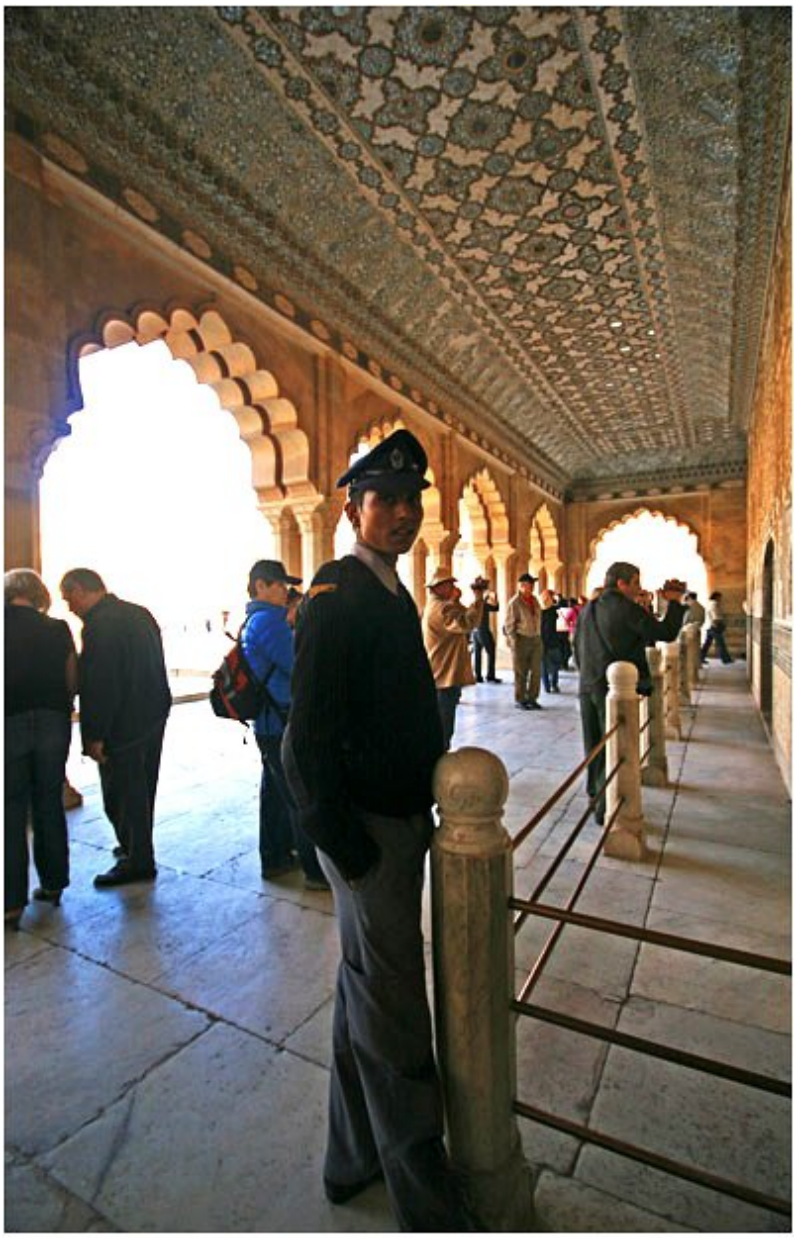
▲

수크 니와스

수크 니와스의 벽과 바닥에는 수로에서 끌어들인 물을 회전 시키는 배관 시설이 되어 있다. 홀의 뒤쪽 수구(水口)에서 흘러나온 물이 빨래판 같이 생긴 돌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방을 냉각 시키는데 제법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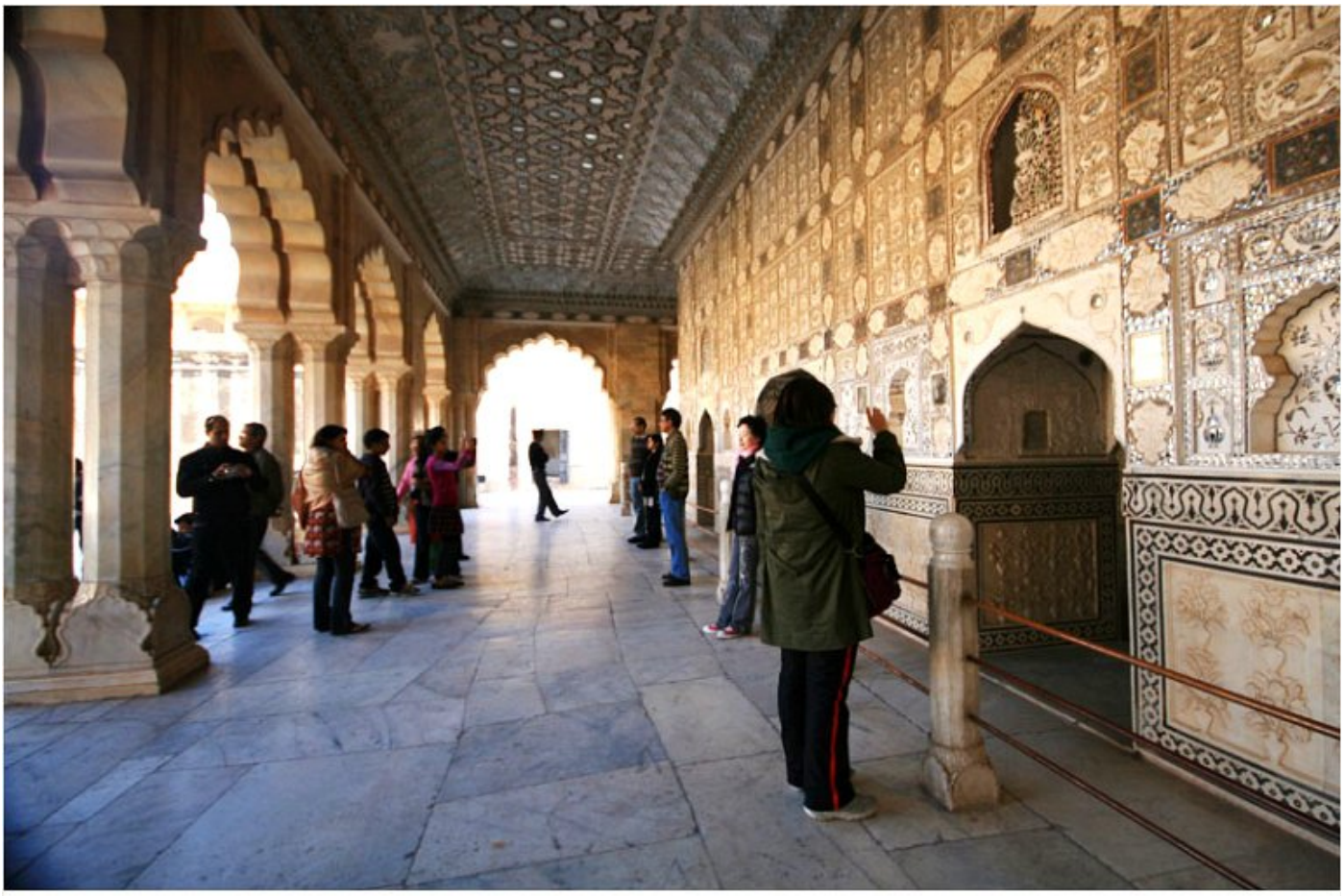
▲

아람 박과 쉬시 마할 (오른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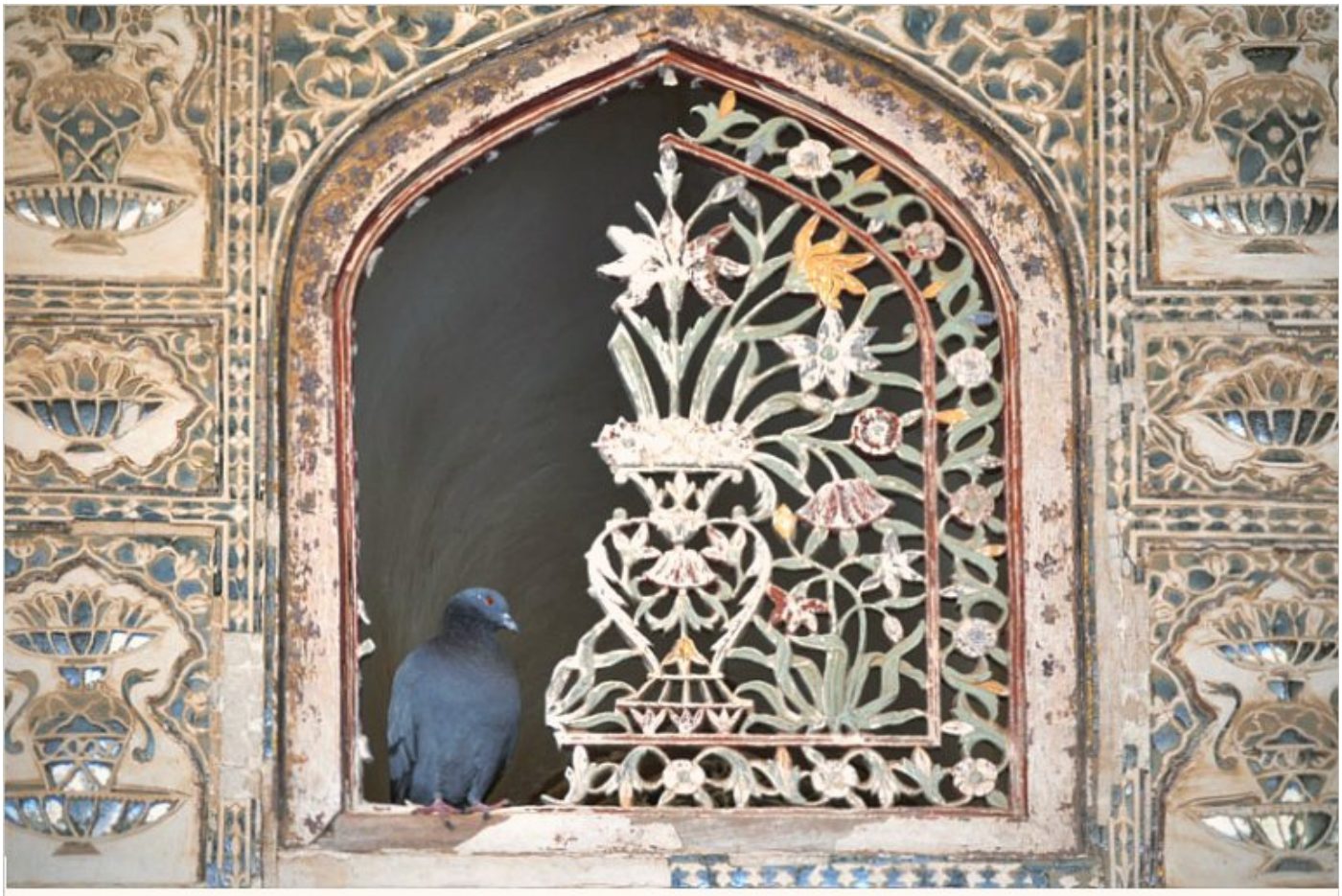
궁전 건축미의 극치인 쉬시 마할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

쉬시 마할

암베르 성의 핵심 볼거리 중 하나인 쉬시 마할은 방 전체를 거울 모자이크로 꾸며 촛불 하나만으로도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

쉬시 마할의 아름다운 유리 모자이크와 비둘기

▲

쉬시 마할에서...

▲

승리관(오른쪽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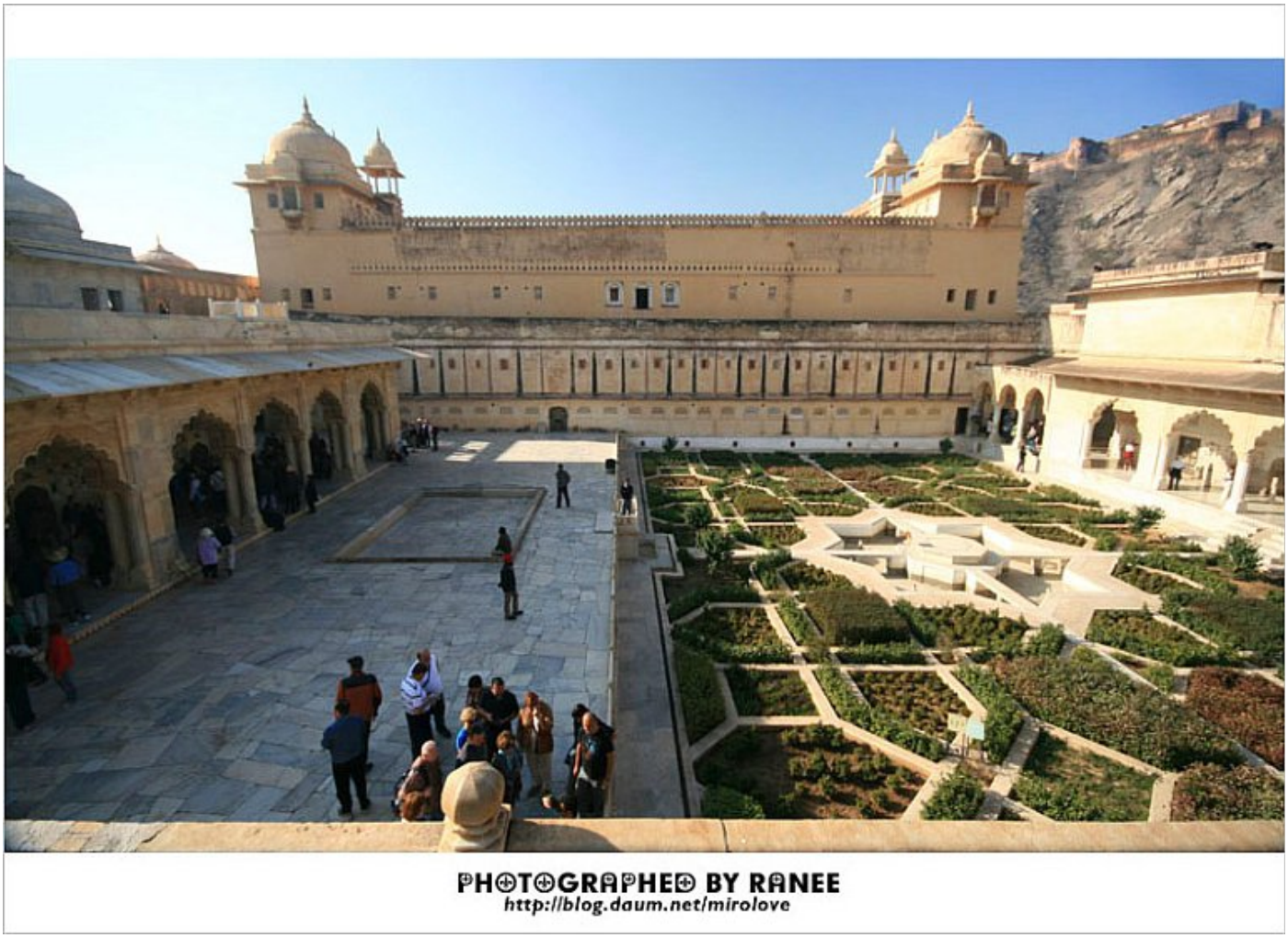
▲

승리관에서 내려다 본 쉬시 마할

쉬시 마할의 2층에는 개인 접견실로 쓰이던 자스 만디르가 있는데 대리석 창을 통해 성 바깥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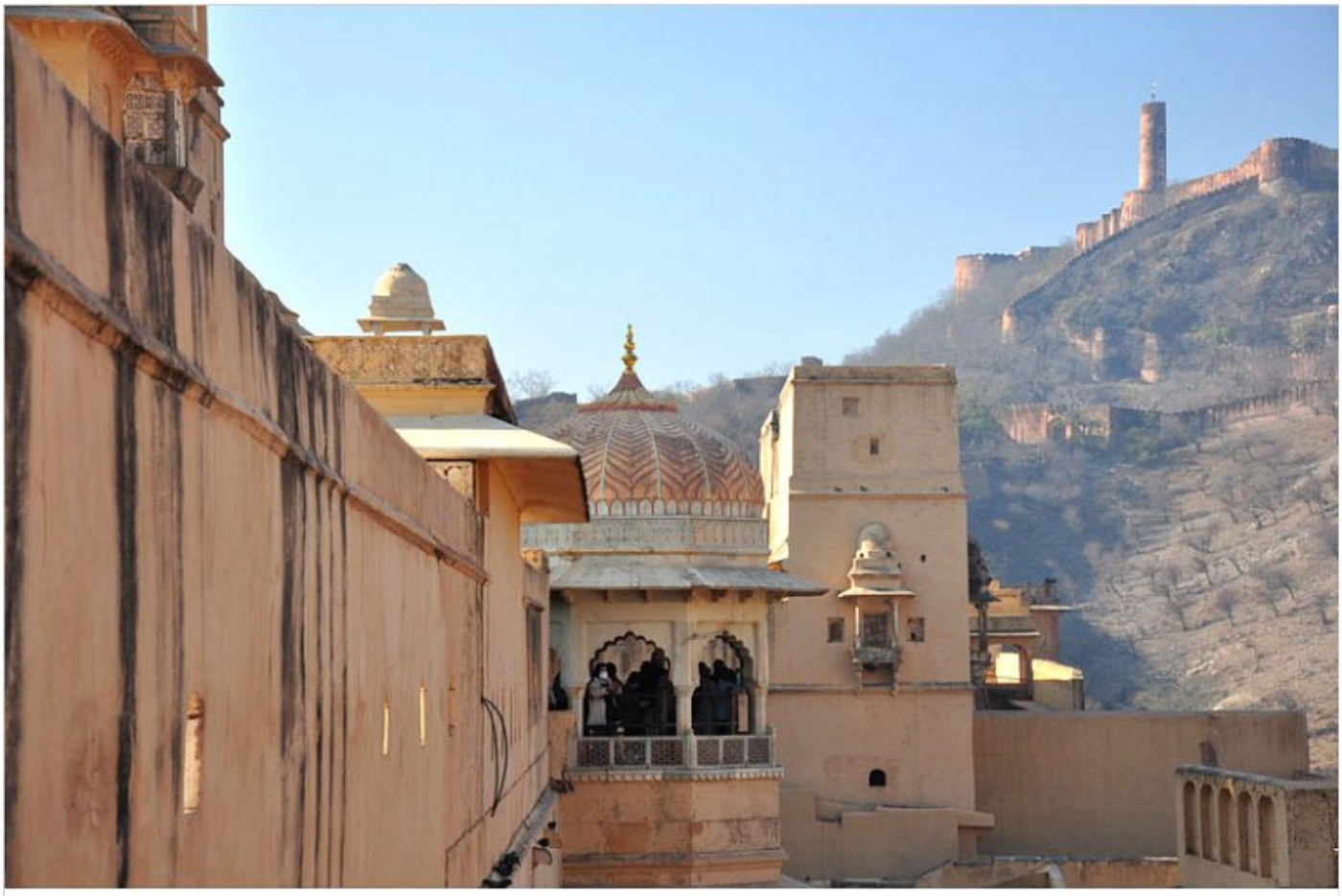
승리관에서 바라본 자이가르 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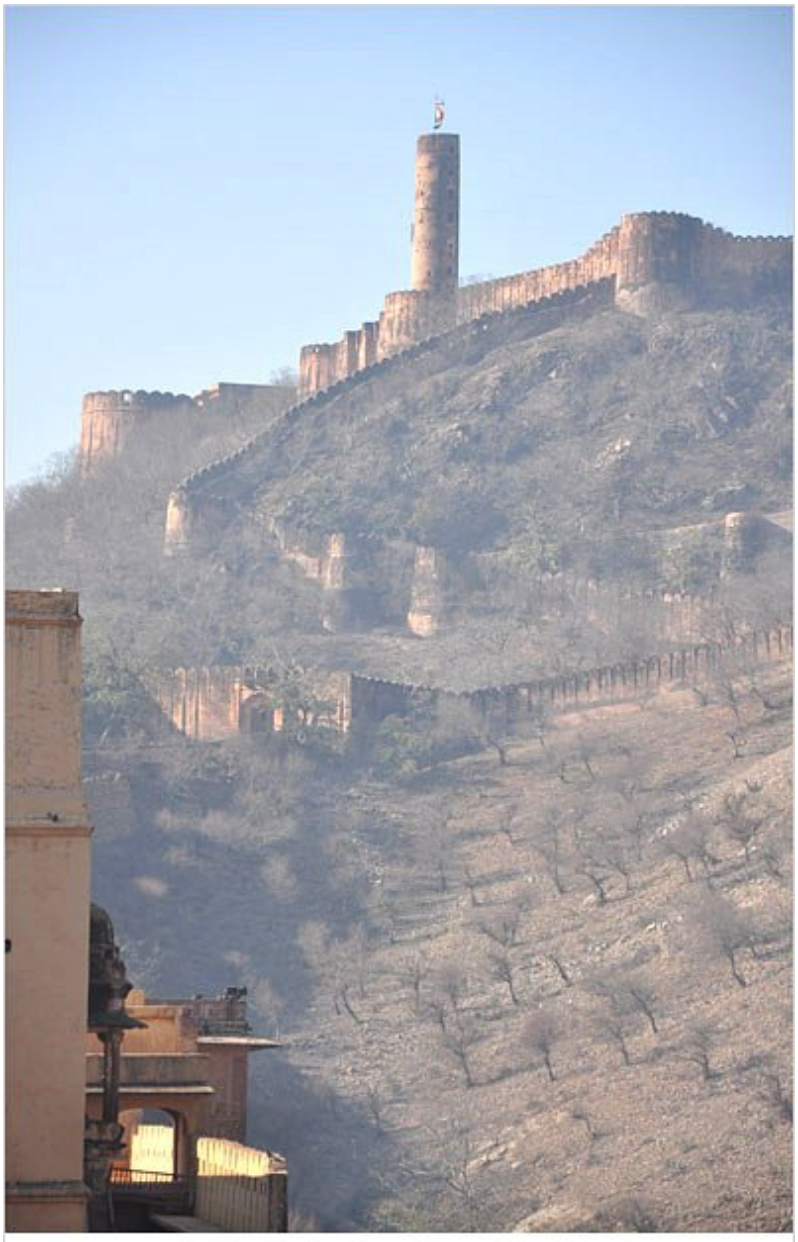
Ladies' Apartment

승리관의 맞은편으로 보이는 건물은 이 성의여인들이 거처하던 곳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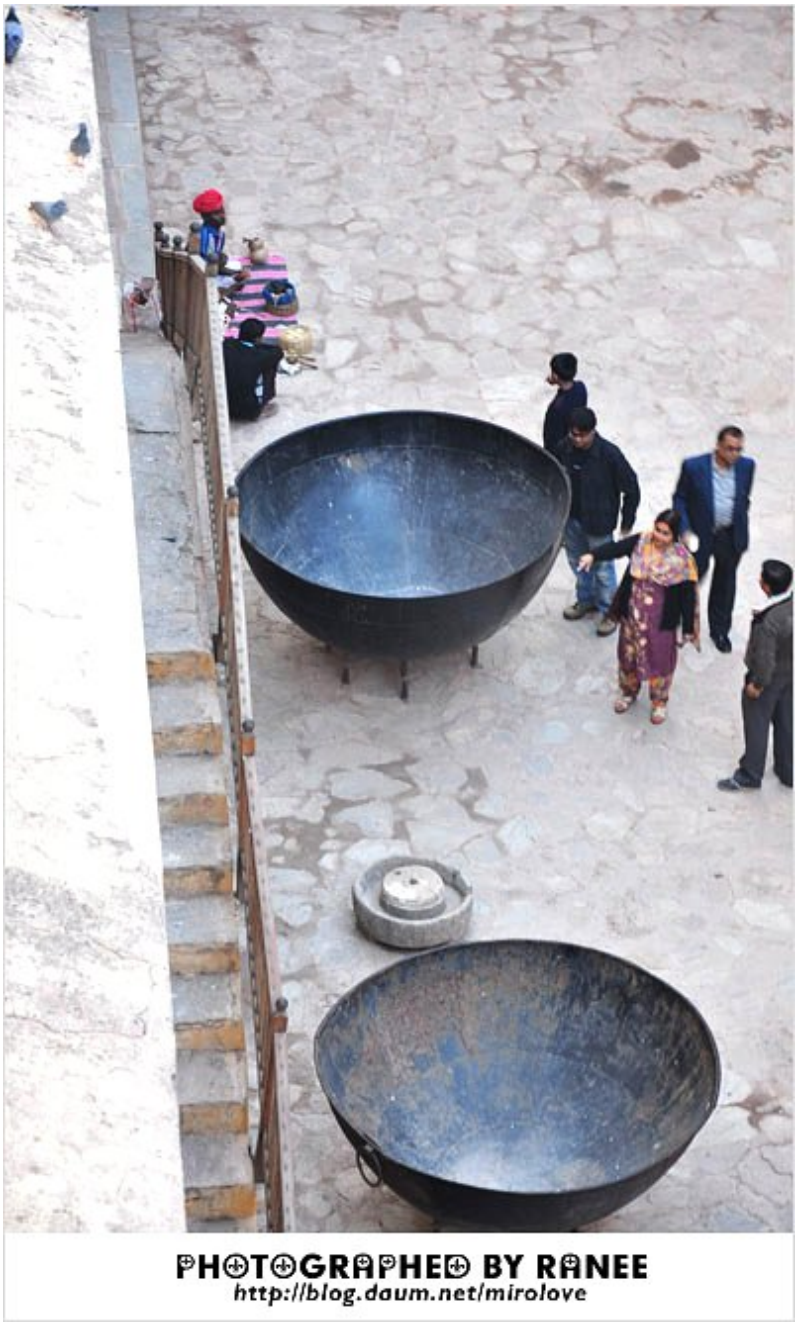
Ladies' Apart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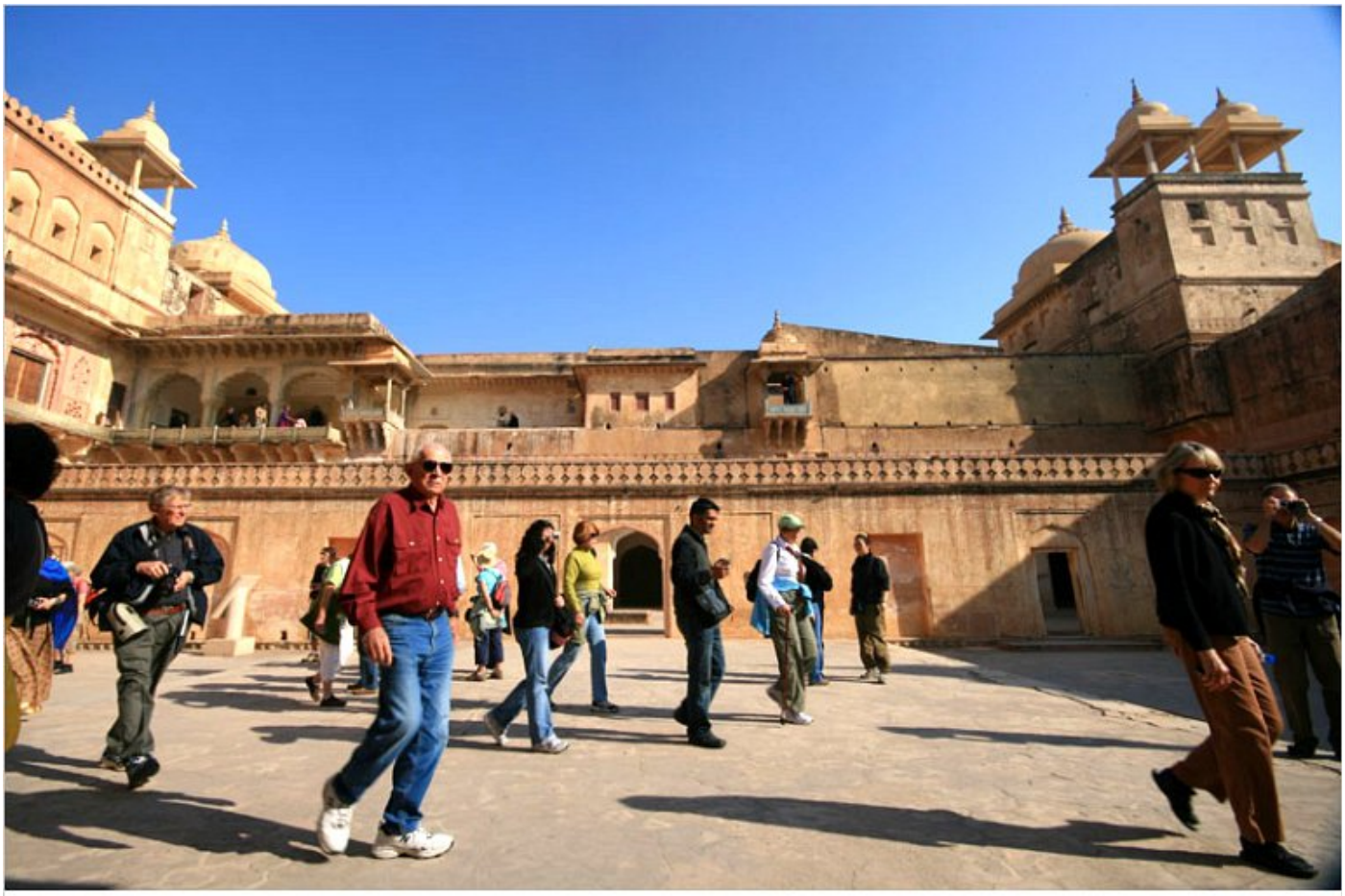
자이가르 성

깃발이 걸려 있으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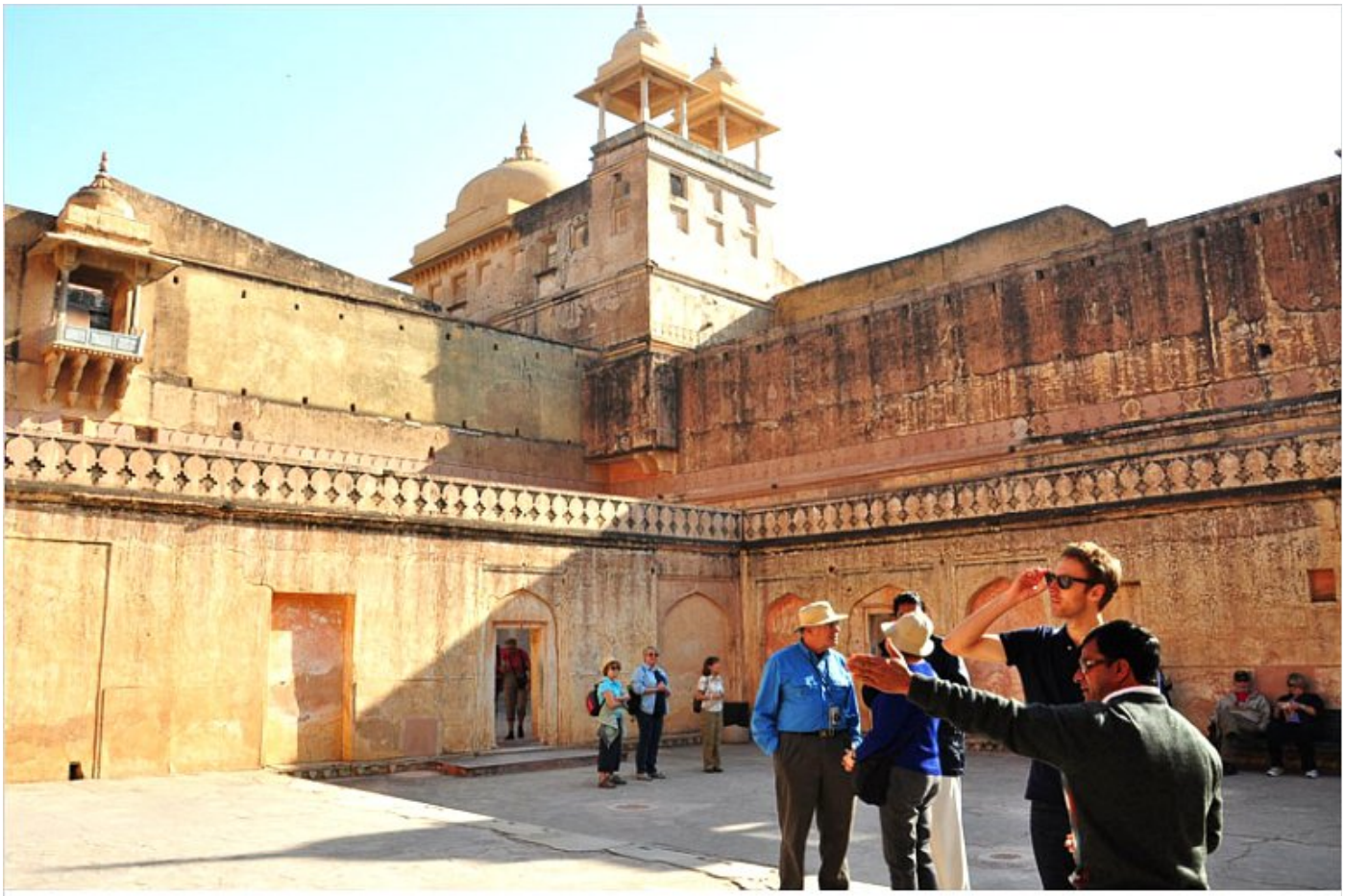
궁에서 사용했던 거대한 솥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

Ladies' Apartment

미로 같은 이 곳이지만 마하라자는 길도 안잊고 여인들의 방을 잘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ㅋㅋ

이 많은 여인들을 기억이나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곳은 아마도 부엌에 해당하는 곳일 듯 싶고...

부엌 밖으로 보이는 움푹한 곳은 목욕을 하던 곳 같은데...

짐작이 맞을지는 글쎄....???

아래로 내려오니 맷돌이랑 물항아리처럼 보이는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게 보이고...

위에서 보았던 큰 솥단지도 전시되어 있는게 보인다.

▲

코브라 쇼

성을 모두 둘러보고 코끼리에서 내렸던 그 자리로 되돌아 왔다.
아까는 이른 아침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더니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다.

▲

잠시 휴식 중에 있는 듯한 악사들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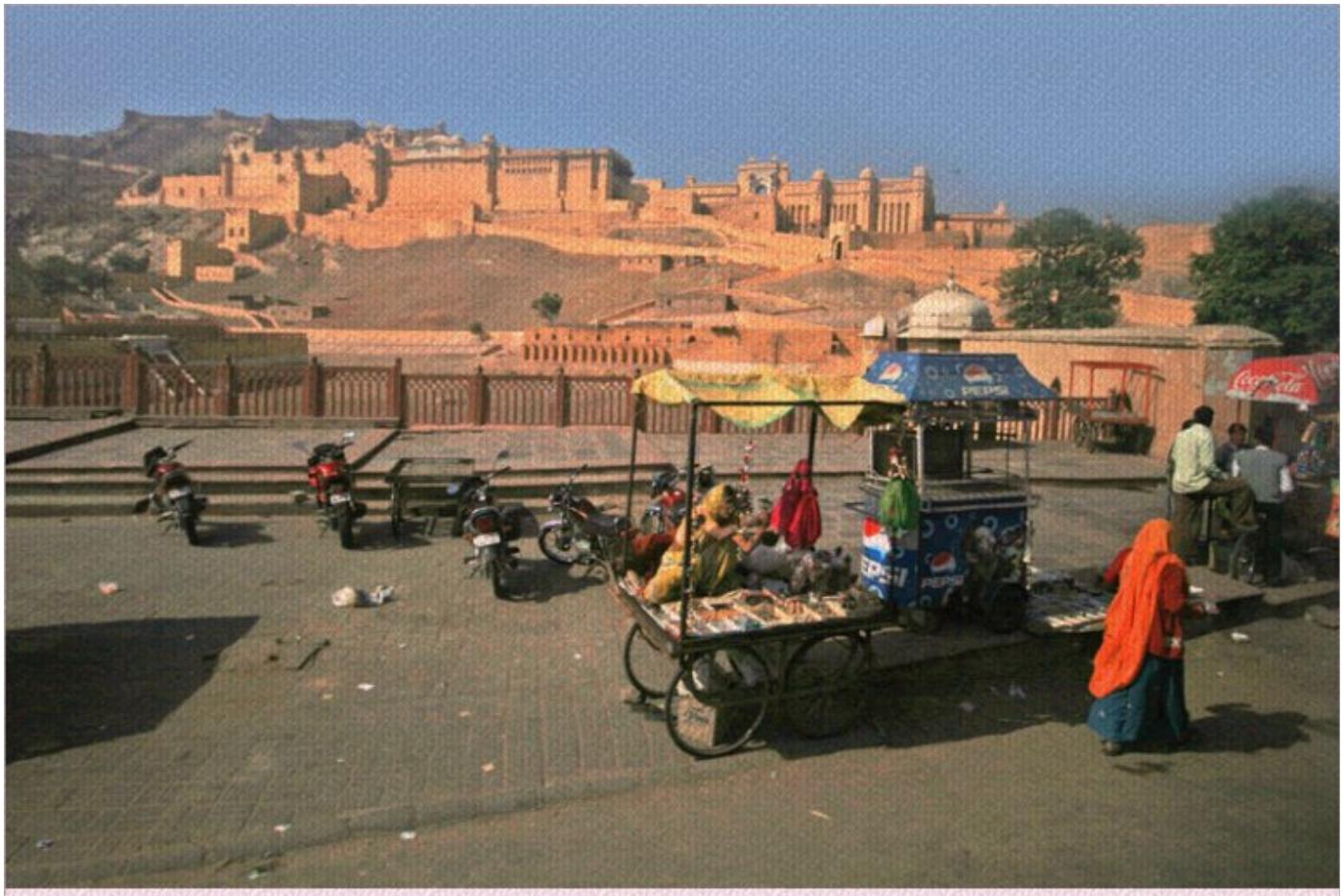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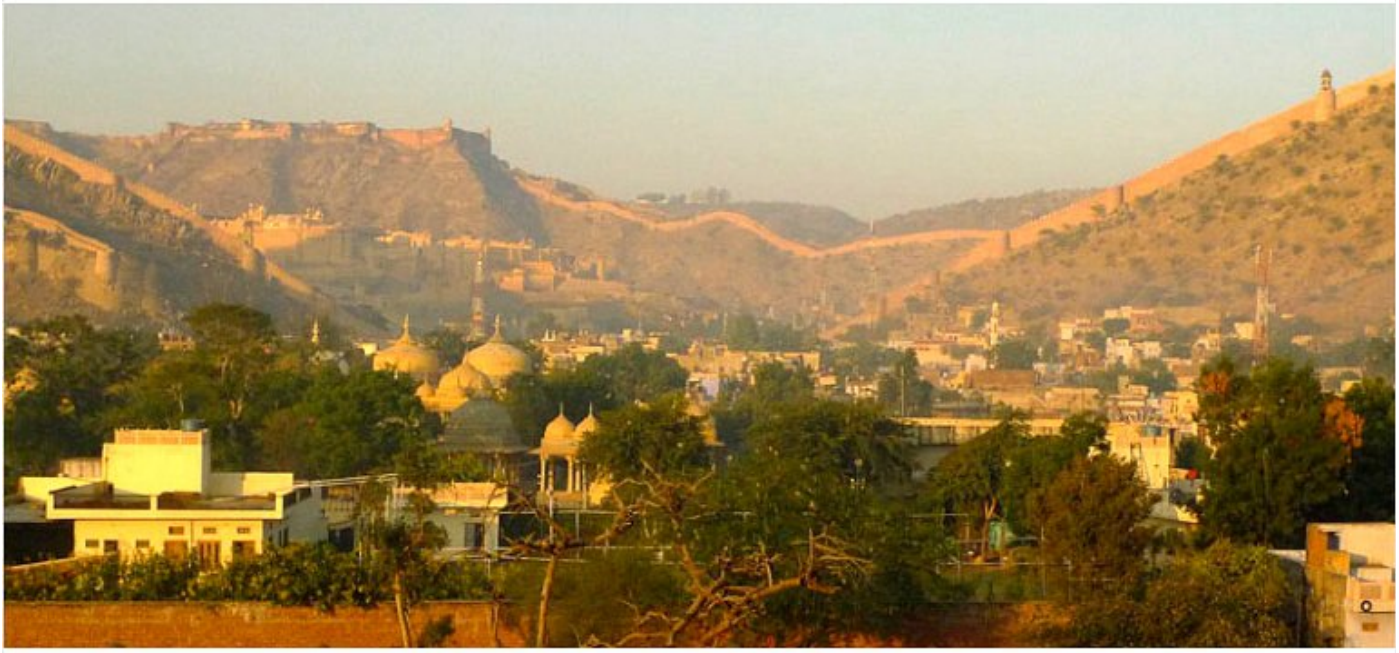
내리막 길이라 내려가는 길은 힘들지 않았지만...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코끼리를 보니 한 번더 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간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들지도 좀 생각해야 하는건데 말이다.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GRAPHED BY RANEE
http://blog.daum.net/mirolove

(인도 자이푸르) 물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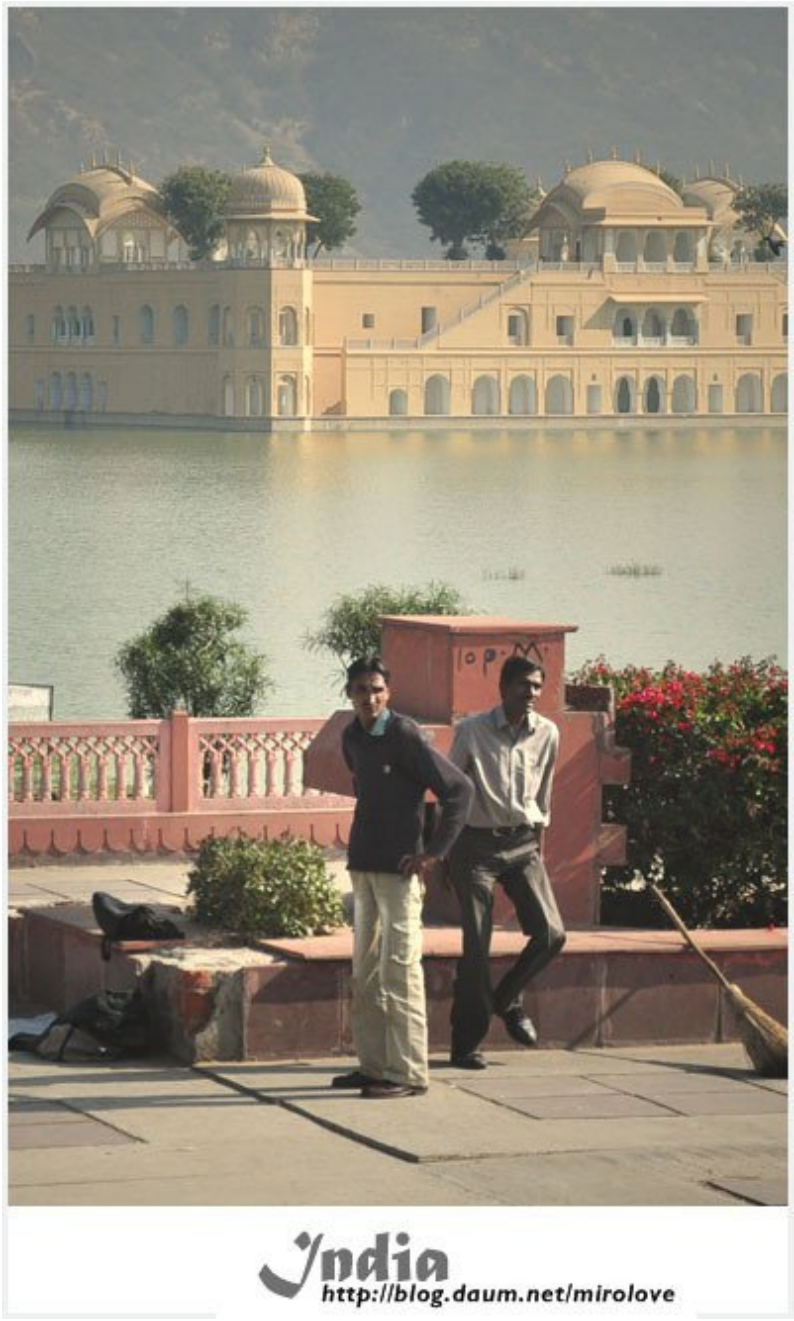
2010.12.31 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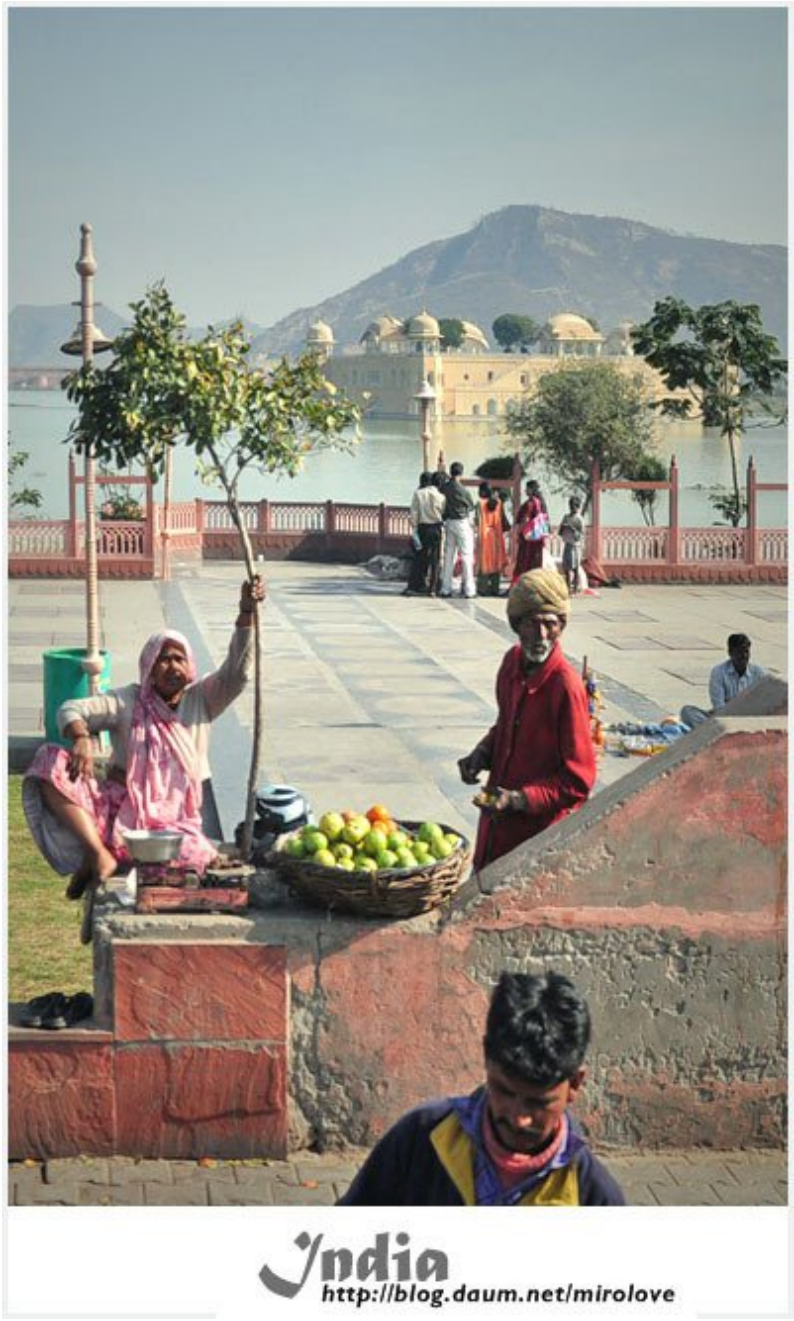
2010년 1월18일 (월)

암베르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물의 궁전이다.
원래의 이름이 따로 있을텐데....
물 위에 떠있는 걸로 봐서 여름 궁전쯤 되려나???

안개에 가리워져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듯.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가 걷히고 그 모습을 드러낸 성채의 모습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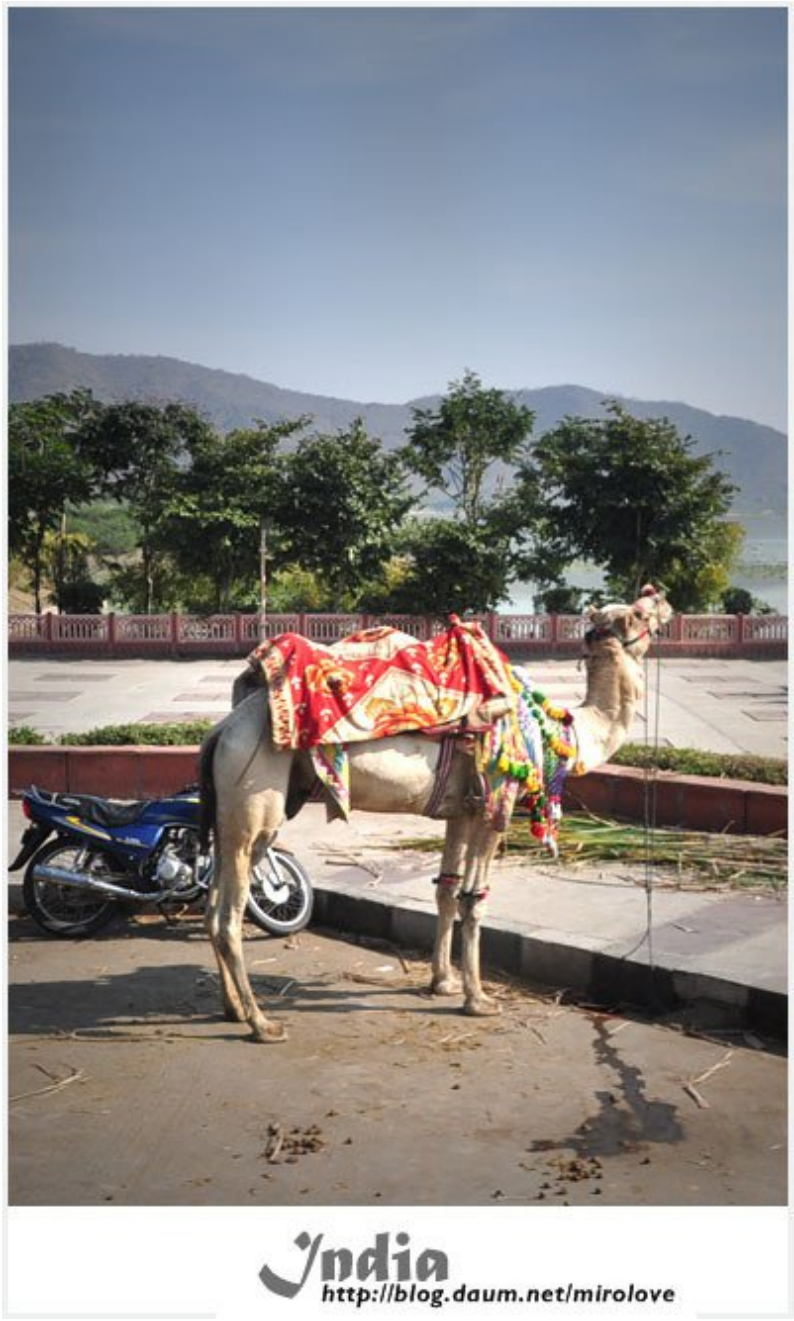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한적한 편이긴 하지만 이 곳도 관광지라고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상인들이 눈에 띈다.

마술쇼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어린 형제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구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이 곳의 현실을 보면
그래도 참 기특한 녀석들이다.
꼬마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거니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대견했는지
일행들 대부분이 앞다투어 녀석에게 돈을 쥐어주었다.
녀석들에겐 아마도 대박 횡재한 날이었을게다.

이 아이도 열심이었는데 마술쇼하는 형제들만큼 마음을 사진 못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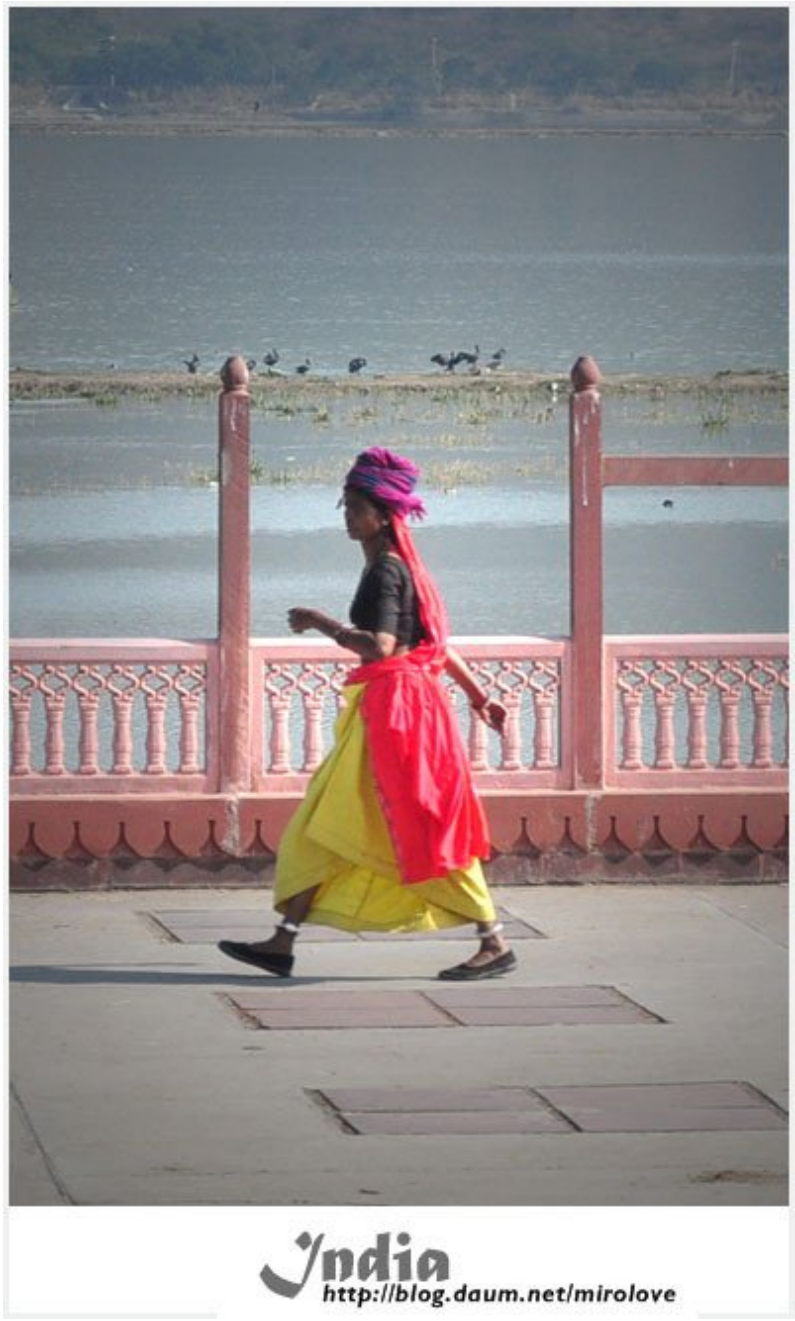
고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관광버스가 멈추어 서면 관광객들을 붙들고 물건을 팔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인들과
구걸을 하려고 대기중인 소녀.



낙타도 돈벌이를 위해 대기 중.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나의 샷질을 유도하는 울긋불긋 원색 옷의 인도여인들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이 나뭇가지들은 어디에 쓰고자 하는 것인지...
나무를 머리에 인 여인들의 행렬.

GOVT HIGHER SECONDARY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점심 먹으러 호텔로 돌아가는 중에 만난 코끼리

인도 여행기... 언제쯤 완성할 수 있으려나.

2010.12.31 12:08

아직 반밖에 못 썼는데 말이다.ㅜㅜ

(인도 암베르) 쥬얼리 샵 구경과 산책 길에 만난 아이들

2011.01.01 01:12

2010년 1월18일 (월)

암베르성과 물의 궁전을 보고 점심을 먹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쥬얼리 샵.
쥬얼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SHOP의 2층에 있는 장식 조각상들만 구경했는데 장식 조각상들의 대부분이 가네샤 신이다.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

입구부터 가네샤 신의 형상이...

▲

다양한 의상을 입은 가네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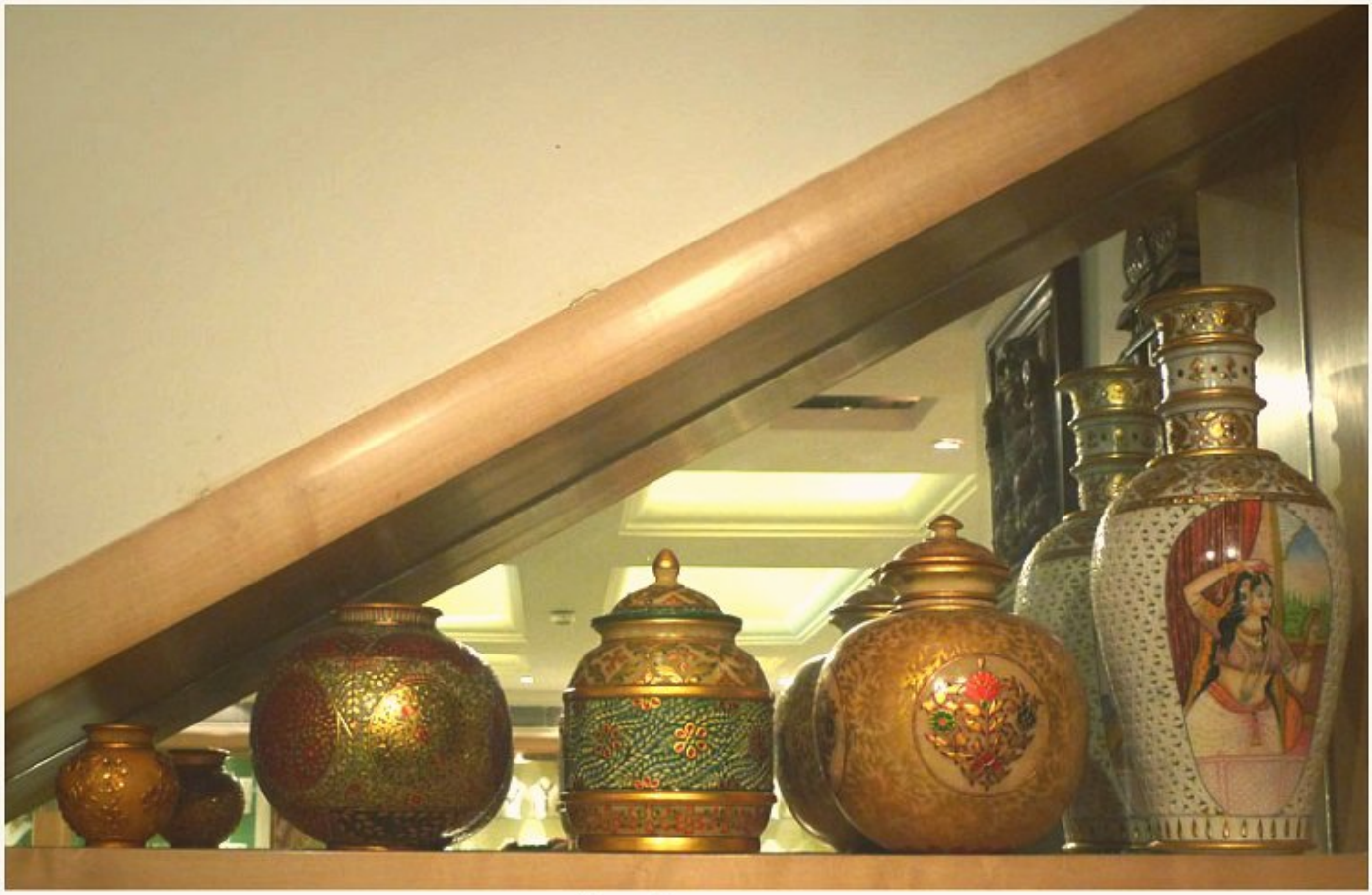
▲

손이 여러개라 참 편리할 것 같은...

▲

가네샤와 함께...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

고급스러워 보이는 항아리들(?)

▲

아직 쥬얼리로 모양을 갖추기 전인 원석들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

원석들이 어떻게 장신구로 태어나는지 수공과정을 보여주는 곳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

쥬얼리 샹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참 colorful한 인도다.

▲

유명한 인도 배우의 광고판이 걸려 있길래 한 컷.

GANPATI TEXTILES & HANDICRAFTS
INDIAN TEA & SPICES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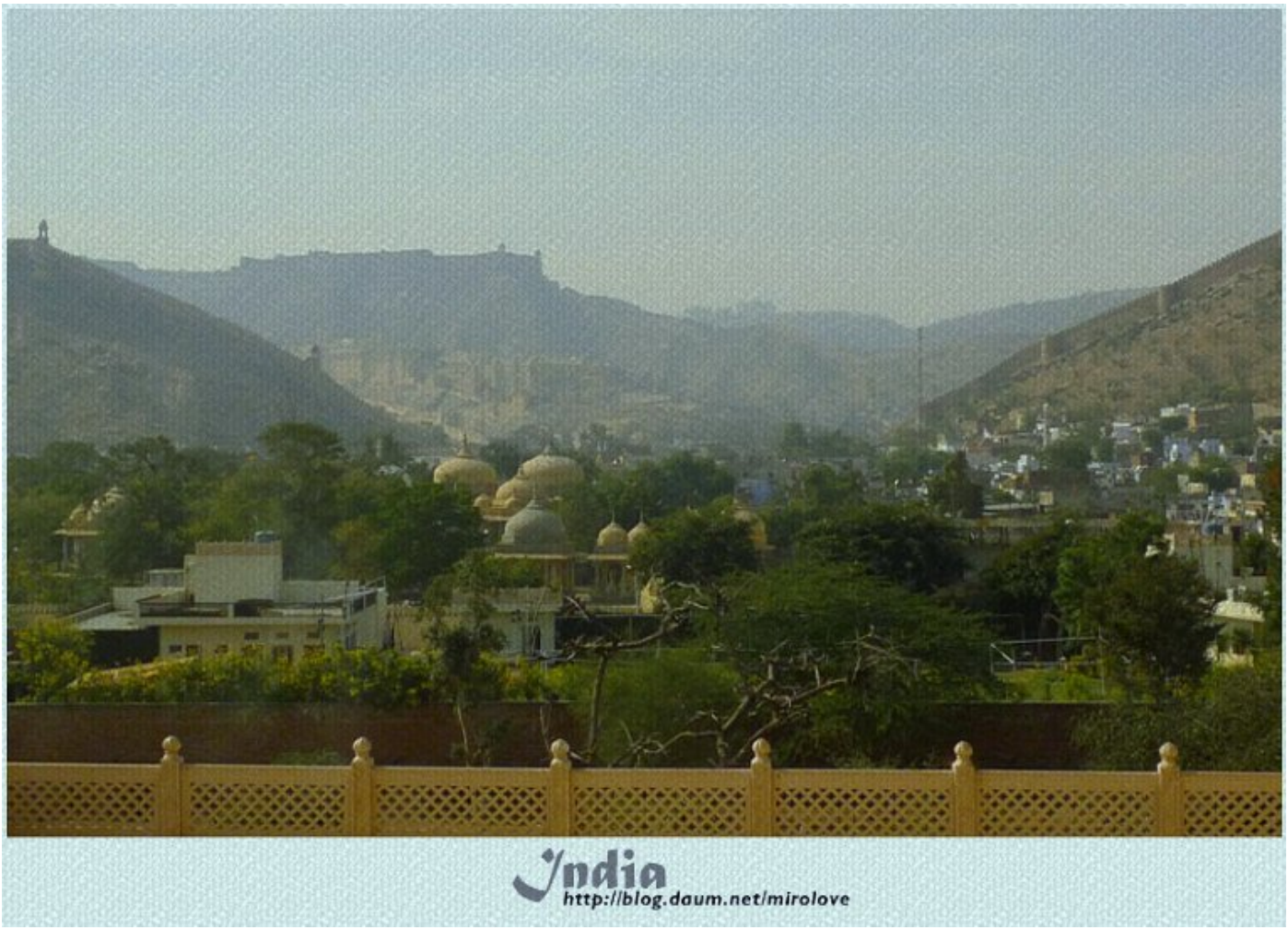
▲

사람과 코끼리와 소와 낙타가 섞여 다니는 인도다운 길

▲

호텔 도착

호텔 사진도 열심히 찍어댄 것 같은데 왜 사진이 보이지 않는 건지...???



▲

호텔 테라스에서 바라본 암베르성
보기엔 참 가까워 보이는데...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호텔 근처의 동네 구경에 나섰다.

▲

이 곳은 호텔 맞은편에 있는 학교.

▲

도무지 학교처럼 보이진 않지만 운동장에서 교복 입은 어린이들이 수업 중인걸 보았으니 학교가 분명 맞을게다.
점심을 먹는동안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간 건가???
학교가 텅빈 듯 조용하다.
학교 운동장을 지키고 있는 건 아이들이 아닌 흰소.

▲

따뜻한 햇살에 노곤한 듯 졸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 인도여행내내 보아온 모습이지만 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

학교에서 더이상 볼 것이 없을 것 같아 학교를 나섰는데 마침 지나가던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나보고 사진을 찍어 달랜다.
나야 땡큐지만 찍어서 줄 수가 없으니 어쩌지??
사진을 줄 수 없어 카메라에 찍힌 모습만 보여주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한 아이들.
참 해맑게 웃고는 가던 길을 계속간다.
찍은 사진을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핑크시티 자이푸르 (사진 먼저...)

2011.01.02 12:42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HOUSE 480
JAI KISHOR
BAKERY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56
RAHIMEEN TEXTILES & HANDICRAFTS
P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डायरियां
चुनाव प्रचार सामग्री
डायरियां
अरिहंत स्टेशनर्स
GEMS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인도 자이푸르) 바람의 궁전 (사진 먼저...)

2011.01.02 13:11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바람의 궁전

2011.01.10 15:03

Hawa MAHAL
바람의 궁전' 이란 의미를 지닌 궁으로 인도의 자이푸르(Jaipur)에 있다.
자이푸르 시내의 중심가가 내려다 보이는 5층짜리 성으로 1799년 스와이 프라탑 싱(Sawai Pratap Singh)이 건축하고 라찬드 우스타(Lachand Usta)가 설계를 맡았다. 자이푸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이 성은 세상 밖으로의 출입이 제한되던 왕궁 여인들이 도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자이푸르 시내를 관망할 수 있는, 바람이 잘 통하는 격자형 창문이 벌집처럼 많아 '바람의 궁전' 이라고 불린다. 성은 분홍 빛과 붉은 사암으로, 성의 외벽이 도로와 맞닿도록 건축되었다. 성의 1,2층은 정원으로 연결돼 있으며 성에는 약 953개의 작고 둥근 포대와 같은 공간이 층을 이루고 각 공간에는 작은 발코니, 아치형 지붕, 격자형 창문이 나있다.

라자스탄 주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하와 마할 (바람의 궁전)은 자이푸르의 번잡한 시가지 한복판에 홀로 고요히 서 있다. 자이푸르 궁전의 규방 확장의 일환이었던 이 건물은 원래는 전망용 스크린으로 지은 것이다. 이 스크린(일종의 건축적 베일)을 통해 왕실과 하렘의 여인들은 모습이 겉으로 들어날 염려 없이 시장과 그 활기 넘치는 광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라지푸트 양식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파사드의 대칭에서는 무굴 양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높이가 15m에 이르는 파사드에는 950개가 넘는 창문이 있으며 각각 하얀 석회로 모티브를 그려 넣었다. 주 출입문은 건 물 뒤쪽에 있으며 경사로를 통해 위층으로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팰런킨(어깨에 메는 가마)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와 마할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수많은 탕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사막의 열기로부터 실내를 서늘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JAIPUR
2010.01.19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India
http://blog.daum.net/mirolove

[인도 자이푸르] 잔타르만타르 (사진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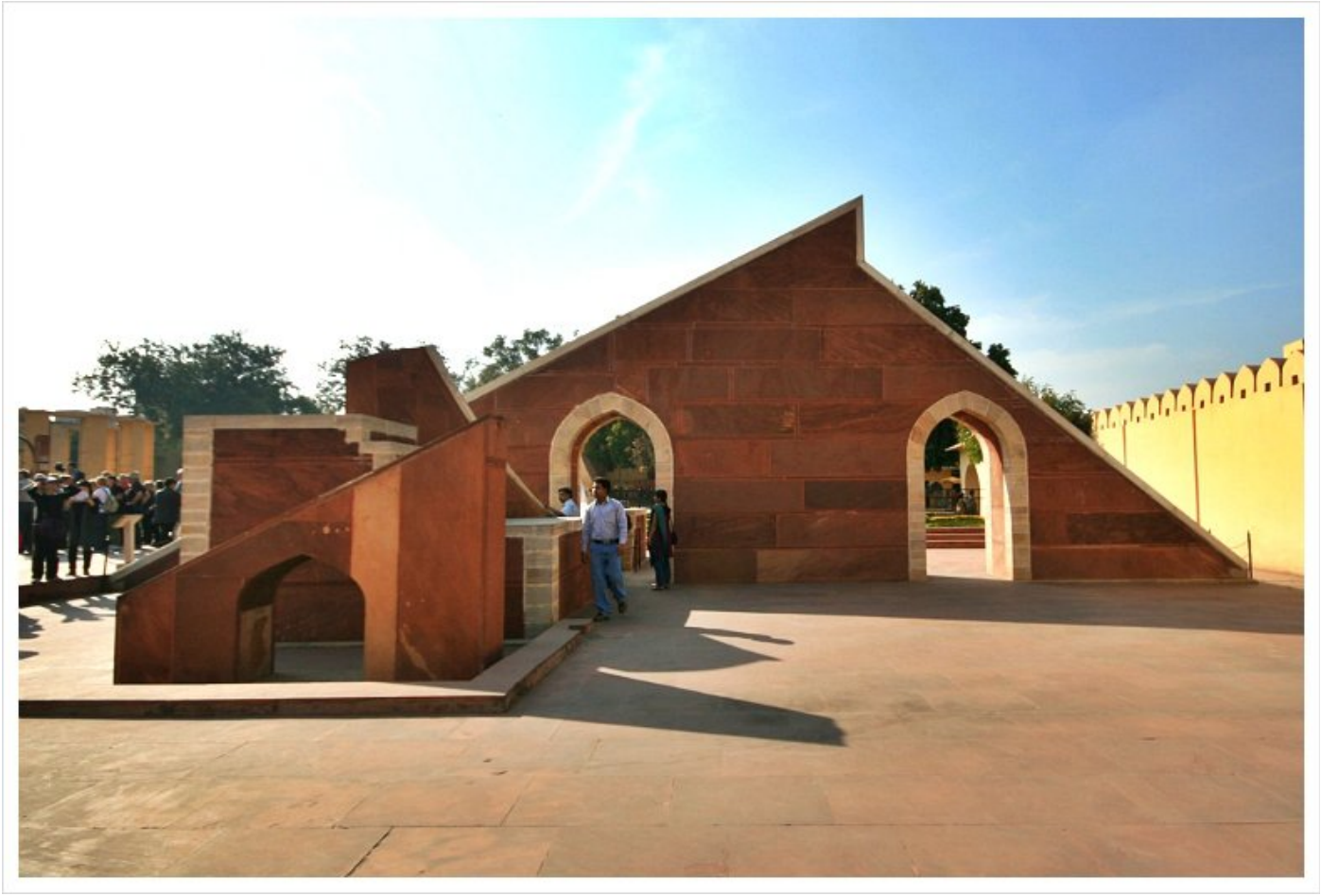
2011.05.08 23:40

2010년 1월19일 (화)

잔타르 만타르

건축, 천문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자이싱 2세가 인도 달력의 개량을 위해 세운 천문대 잔타르 만타르다. 1724년, 델리를 시작으로 웃자인, 자이푸르, 바라나시, 마투라에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중 이 곳 자이푸르에 세워진 이 잔타르 만타르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총 18개의 천문대와 적도 시계, 해시계 등을 갖추고 있는데, 천문대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도 실제 천체 관측이 실시됐을 정도로 그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천체를 감상할 수 있는 밤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아 그 진가를 확인해 볼 수 없다는 거. ㅜㅜ



ENTRY

The Palace Cafe

786
N F 17

핑크 시티의 힌두교 사원 (사진만...)

2011.05.08 23:41

India
PHOTO BY RANEE

India
PHOTO BY RANEE

India
PHOTO BY RANEE

श्री
त्वमेव माता च पिता त्वमेव
त्वमेव बन्धुश्च सखा त्वमेव।
त्वमेव विद्या द्रविणं त्वमेव
त्वमेव सर्वं मम देव देव॥
त्वं ब्रह्मादि देव: पुरुष पुराण
सत्यस्य विश्वस्य परं निधानम्
वेत्तासि वेद्यं च परं च धाम
त्वया ततं विश्वमनन्तरूप॥
SHRI LAKSHMI NARAYAN TEMPLE
PRAN PRATISTHA
PERFORMED BY
SWAMI SHRI AKHANDANANDJI
ON 22 nd FEBRUARY 1985
श्री लक्ष्मी नारायण मन्दिर
स्वामी श्री अखण्डानन्द जी
द्वारा
प्राण प्रतिष्ठा सम्पन्न
दिनांक २२ फरवरी १९८५
श्री लक्ष्मी नारायण मन्दिर
में
भक्ति-भाव - पूर्ण
सभी दर्शनार्थियों का
स्वागत
SHRI LAKSHMI NARAYAN TEMPLE
OPEN TO
ALL DEVOTEES
SHRI LAKSHMI NARAYAN TEMPLE
A DEVOTIONAL ASPIRATION OF
SHRI BRAJ MOHAN BIRLA AND
SMT. RUKMANI DEVI BIRLA
BUILT BY
SHRI GANGA PRASAD BIRLA AND
SMT. NIRMALA BIRLA
THROUGH

[인도 델리]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바하이 사원 (사진 먼저....)

2011.10.23 23:39

2010년 1월 20일 (수)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델리에서 부사월까지몇 시간이 걸렸을까?(사진만)

2011.10.23 23:40

2010년 1월 20일 (수)

पीने का पानी
DRINKING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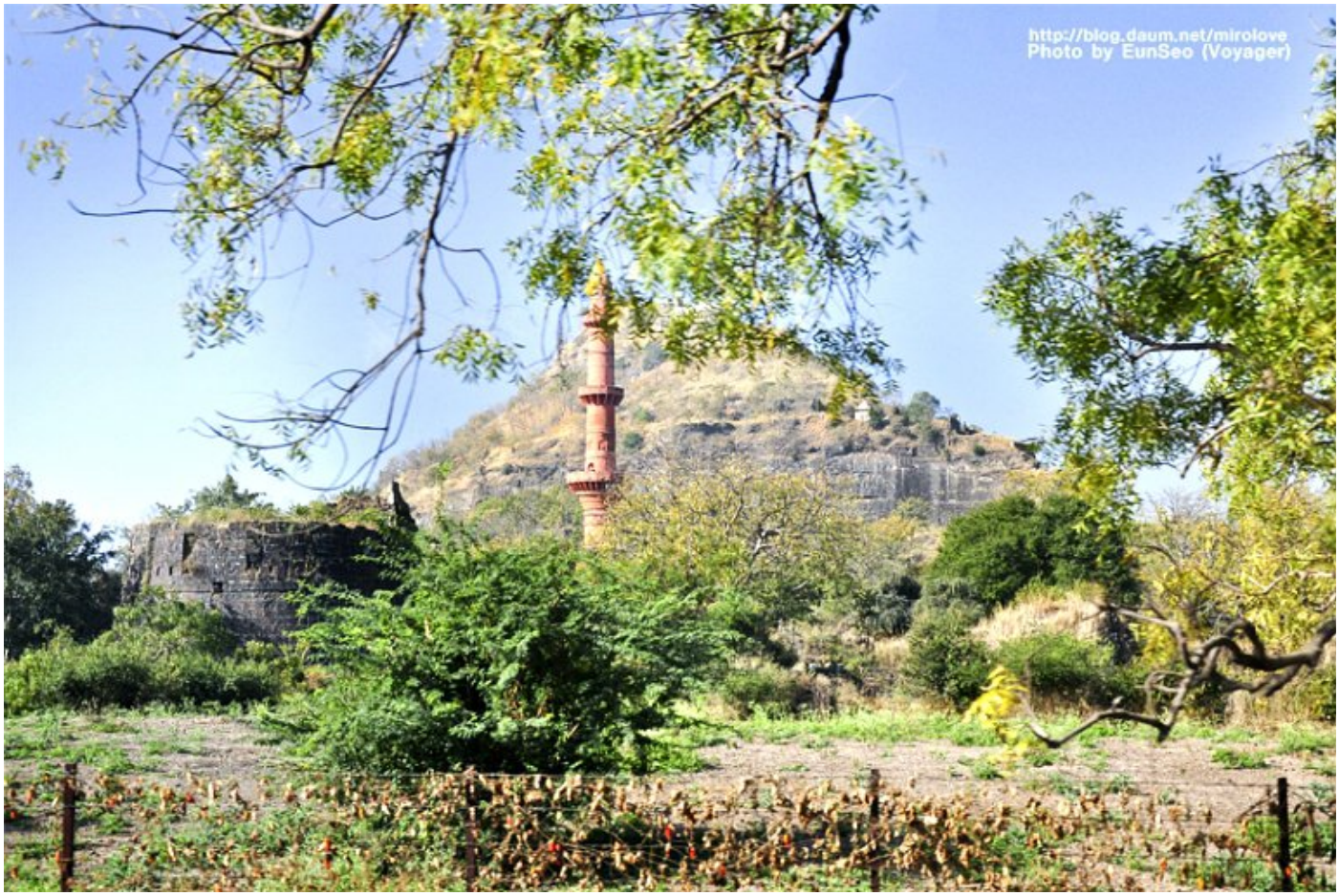
R-51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BHUSAVAL भुसावल

[인도] 엘로라 가는 길 (사진만 먼저 올려요. 여행기는 나중에...)

2011.10.23 23:41

2010년 1월 22일 (금)



다울라타바드는 인도의 데칸고원 근방의 성채이다.

데칸 고원

Voyager
http://blog.daum.net/mirclov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Airtel
Airtel
Airtel
Airtel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देवगिरी पान शॉप
Devgiri Pan Shop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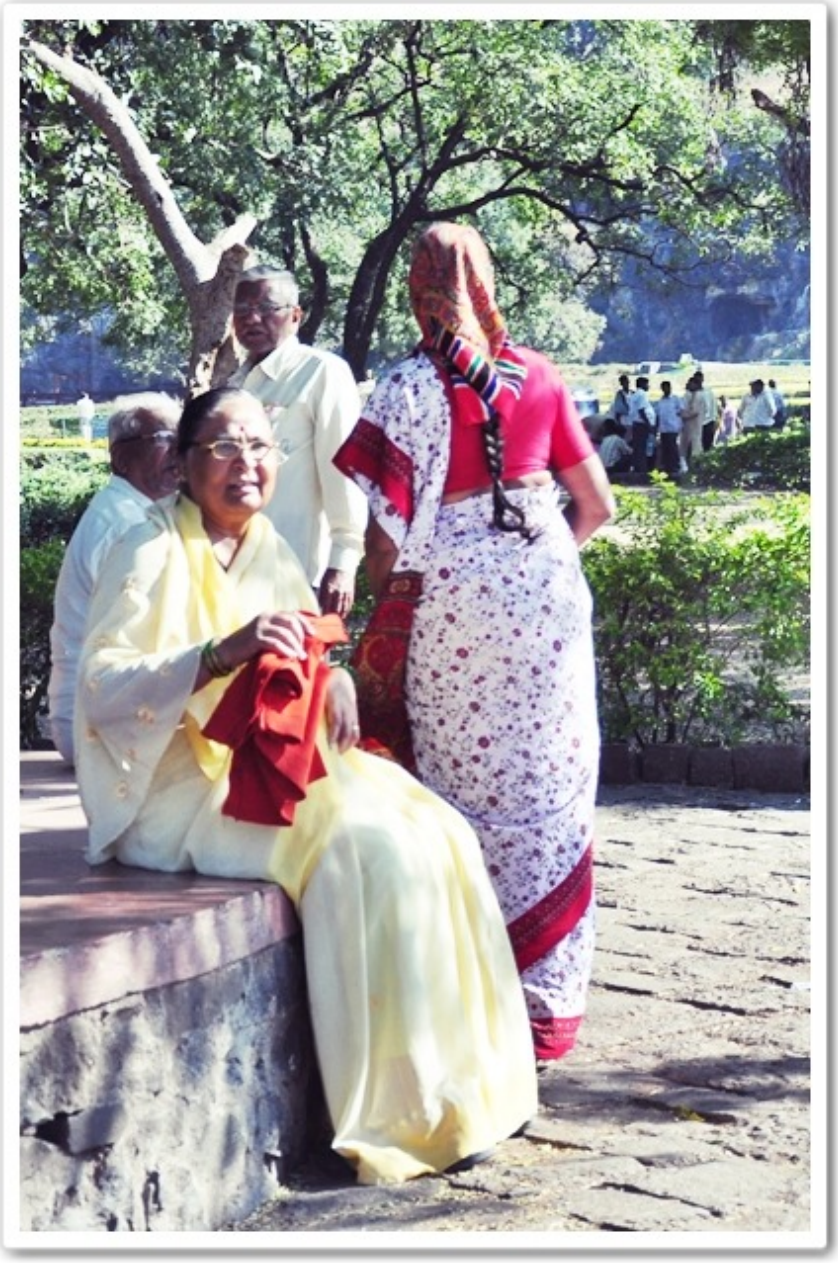
[인도] 엘로라 석굴 중 힌두 사원인 카일라쉬 사원 (사진만 있어요)

2012.06.17 10:07

2010년 1월 22일 (금)

엘로라의 백미 카일라쉬 사원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ELLORA
2010.01.22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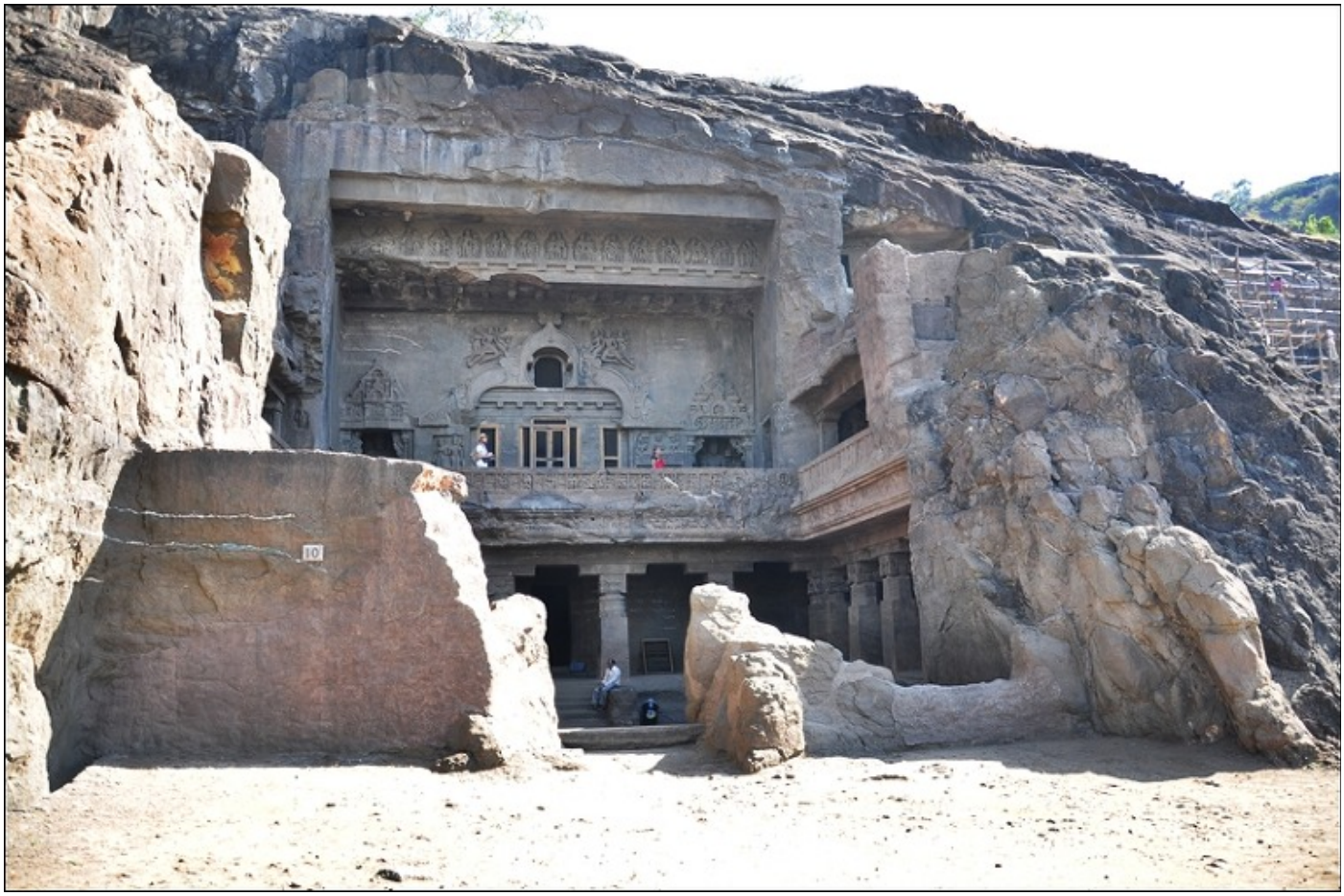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인도] 엘로라 석굴 중 불교사원과 자이나교 사원(사진만 있어요)

2012.06.17 10:13

2010년 1월 22일 (금)

○ ..... 불교 사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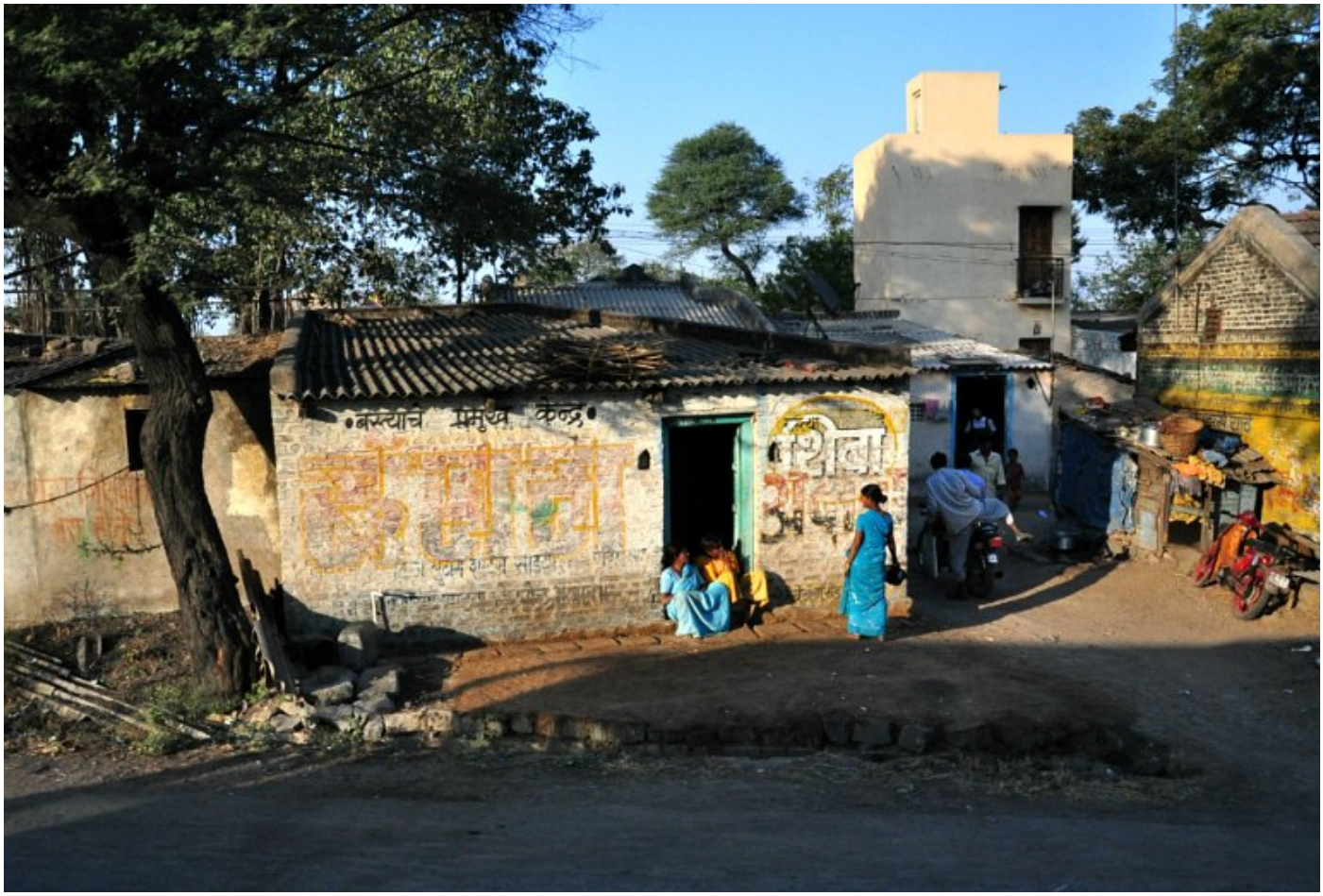
○ ..... 자이나교 사원 ..... ○

[인도] 아우랑가바드에서 뭄바이 가는 길 (사진만 있어요)

2012.06.17 10:16

2010년 1월 22일 (금)

ॐ नमःशिवाय



श्री गणेश
बिशाल हार्डवेअर
संतोष स्विट होम
अॅन्ड स्नॅक्स सेंटर

HOTEL
SAVERA

पोश्चरणा

प्रकाश स्वीटस् होम

HYUNDAI
HOLAY

एग्ज़ंडे!

[인도] 밤늦게 도착한 뭄바이...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2012.06.17 10:16

2010년 1월 22일 (금)

그토록 보고팠던 뭄바이인데...
밤늦게 도착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소화불량으로 5일전부터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엉망진창.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타지마할 호텔

빨래터 도비가트

공항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2010 라니의 여행앨범(인도,네팔)

블로그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저자 ⓡanee(라니)

발행일 2015.07.10 11:56:57

Daum 블로그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